



4

199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3. 4호

(루게 546)



◆◆◆◆◆◆◆◆◆◆ 차 례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작가들의 첫째가는 사명	4
천만년 길이 모시리	7
내 심장의 속삭임 (외 1 편).....	8
위 축 장.....	9
4 월의 송가	10
새 싹	11
나는 행진곡을 사랑한다	19
성간에서	20
태양의 꽃 김정일 화	23
환하신 웃음 영원하시웁기를.....	24
사랑과 의리의 세계 (외 1 편).....	25
이사집	26
신기한 옷	27
명언해설	29
승리의 메아리	30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와 작가의 형상적탐구	37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43
이 민 위 천	44
나의 집 창가에 피는 꽃	45
김일성 동지를 노래합니다	46
최고사령관 김정일 원수이시여	46
제주도 진주조개	47

명제해설	50
유산과 전통에 대한 주체적리해	51
서정의 나래를 펼쳐주시다	56
나를 다시 세워달라!	58
충성의 걸음을 더 크게... ..	59
나를 보고 있소 !	62
봄날의 꽃으로 피고있었네	71
흐르는 세월속에... ..	72
인생과 세월	73
꽃에 대한 생각	74
경 례	76
금 강 산 (외 2 편)	79
언제나 한모습으로	80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작가들의 첫째가는 사명

인류의 생활에 파란많은 흔적을 남기고 현대사에 뚜렷한 진리와 교훈을 아로새긴 20세기, 이 력사의 세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으며 흘러갔다. 세기의 위인의 혁명활동과 함께 흘러온 우리 인민의 력사는 더없는 영광과 공지에 넘쳐있다.

조선혁명의 첫걸음에서 그린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난 오늘 우리 작가들은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군중속에 들어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80여성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우러르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력사는 위대한 투사, 위대한 인간의 피어린 자욱이다.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서부터 깊이 아로새겨진 생활과 투쟁의 참된 진리와 교훈, 그에 깃들여있는 수령님의 생활의 본령과 투쟁의 좌우명,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 동지와 동지애에 대한 사상과 견해, 인정과 의리의 세계에 대하여 되새겨보는 우리 작가들은 수령형상을 훌륭하게 창조하는 사업을 우리 문학의 지상의 과업으로, 영예로운 사명으로 깊이 감수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수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품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산주의혁명가의 최고전형이다.

수령의 빛나는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은 가장 숭고한 혁명가의 정신세계를 알게 되며 그 위대한 사상정신적품모와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게 된다. 수령형상은 그 어떤 다른 형상으로써도 결코 대비할수 없는 강한 예술적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수령의 혁명사상을 안겨주고 수령의 위대한 품모를 뜨겁게 느끼게 하면서 수령에 대한 존경심과 흠모감을 불러일으키며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려는 충성심을 키워준다.

수령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할 때 주체문학이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고 수령의 위업에 복무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는데 수령형상창조가 주체

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으로 된다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수령형상창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무엇보다먼저 결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데는것이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깊이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그 진리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이 명백히 강조되어야 한다.

총서《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혁명의 려명》과《은하수》는 1920년대 후반기 위대한 주체사상이 어떻게 창시되었으며 그것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치였는가 하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물론 문학작품에서 사상리론의 창시과정을 반드시 보여주어야만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줄수 있는것은 아니다.

총서《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빛나는 아침》은 사상리론의 창시과정을 기본으로 하는 소설은 아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랜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빛나는 사상리론적예지를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수령형상창조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인류의 자주위업을 개척해나가는 그 길, 인민대중을 믿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나가는 그 길은 더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간고한 길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의 힘에 의거하시여 싸워 승리하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이것을 예술적형상으로 깊이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품모를 보여주는 데서는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고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작품에 해당 부분의 전문가도 풀기 어려운 기술실무적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풀어주시는 식으로 형상하는것은 격에 맞지 않는것이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정치적수령으로서의 결출한 품모를 보여주도록 형상하는데 힘을 기울이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정치, 위대한 전략, 위대한 령도예술을 깊이있게 그려내어 주체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끄시는 수령님의 풍모를 격이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수령형상창조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수령이 지닌 인간적풍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위대한 정치적령도자일뿐 아니라 위대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풍만한 생활로 펼쳐보여주어야 한다.

진정한 진리로 일관된 참된 인간애란 단순하고 명백한것 같지만 그것은 어려운 탐구와 실천투쟁속에서, 간고한 체험속에서 얻어지는 값비싼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작품에 이것을 폭넓고 깊이 있게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풍모의 위대성을 더 잘 형상하려면 혁명전사와 인민에게 베푸시는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혁명전사와 근로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베푸시는 인민의 수령의 위대한 귀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은 마땅히 수령님과 인민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관계를 깊이있게 그려야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풍모의 위대성을 밝혀낼수 있다.

수령이 지닌 인간적풍모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서 형상을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는 형상의 격식화를 철저히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야 한다.

수령의 인간성은 행동이나 대사에서도 나타나지만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는데서 보다 많이 발현된다. 그러므로 참다운 인정세계를 깊이있고 심오하게 보여주어야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풍모를 더 훌륭히 보여줄수 있다.

우리 문학에서 수령의 형상은 수령, 당, 대중의 3 위일체의 원칙에서 그려야 한다.

탁월한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수령님께서서는 기존공식과 고정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밑에 오직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으로 우리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혁명에서 수령이 노는 역할을 원리로써만이 아

니라 피로써, 심장으로써 체득한 인민만이 지닐수 있는 뿌리깊은 사상감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3 위일체의 관점과 립장에 확고히 서서 수령을 형상해야만 수령을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인 관계속에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 정당하게 그릴수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3 위일체의 관계에서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언제나 인민들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수령님을 그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에 철저히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된다면 백번 패하게 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인민을 절대시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천금같이 귀중한 리념속에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정치적인신앙과 좌우명 그리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단 한번도 잊으신적 없고 드티신적 없는 생활의 본령이 집약되어있다.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을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계시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현명하게 승리적으로 령도하여오신 근로인민의 자애로운 위대한 아버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나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의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오시였으며 수억만리 현지지도의 길을 끝없이 이으시며 근로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로정에 갇든 잊을수 없는 사연을 감명깊게 형상하는데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야 한다.

실로 우리 작가들은 혁명의 뇌수인 수령을 떠나서는, 혁명을 령도하는 당을 떠나서는 나라의 존엄도, 민족의 번영도, 혁명위업의 승리도 생각할수 없다는 우리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을 보여주는데 형상의 주되는 힘을 항상 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훌륭히 형상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는것은 우리 세대 작가들이 지닌 더없이 영예롭고도 가장 책임적인 사업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인민에 대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지니신 인민의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우리 인민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으로부터 세기적인 번영과 행복에

로의 역사적인 전변을 이룩하고 가장 보람찬 삶의 주인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하는 숭고한 이 사업은 직접적인 목격자와 체험자가 살고있는 우리 수령님대에 다 완성해놓아야 할뿐아니라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 풍년이 들게 하여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에는 화폭의 중심에 내세우는 수령의 특출한 사회적지위로 하여 고유한 생리가 있게 된다.

그것은 수령을 구체적인 인물로 그리면서도 개인으로 형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과 관련되어있는것이다.

작가들은 수령을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력사발전과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특출한 위인으로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고 그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내야 수령형상을 응당한 수준에서 창조할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어나가는 그 열렬한 충성심에는 수령님께서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로 민족앞에 쌓으신 위대한 공적과 더불어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 없는 크나큰 사랑을 안으시고 인민의 어버이로 한평생을 바치시는 그이의 크나큰 로고에 대한 감사의 정이 뜨겁게 넘쳐흐르고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수령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탁월한 령도자의 지위에 맞는 위대한 품모를 격이 있게 그려야 한다.

수령형상창조에는 반드시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수령의 특출한 사회적지위와 거대한 역할에 알맞는 철학적으로 심오한 문제가 깊이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수령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어울리는 문제란 다른아닌 인민대중의 근본이익, 혁명과 건설의 전략과 로선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라는것을 깊이 알고 작가들은 자기의 작품창작에서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사실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람은 수령님의 모든 사색과 탐구의 원천을 이루고있으며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세우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의 초석으로 되고있다.

정책 하나를 세우시고 로선 하나를 내놓으시어도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신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어버이품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정책도, 국가의 시책도 인민에 대한 두터운 배려로 베풀어지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한 숭고한 은덕으로 수놓아진다.

수령형상을 높은 수준에서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인물의 형상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것은 작품에 나오는 인물을 일정한 사회적계층의 대표자로 형상하는것이다. 그래야 사회적집단을 통솔하고 인도해나가는 최고지도체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보다 원만히 보여줄수 있다.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측근인물의 형상을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측근인물은 그가 누구든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성격의 핵으로 되여야 하며 응당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산 모범으로 깊이있게 전형화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성격적특질을 조화롭게 배합하여 측근인물들의 충실성을 개성적으로 잘 살려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에서는 또한 철학적심오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철학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내야 수령님의 뛰어난 사업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옹계 보여줄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리론과 혁명활동의 전과정이 특출한 철학적예지로 빛나고 있다는것을 깊이 알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심원한 철학세계를 품위있고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창작사업에서 최대의 정중성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존엄에 상응하는 형상의 높은 품격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최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높은 지성과 심오한 정서적체험만이 위대한 인간세계의 높이에 접근할수 있다.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잘 살리는 작가만이 수령형상작품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창작할수 있다.

세상에 태양과 그 행성들의 통일을 가를 힘이 없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작가들을 갈라놓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빛나는 조선이 있고 우리 혁명적작가들의 크나큰 행복이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어버이 품속에 영원히 살려는 우리 작가들의 확고한 의지.

바로 이 신념, 이 의지가 모든 작가들의 마음속에 바위처럼 든든히 뿌리내리고있다.

작가들은 인민의 수령형상창조를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고 훌륭하게 함으로써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자.

천만년 길이 모시리

량덕모

해마다 찾아오는
4 월의 명절날
우리 수령님
우러러 부르고싶은 말은 많아도
가장 친근한 마음으로 부르노라
다만 어버이라고

내 한생의 먼길
헛걸음 찍을세라
이끌어주시는 손길이 되고
눈비에 젖을세라
안아주시는 품이 되어
언제나 함께 계시는분

그렇게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
가지가지 소원도 다 풀어주시고
남모르는 희망도 다 헤아리시며
한평생 어느 하루
시름을 놓으신적 있었으랴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시며
걸고걸으신 그 길에 꽃들이 피고
기쁨에 기쁨을 얹어주시며
넘고넘으신 령우에 열매가 주렁져
이 땅은 인민의 낙원

진정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
쏟아지는 봄빛은 이리도 따사로웁고
우리를 위해 걸으시는
그 자욱자욱 수놓으라고
산에 들에 봄꽃은 만발하여라

아, 세상에 다심한것이
어머니 사랑이라면
그모두를 합쳐보라
세상에 웅심깊은것이
아버지 사랑이라면

그모두를 합쳐보라
그래도 수령님 사랑을 못따르리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시는 그 사랑
저기 통일거리 창가에도
철따라 갈아입는 새 옷에도
그리고 막내아들이 마음대로 쓰는
작은 연필 한자루에도
눈물겹게 깃들어있고...

이 시각 더미로 탄을 싣고 달리는
저 기관차의 기적소리에도
강냉이 푸른잎 살랑이는
그 이랑이랑에도
사연깊게 어려있어...

이교사는 하늘도 그 사랑의 하늘
밭교사는 땅도 그 사랑의 대지
어디를 둘러보아도
인민을 위한 우리 식 사회주의
행복한 내 나라가 제일이어라

하여 밀물처럼 차오르는 고마움 안고
봄썩이 햇빛을 그리듯
간절한 그리움에
수령님을 어버이로 따르는 마음

흘러간 영광의 년대기들
목메여 목메여 더듬으며
변함없이 창공높이 휘날리는
우리의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하나의 맹세가 불타올라라

오, 사회주의 내 조국
무궁한 미래를 위해
만수축원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수령님을
천만년 길이길이 모시리!
인민의 영원한 어버이로

내 심장의 속삭임 외 1 편

리명수

진리처럼 새겨져
소원으로 타고르는
내 심장의 때없는 속삭임
우리에게는 수령님이 계신다
천년을 만년을 계셔야 한다

머리에는 두뇌가 있어야 하듯
생명에는 심장이 있어야 하듯
우리에게는 수령님이 계신다
천년을 만년을 계셔야 한다

계시여 있게 된
복된 오늘이 고마워서나
계시여 있게 될
더 좋은 래일이 소중해서나
진정 수령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모든것 생각할수 없기에

생각할수 있으라 수령님을 떠나
존엄높은 민족의 긍지어린
우리만이 이교사는 저 푸른 하늘
무궁한 사랑의 따스한 봄빛아래
우리만이 딛고사는 풍요한 이 땅
행복에 겨운 눈동자마냥
거리마다 밝게 웃는 불 밝은 창문들을

상상할수 있으라 수령님을 떠나
사랑에 시간 잇은 공원의 속삭임들
홍취에 나이 잇은 강변의 춤가락들
봄동산에 깃들인 날새들마냥
기쁨속에 뛰노는 행복넘친 아이들
하나의 긴 프락으로 넓어진 강산에서
높이 울리는 우리의 웃음소리를

수천년 눌러살던 인민들 잠깨워

세상을 틀어잡게 해주신분
심장에 짝 차신 사랑으로
인민의 가슴가슴을
따뜻이 녹여 꽃피워주신분

수령님이 계신다
이 세상 구석구석 어둠을 불사르며
천지를 비쳐주는 그 빛발이
해빛처럼 공기처럼 우리에게 익숙된
만민을 안아주는 그 덕망이
계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래일이 안심되는 이 믿음이

그이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세상을 바로 꿰뚫어볼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용맹의 피 뜨겁게 지닐수 있어라

눈속을 헤치며
불속을 헤치며
영광의 력사를 수놓아오신
사랑을 통해 승리를 통해
인민의 영원한 믿음되신분

자식에겐 부모가 있어야 하듯
대지우엔 태양이 있어야 하듯
투사에겐 진리가 있어야 하듯
아 우리에게겐 수령님이 계셔야 한다
천년을 만년을!

그것을 위해
너에게는, 나에게는, 우리 인민에게는
가슴속에 불타는 소원만이 아닌
바치는 충효가 있어야 한다
받드는 진심이 있어야 한다

시험포전을 두고

누구나 아는 일
우리 수령님의 저택에는

자그마한 시험포전이 있어라
정원의 꽃밭보다 더 애착을 가지시고

몸소 가꾸시는,

아침이면 노을 안고 돌아보시고
저녁이면 별빛 이고 돌아보시고
날 차지면 걱정되어 돌아보시고
바람불면 근심되어 돌아보시고...

무엇인들 없으랴
거기엔 밭곡식도 논곡식도 있고
거기엔 남새들도 약초들도 있고

바둑판모양 쪼개놓은 포전에선
구품종도 새 품종도 재래종도 우량종도
제 명패 내걸고 자라고있나니
마치 그것은
축소한 나라의 농경지인듯

거기선 그이께서 포전의 농산기사
거기선 그이께서 포전의 물관리공
거기서 온 나라의 논밭들을 살피신다
거기서 온 나라의 품종들을 고르신다

아, 온 한해
눈비와 들바람을 다 맞으시며
온 나라의 농장벌을 걸으시면서도
몸소 사색의 낮과 밤을 이으시며
주체의 농사법을 완성해나가시는
우리 수령님의 시험포전

진정 이 땅에서
누가 밭머리의 가장 가까이 살고있는가?

위 축 장

-한 지식인이 부른 노래-

박창화

그것은 하늘이였고
그것은 해빛이였다
눈물속에 두손으로 받아안은
수령님 존함이 빛나는 위축장은

나래 펼 하늘이 없어
진창속에 허덕이던 몸 품어준 그 하늘
어둠속에 헤매이던 걸음을
광명의 세상으로 이끌어준 그 해빛!

아, 해방산마루의 수수한 집에서
만고의 영웅, 민족의 태양이신
수령님 품에 내 안겼을 때
비로소 참삶의 첫걸음 떼지 않았던가

진정, 잊을수 없는 소생의 그 봄날에
곡절 많던 운명의 님은 영원히
위대한 어버이 품에 내렸거늘
그날부터 내 운명엔 갈림길이 없었다

마가울 찬비 뿌리는 전략적후퇴의 길에서도
재가루에 밭목이 잠기는 복구의 길에서도
가슴깊이 위축장을 간직한 걸음
당을 따라 헛디딤이 없었다

교조와 사대의 유혹이 발목을 붙들 때
종파의 저울에 내 운명이 기울어질 때
그때마다 신념의 기둥을 받쳐준것은
수령님 보내주신 그 위축장이었나니

실험실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시련의 눈바람을 다 막아주고
맥놓고 주저앉을세라
실패에서 성공의 싹을 찾아준 그 손길

참으로 그러했다
사랑과 믿음의 하늘을 펼쳐주고
신념과 열정의 불씨를 안겨주고
한가정의 운명까지도 다 지켜준 위축장!

한평생 심장처럼
그 위축장 품고 살아온 내
가슴에 무거운 훈장들을 쓸어보며
새 론문을 발표하듯 흥분속에 웨친다

내 생명의 유일한 원소
세상에 없는 주체의 원소
아, 그것은 위축장에 넘쳐나는
수령님의 사랑이라고, 믿음이라고! -

4 월의 송가

(총련) 김학렬

《시대의 거성-김일성!》

세계는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다
환호의 회오리 누리를 진감한다

회오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정녕
뜨거운 회오리를 물고오시는분

수령님 만나뵈옵는
영광의 그 순간에
어이하어 사람들은
그리고 감격의 회오리에 휩싸여
구슬같은 눈물로 가슴 벅차는것일까?

일본의 이름높은 로제상도
실눈을 슬벅거리며
도무지 울음을 금할수가 없었음을 실토했으려라

남조선의 어느 거물도
총칼의 길을 내던지고
통일광장으로의 새 길을 택하였으며

인디아의 대학교수, 프랑스의 가수도
아프리카의 시인, 아메리카의 정치인도
후더운 눈물로 만나뵈온 수령님을 우러러
한결같이 웨치노라-
《그이는 혁명의 위대한 거성!》

이날따라 잊을수 없구나
10 여년전 4 월의 꽃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모시고
영광의 우리 예술무대 펼친
감격의 그 시각

격정의 울음바다속에서
사랑에 넘친 가르치심 받고
귀한 선물시계까지 받아
흠모하는 수령님 귀한 손의 따뜻함을
이 심장에 고스란히 아로새긴
홍분의 도가니속의 그 순간

수령님 만나뵈옵는
영광의 그 순간에
어이하어 사람들은
그리고 감격의 회오리에 휩싸여
폭포같은 눈물로 젖어드는것일까?

그것은 아마
눈보라치는 백두의 산발
대오를 이끄시여 나아가신
억센 그 걸음그대로 나오시기에
금시 눈보라소리, 총탄소리도
함께 물고오시는듯도 하기때문이지

아마 그것은
카륜회의의 그밤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시던 창창한 목소리

아마 그것은
전쟁승리의 광장에 터지던
우렁찬 만세소리, 박수소리
강선의 전기로가 지동치는 소리
청산벌에 울리는 트랙토르소리도
함께 물고오시는듯도 하기때문이지

아마 그것은
통일문을 여는 힘찬 노래소리
우리 식 사회주의예로의 길
세계혁명 정의의 길 가리키는
주체의 억센 기폭소리도
함께 물고오시는듯도 하기때문이지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덕성의 위대성으로 하여
봄우뢰, 봄회오리와도 같은
인간에 대한 크낙한 믿음
뜨거운 그 사랑으로 하여
사람들은 것처럼 매혹되어
봄비마냥 흠모의 더운 눈물
가슴마다에 고이 꿰고있는것이지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은
가장 큰 우리의 행복
가장 큰 우리의 념원

금실 봄별도 어깨춤 추고
훈훈한 봄바람, 봄꽃도 노래하는 4 월
민족최대의 경사의 이날에
우리모두 누리와 함께
충성을 안고 신념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만년장수를 삼가 축원하노라

온 세계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인간의 참된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새 싹

차승철

씻어낸듯 말쑥하니 개인 가을날씨였다.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수평선쪽에서 솔솔 불어오는 실바람이 들크무레한 해초의 향취를 풍겨 오는 도래굽이를 따라 천천히 걸으시었다. 공화국이 창건된 격동적인 이 가을에 강원도안의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다가 도안에서도 외진 어촌인 여기 장포바다가에 들리신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진하와 장포수산합작사 위원장 진순보가 따라걸었다.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도래굽이의 너럭바위끝에 이르시자 흰 띠를 늘어놓은것 같은 백사장과 푸른 청솔밭이 손에 잡힐듯 선명하게 마주보이는 송백반도며 주변에 쳐놓은 덩장그물들 그리고 삼태기안처럼 후미진곳에 양지바르게 들어앉은 장포마을을 차례로 둘러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싱그러운 바다바람에 가슴을 한껏 펴시었다. 젊으신 기개와 열정이 넘쳐나는 얼굴에는 무변광대한 바다의 풍치를 즐기시는듯 웃음이 환히 피어났다.

그 모습을 우러르는 리진하도 가슴이 탁 트이며 기쁨으로 마음이 둥 떠올랐다.

오늘 이른아침부터 장군님께서 현지도의 먼길을 이어오신 공장과 농촌들마다에는 청사 한채, 사무실 한칸 온전하게 없어 편히 앉으실 자리 하나 권해올리지 못한것이 더없이 죄스럽던 리진하에게는 초록색 바다도, 반사광이 아롱진 바위들도, 촛추듯 파도를 넘나드는 갈매기들도 그이를 위해 정답게 안겨오는듯하여 한결 마음이 안정되는것이였다.

이윽고 장군님께서는 도래굽이를 떠나 장포마을로 향하는 자드락길에 오르시었다.

30 여호 남짓한 남향반이마을이 그림처럼 한눈에 굽어보이는 바다가언덕에 이르셨을 때였다.

방금 마을의 선창을 벗어저나온 목선 한척이 갑자주빚 돛폭에 바람을 불룩하니 받아안고 장군님께서 서계시는 언덕앞을 미끄러져 지나갔다.

기관선이라고는 한척도 없는 장포마을에서 제일 크다고 할 13 메터 길이의 범선이였는데 이물과 고물에 솟은 쌍돛대끝에는 해당화꽃장식을 하고 돛폭을 조종하는 용천줄에는 붉고 푸른 오색테프가 실실이 드리워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치장과 행색이 류다른 배를 눈여겨 보시다가 곁에 서있는 수산합작사 위원장에게 물으시었다.

《무슨 배입니까?》

체소한 몸집의 진순보는 짧게 깎은 총굽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어쭙은 낮빛을 지었다.

《잔치배입니다. 저 건너 송백리 총각이 우리 마을 처녀에게 장가를 드는데 지금 색시를 데려가는 모양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무슨 일들을 합니까?》

《신랑은 송백수산합작사의 어부이고 신부는 우리 합작사의 해녀반 처녀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밝은 웃음을 얼굴가득히 띠우시며 배와 진순보를 번갈아 바라보시었다.

《그러니 건너편 수산합작사와 서로 사돈지간이 된셈입니다. 이런 경사가 있는줄 모르고 왔는데 내가 아주 맞바로 왔습니다.》

기뻐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에 마음이 즐거워진 리진하는 결혼식배를 눈여겨 살피보았다.

왕골돛자리를 두툼하게 깐 배의 한복판에는 신랑 신부가 나란히 앉았고 곁에는 후행인듯한 사람들이 두루마기와 양복차림으로 둘러앉았다.

번화한 도시에서 나서 자란 리진하는 하늘소와 가마를 타고 시집장가가가는것은 보아왔지만 돛배를 타고 잔치를 하는것은 난생처음 구경하는터여서 이채로운 그 정경이 류다른 감흥과 정서를 자아냈다.

거치는것없이 탁 트인 드넓은 바다길을 따라 새 가정의 탄생을 알리는 신랑신부가 행복해보이였다.

허나 장군님께서는 거치른 물결우에 돛폭을 날리며 룡팍이 차츰 희미해지는 배를 진중한 안색으로 바라시었다.

중세기어업의 유물과 같은 낡고 초라한 돛배를 타고가는 신랑신부가 둘 다 새로 생긴 수산합작사 청년들이라는데 마음이 쓰이시었다.

《사철 바다에 떠다니던 사람들이 일생 한번밖에 없는 잔치날까지 배를 타고 성례를 치르는것이 섭섭해보입니다. 신부도 합작사의 신부이고 신랑도 합작사의 신랑인데 만사람이 다 보도록 자동차에 척 태워보내면 얼마나 멋이 있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창설된 수산합작사를 새로운 인간탄생의 모체로 보시었다. 제

혼자의 생계만을 근근히 이어오며 제나름으로 살아 오던 령세어민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경영의 주인으로 된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몸소 심어가꾸시는 그 새싹이 류념되시여 겹쌓인 중요한 사업들을 뒤로 미루시고 외진 이 바다가마울로 찾아온 결음이시였다.

하기에 수산합작사와 더불어 새 생활의 첫 자국을 내딛는 신랑신부를 그들이 지나온 종래의 한산한 배길과는 다른 탄탄하고 광휘로운 길로 높이 내세워 이끌어주고싶은 마음이시였다.

의외로운 말씀에 리진하가 어리둥절해하는 속에 진순보가 송구스레 더듬거리였다.

《다 제 불찰입니다. 오늘 시집을 가는 저 들복이는 철이 들자부터 노상 물오리처럼 바다물에 몸을 잠그고 입벌이를 해오다나니 기차나 자동차를 타보기는 고사하고 구경조차 제대로 못하고 자란 애입니다. 제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도 있고 해서 군자동차사업소의 차를 한대 얻어 잔치에 쓰려했는데 그만…》

장군님께서서는 심중하신 표정으로 진순보의 말을 듣고나시더니 나직이 물으시였다.

《그래 무엇이 걸려 차를 얻지 못했습니까?》

진순보는 답변을 잇기가 어려운데 고개를 수긏하고 눈길을 허둥거리다가 거듭 물으셔서야 머리를 천천히 들었다.

《우리 마을에서 신랑네가 사는 송백리까지는 바다로 곧추 가면 얼마 안되지만 물으로 돌아가면 퍼그나 먼길입니다. 잔치례식을 갖추며 거기까지 왕복하자면 자동차를 온종일 써야겠는데 그 비용을 당장 물수가 없었습니다. 그닥 비싼 값은 아니었는데두 시제 손에 쥐고 내밀게 없어 이전에 하던대로 신부를 배에 태워보냈습니다.》

진순보는 수산합작사의 어려운 살림형편을 어쩔수없이 터놓게 된것으로 하여 송구함을 금할수 없었다.

진순보에게서 눈길을 돌리신 장군님께서서는 리진하에게 도내 수산합작사들의 운영정형을 물으시였다.

리진하는 자기가 고충으로 여겨오는바를 기탄없이 말씀드리였다.

《…우선 곤란한것은 수산합작사들의 물질적토대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사원들의 초보적인 생활조건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것입니다. 국영공장이나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국가로부터 식량과 생활비를 정상적으로 받고있고 농민들 역시 분여받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걱정없이 살아가고있지만 수산합작사 어부들은 안정된 수입이 없다보니 그렇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합작사 사원들의 거의 모두가 개인어업때부터 짊어지고 넘어온 빚을 아직 갚지 못해서 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장군님께서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물으시자 리진하는 채 토설하지 못한 억제된 감정이 느껴지는 진순보의 불깃한 얼굴을 스쳐보고나서 얼마전에 자기가 목격한 하나의 사실을 말씀드리였다.

…약 달포전의 어느날, 리진하는 이곳 장포수산합작사에 들어서다가 물역에 닿아있는 목선결에서 어떤 사나이와 옥신각신하는 진순보를 보았다. 언성을 돌군 말다툼이 꽤나 오래 계속된듯 진순보는 목이 짹 쉬였는데 도인민위원장이 결에 나타났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이 마주선 세루양복쟁이에게 샅대질을 해댔다.

《…거기 눈엔 돈만 보이고 세상이 달라진건 보이지 않소? 여긴 당신들이 꿈같이썸속을 차리며 날치는 흥정판이 아니라 수산합작사란 말이요. 생눈을 빼먹어도 분수가 있지 배를 내놓으라구?! 우린 이따위 문서장같은건 알지도 못하고. 당신의 그 두터운 낫가죽을 벗겨놓기전에 냉큼 물러가는데 좋을게요.》

진순보는 손에 쥐고있던 종이장을 양복쟁이에게 뿌려던지였다. 발치에 떨어진 문서장을 황급히 주어진 양복쟁이는 자기에게 곱지 않게 쏠린 도인민위원장일행의 눈길에서 목적을 이루기엔 형세가 글렀다고 직감한듯 간다온다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였다.

심상치 않은 기미를 느낀 리진하는 진순보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은 누구요?》

《읍에 있는 포목상점 주인입니다. 말이 포목상이지 은밀히 빚놓이를 전문하는 고리대금업자이지요. 우리 해너반원 몇사람이 합작사에 들어오기전에 저 사람한테 돈을 꾸어쓴 모양인데 아직 물어주지 못한 그 빚에 리자를 덧붙여서 해너들이 합작사에 들어놓은 배를 내놓으라는게 아닙니까. 계약서라는 문서장까지 들고와서 영통을 빼가겠다는 수작이지요. 더러운놈같으니. 뺨이 뒤틀리는걸 봐서는 그놈의 정갱이를 꺾어놓았어야 하는건데…음!》

진순보는 자기를 포함한 합작사의 누구나가 다남의 빚을 짊어지고있는데다 고리대금업자까지 나타나 배를 우려내려 하니 악이 치받친듯 모두숨을 쉬며 아래턱을 후들거리였다. 리진하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헐썩거리는 진순보에게 한마디 하였다.

《고리대금업자의 행동은 패썹하기 그지없지만 남의 돈은 어디까지나 남의 돈이니만큼 사리와 경우에 맞게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렇게 씹싸우듯해서야 되겠소? 다른 사람도 아닌 수산합작사 위원장인데 우락부락한 그 성미를 고쳐야겠소.》…

진순보는 거칠었던 제 행동을 장군님께 사실대로 전해올리는 리진하의 말에 면구해진 모양 유촉진 물가로 슬며시 물러갔다. 파도에 합썸 젖은 모래불에 방향없는 발자국을 찍으며 서성거리는 그의 적

동색 불은 힘살이 풀린듯 늘어져보였고 언덕이마릴의 노르끼레한 눈은 초점없이 허둥거리었다.

장군님께서는 먼발치에 외로이 서있는 진순보를 일별하시고나서 혼자소리로 뇌이시였다.

《수산합작사가 선 오늘까지도 빛단련을 받는단 말이지.》

길지 않은 리진하의 말을 통해서도 장군님께서는 고리대금업자가 나타났을 때의 광경이며 당시 진순보의 감정까지도 충분히 련상되시는듯 근엄한 기색이시였다.

《그러니 도인민위원장동무는 좀 과격하게 나온 수산합작사 위원장만 그르다 나무라고 고리대금업자에게 말 한마디 안했다는거겠소? 배를 내놓으라는 속심은 수산합작사를 허술히 보며 마구 뜯어먹자는건데 어째서 된타격을 안기지 못했소? 집단경리의 주인인 새 인간의 존엄이 희롱당하는걸 보고도 왜 잠자코 있었나 말입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으로서의 립장을 바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장군님의 책망은 리진하의 가슴을 찌릿하게 하며 진순보들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옹호의 감정을 절감케 하였다. 그러면서도 리진하는 새로운 인간의 존엄이란 뜻깊은 말씀의 진수를 이 한순간에 다는 체득하지 못한채 머리를 떨구고 서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먼 수평선쪽의 어느 한 공간을 바라보시다가 리진하에게 다시 말씀을 건네시였다.

《합작사형편이 이렇게까지 어려운줄은 몰랐소. 왜 이렇습니까? 이곳 장포수산합작사는 지난 여름에 고등어를 많이 잡지 않았소.》

조용한 음성이였으나 가늘게 좁혀진 눈에서는 의혹의 빛이 뿜기시였다.

리진하는 이 시각 장군님께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보고드려야 한다는 리성의 충동으로 허리를 곧추 폈다.

《우리 도안에 있는 18개의 수산합작사들에서는 여름에 만여톤의 고등어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모리간상배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소비조합과 국가도매소에 넘겨주었는데 판매한 대상기관과 수요자들이 긴장한 자금사정으로 하여 여러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외상으로 가져간 대금 2천만원을 청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수산합작사들의 운영과 재정활동이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엇친데 덮치는격으로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합작사앞에 맞다든 또하나의 난관을 보고받으시자 두손을 허리에 짚으시고 해변가를 천천히 건너시였다.

모래불을 어리광부리듯 훑는 조용한 해조음이 들려올뿐 침묵이 흐르는 속에 장군님께서는 수산합작사 잔교에 이르시였다.

잔교라야 바다쪽으로 나가며 소나무말뚝을 몇개 박고 두툼한 널을 등성등성 건너지른 나무다리였다.

장군님께서는 골란냄새와 송진내가 알싸하게 풍기는 잔교머리에 서시여 통털어 서너칸 되나마나한 공동작업실이며 가마니 짙을 둘러막은 물고기가공장 그리고 모래불에 펴놓은 낚은 그물 등을 둘러보시였다.

무은지 겨우 한해밖에 안되는 수산합작사여서 맨주먹만 가지고 갓 살림을 편 집안처럼 그 무엇 하나 온전한게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초라하고 어수선했던 정경을 보여드리게 된것으로 하여 몸둘바를 몰라하는 진순보에게 물으시였다.

《수산합작사 사원이 몇명입니까?》

《어로반과 해너반, 가공반까지 모두 합쳐서 선세명입니다.》

《적지 않은 식솔이요. 배는 몇척이나 가지고있소?》

《작은 목선 세척이 있습니다.》

《식구에 비해 배가 적구만. 그것조차도 한척은 빛값으로 내놓으라 한다니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겠소.》

웃음을 띠우고 하시는 무릅없는 말씀에 진순보는 어려움을 잊은듯하였다.

《빼앗기다니요. 뭇번이나 한 일입니까? 빚쟁이가 다시는 우리앞에 걸음을 못하도록 앞질러 잡도리를 하렵니다.》

왈작 떠드는 녀자들의 청맑은 목소리가 수면을 타고 들려오더니 노를 젓는 빼거덕소리와 함께 해너반의 목선이 잔교에 닿았다.

거의가 젊은 나이인 녀인들은 먼발치에서도 장군님을 알아본듯 앞다투어 잔교에 올라서더니 구울듯이 달려왔다.

장군님께서는 한손을 들어 답례하시며 그들에게 마주 나가시자 나이가 그중 들어보이는 해너반장과 마주서시였다.

《지금은 가을철인데 물이 차지 않습니까?》

바다물에 절어 얼굴과 손발이 발갛한 녀인은 불덩어리처럼 새빨강게 달아오른 낮으로 눈을 살쾅이 내려깔았다.

《일없습니다. 아침녘에는 물이 좀 선득선득하지만 해가 퍼지면 여름바다처럼 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손수 바다물에 손끝을 잠그어 물은도를 가늠해보시더니 거의나가 홀웃바람인 해너들의 옷차림을 가슴아픈 눈길로 더듬어보시였다.

《아직은 물이 그닥 차지 않지만 물일을 하고나면 몸이 얼어들텐데 우린 아직 동무들에게 따뜻한 내복 한가지 해입히지 못했구만.》

장군님께서는 가까이에서 서있는 애어린 해너의 손을 잡으시더니 파릿하니 돋은 소름발을 녹여주시려는듯 따뜻이 어루만져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잔교쪽으로 나가시여 배안을 굽어보시였다.

곤때 한조름 없이 하얗게 닦아낸 배장에는 또아리처럼 뱀시있게 사려놓은 바줄이며 띄움박, 그물구럭, 섭갈구리 등속의 어구들이 규모있게 간집혀있었고 돛대밑의 어창에는 물기가 번들거리는 전복과 해삼이 잠긴 참대광주리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장군님께서 아직 살아서 꿈지럭거리는 싱싱한 전복이며 해삼들을 진귀한 보물 다루듯 하나하나 매만져보시다가 곁에 선 해너반장에게 물으시었다.

《오늘 출가한 신부도 이렇게 해삼과 전복을 따들었겠소?》

해너들에 대한 혈육과도 같은 뜨거운 관심과 은정에 녀인들모두가 눈굽을 적시었다.

《우리반에 있었습시다. 홀어머니와 단둘이서 늘 외롭게 살아 그런지 합작사를 제집처럼 여기던 애입니다. 누구하고나 다 한식구처럼 지냈지만 저 옥림이하고는 쌍둥이처럼 늘 붙어다녔습시다. 글썽 잔치하기 며칠전엔 서로 떨어지는게 싫다구 둘이 부둥켜안고 막 울었다지 않습니까.》

장군님께서 애뜻한 정이 스민 반장녀인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나시더니 옥림이라고 불리운 동그란 얼굴이 꽤나 오달져보이는 처녀에게 시선을 주시었다.

《그렇게 친한 동무가 시집을 가는 날까지도 바다에 나갔었던 말이요? 곁에 있으면서 동무라도 해줄 것이지.》

장군님의 친근하신 말씀에 옥림이는 굳어졌던 몸이 풀린듯 발치를 굽어보던 머리를 쳐들었다.

《오늘은 물일을 나가지 않고 떨어지려 했었습시다. 그러자 들복이는 <내 잔치때문에 하는 일없이 공날을 보내지 말구 전복 한개라도 더 따서 빗쟁이의 돈을 물어주어라. 그래야 우리 배를 빼앗겠다는 소릴 더는 못할게 아니니. 합작사를 어지럽히는 더러운 발자국이 배머리에 더는 찍히지 못하게 해주는것보다 더 기쁠게 없겠어.》라고 말했습시다.》

처녀는 들복이에 대한 사무쳐오르는 정으로 억해진듯 젖어나오는 말끝을 여물구지 못하고 입술을 떨었다.

장군님께서 시집을 가면서도 아직 터전이 굳건치 못한 합작사를 걱정하며 앞날의 번성을 기원했을 들복이의 착한 모습을 그려보시었다.

빠가 굳기전부터 늙은 홀어머니와 제 입벌이를 위해 더운 날, 추운 날 가림없이 물속에 몸을 잠그고 살아왔다는 처녀, 외진 이 어촌에서도 외따른 물속에만 홀로 나들었다니 외로움과 고생인들 얼마나 겪었을것이며 사람의 정 또한 얼마나 그리웠으랴.

그러던 들복이기에 제 하나뿐이 아닌 서로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공동로동의 긍지와 희열을 누구보다 뜨거이 느꼈을것이며 그런 속에서 잃었던 인정도 찾았으리라. 하기에 몸은 비록 떠나면서도

리없이 순결한 기원과 정을 남기고간 들복이의 마음이 더없이 신선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향기로 풍겨드시었다.

장군님께서 잔치배가 사라진 송백리쪽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나서 해너들에게 시선을 돌리시었다.

《그러니 이렇게 애써 잡아온 생산물에서 나오는 수입은 거의나가 빚을 갚는데 들어가겠구만. 파는 건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팝니까?》

해너들이 주뭇거리며 입을 열지 못하자 진순보가 대답올리었다.

《우리 동무들이 직접 시장에 가지고 나갑니다. 원래는 소비조합에 넘겨주어야겠지만 고등어값도 아직 받지 못한 거기에 주기는 곤란해서 장마당의 어물전에다 맞돈을 받고 팝니다.》

《공동경영인 수산합작사의 생산물을 개인장사군들에게 넘겨준단 말이지요. 놀라운 일이구만.》

장군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였으나 얼굴엔 의연 온화한 표정을 띠우신채 해너들을 둘러보시었다.

《어디 동무들의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전복이나 해삼을 장마당에 들고나가 팔아보니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잠잠하였다.

오매에도 그리며 흠모하던 어버이장군님을 뵈옵게 된 감격으로 별처럼 반짝이던 눈들이 뿌연게 흐려지며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집에 눌리운듯 어깨들을 떨구고 서있었다.

무엄하리만치 침울한 분위기를 더는 참아낼수 없는듯 옥림이가 귀밑을 새빨가니 물들이며 침묵을 깨뜨리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심을 먹구 어쩔수 없이 장마당에 나들기는 하지만 그노릇이 죽기보다 싫습시다. 값을 한푼이라도 깎으려고 징그럽게 요사를 떠는 꼴들을 마주할 때면 갇은 멸시를 받으며 뜯기우던 천덕꾸러기때로 다시 돌아간듯 막 억겁습시다. 새 세상이 왔는데두 사람구실을 못하고 돌아다닌다구 남들이 손가락질하는것 같아 얼굴을 들수 없습시다. 그러다가도 합작사에 돌아오면 나쁜 꿈을 꾸다가 깨어난것처럼 숨이 나가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옥림이뿐아니라 해너들모두가 같은 마음이였다.

장군님께서 순결하면서도 열렬하고 참신한 진정이 느껴지는 해너들의 말 한마디한마디를 심중히 듣고나시자 생각깊으신 눈길로 잔교밑의 물속을 들여다보시었다.

풀어헤친 녀인의 머리채같은 소담스런 고무매포기며 천초의 푸른 이파리가 뒤덮인 해초숲을 더듬으시다가 해빛이 곧장 비쳐드는 바위썩에 갓 돌아난 다시마썩에 눈길을 멈추시었다. 두툼한 바다가

끼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새포름히 머리를 쳐든 나실나실한 잎새가 쓰다듬어주고싶도록 귀여우시였다. 아직은 짧고 연약한 애순인 저 싹들은 겨울을 나고 봄이 오면 아지를 치며 길이 넘게 자라 무성한 다시마숲을 이룰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바다밑뿐이 아닌 지상의 모든 만물을 한아름에 안으실듯 넓은 가슴을 쪽 펴시며 주위를 둘러보시였다.

태양은 양털처럼 굽실굽실한 한떨기의 얇은 구름장을 꿰뚫고 푸른 바다와 산발들에 부채살같은 광선을 비치는데 마을뒤산에 피어난 빨간 단풍이 류달리 진한 색깔을 내뽐고있었다.

질게 불타는 그 단풍은 새 생활의 기쁨과 열정으로 차넘치는 해녀들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장군님께서는 갯 망울을 터친 바다의 꽃과도 같은 그들이 활짝 피어나도록 이 세상의 온갖 자양분을 아낌없이 부어주고싶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잔치배가 사라진 바다위에 다시금 시선을 보내시였다. 그 물결위에 지울수 없는 신부의 모습이 어려오시였다. 송백리에도 수산합작사가 있으니 거기에 정을 붙이고 잘살겠지만 희망과 힘이 될 따뜻한 축복의 말씀 한마디 해주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리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마음을 풀고싶으시여 다시 해녀들과 얼굴을 마주하시였다.

《하기 싫은 장마당걸음을 더는 하지 마시오. 빗을 좀 졌다 해서 사람의 존엄이 깎이는 노릇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합작사를 무은것은 나 하나뿐이 아닌 서로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값높은 인간이 되자는것인데 시장출입을 해서야 되겠냐 말입니다. 사람이 뜻을 크게 품으면 천만금도 눈아래 굵어보이기마련입니다. 아직은 어렵게 많겠지만 조금도 주눅이 들거나 못할 걸음을 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며 곳곳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수산합작사들의 살림이 펴일 조치도 곧 취해질것이니 신심을 가지고 일들을 잘하시오.》

장군님께서는 생기가 피어나며 눈을 진주처럼 빛내이는 해녀들의 손을 하나하나 다정스레 잡아주시고나서 마을을 떠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는 해안선을 끼고 북쪽으로 뻗은 길을 달리였다.

리진하는 오늘 장포수산합작사를 위시하여 도안의 여러 공장과 기업소들을 잠시의 휴식도 없이 현지도하신 장군님께서 한시바삐 편히 쉬시도록 해드리고싶어 달리는 차도 퍼그나 더디게 움직이는것 같았다. 서산마루에 걸렸던 얇은 초생달마저 사라지니 사위는 짙은 야음에 뒤덮여서 길옆으로 흘러 지나가는 마을의 불빛들은 칠흑같은 공간에 허공 떠있는것 같았다.

장군님께서서는 피로를 무시려는듯 좌석등받이에 옷몸을 비스듬히 기대시었는데 차창밖으로 물결쳐 지나가는 밤풍경을 내다보시는 표정은 조종하시였다.

이윽고 바다가를 벗어난 차는 가파로운 산짐으로 뻗은 계곡길을 지나 도소재지의 야경이 지평선에 내려앉은 별무리처럼 멀리 바라보이는 들판에 들어섰다.

장군님께서는 차창에서 고개를 돌리시며 리진하에게 물으시였다.

《도인민위원장동무는 장포리와 어촌들에 지도사업을 자주 나간것 같은데 어떻게 되여 그곳 수산합작사들의 형편이 펴이지 못하오?》

《우리가 구실을 온전히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 책임이 큼니다.》

《그런 사죄나 반자는게 아니요. 이젠 갯 움터난 협동경리의 새 싹을 제대로 키워내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라 할수 있소. 주저하거나 에두를것 없이 자기 견해를 터놓고 말해보시오.》

심중하면서도 고무가 담긴 말씀에 리진하는 일순 위축되였던 마음을 가다듬었다.

《사실 저는 경제법칙의 객관적성격으로 보아 집단적공동경리형태의 시초인 합작사가 경영에서 난관을 겪는것은 피치못할 사정이라 생각해왔습니다. 례하면 고등어대금을 아직 받지 못하는것도 긴장한 자금형편으로 화폐의 류통이 원활치 못한 실정과 관련된것이라 여기고 아직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도인민위원장동무는 상업학교를 졸업했다지요?》

《예, 강릉상업학교 금융과를 나왔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제김에 낮이 달아오르는 리진하의 마음을 농쳐주시려 부드럽게 이으시였다.

《정권기관일군이 경제법칙을 가지고있는것은 좋은 일ियो. 그렇다니 얘기 좀 합시다. 경제법칙이 일정한 사회경제적조건에서는 객관적성격을 띠는것만은 사실ियो. 하지만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우리 제도에서는 경제법칙이 사람들에게 제것으로 인식되여 리용된다는것을 알아야 하오. 그러니만치 경제법칙의 객관성을 론하기에 앞서 경제관리의 직접적담당자인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하오. 어땠소, 내말이?》

기란없는 론의를 바라시는 장군님의 말씀에 리진하는 수긏했던 머리를 들었다.

《말씀을 들으니 깨우쳐지는게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산합작사 어부들만은 문제가 좀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마끔 자기본위로 입벌이를 하며 살아오던 지난날의 타성이 있어서인지 그들에게는 공동경리를 목적지향성있게 운영해나가려는 열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결함이 있다 치고 좋다고 본것은 없소? 비록 사소한 점이라도.》

《건국절의에 불타는 국영기업소의 노동자들에 비할 때 너무 뒤떨어졌다는 실망이 들뿐입니다. 그러다나니 그들에 대한 기대가 가지 않고 수산합작사는 앞으로 일정한 시기에 가서는 국영수산에 인입될 잠정적인 경리형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수산합작사 사람들을 아주 신통치 않게 보아왔구만. 그러니 필요한만큼 운영하다가 그만둘거라고 생각했다는거겠소?》

리진하는 장군님의 진중하신 반문에 대답올릴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차는 어느덧 도소재지의 시가에 들어서고있었다.

장군님께서 리진하가 송도원 가까이에 미리 준비시켜놓았던 숙소로 안내하려 하였으나 사양하시며 도인민위원회 청사앞에서 차를 내리시었다.

청사라야 일제때 부청이 들어있었던 크지 않은 2층집으로서 멋없이 경충한 건물형태부터가 초라하고 침침하였다. 원래 이 거리는 바다를 낀 어항도시였는데 작년여름 행정구역이 변동되면서 도소재지로 되었다. 그러다나니 도인민위원회 청사로 정할만한 온전한 건물 한채 없어 바다 가까운 장덕산 기슭에 위치한 이 낡은 부청자리를 립시로 쓰고있었다.

장군님께서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나무계단을 따라 2층에 오르시여 리진하의 사무실에 들어서시었다. 그이께서는 천정과 창턱의 미장장식이 조잡하고 고풍의 랑수책상과 가죽소파가 비좁게 놓인 넓지 않은 방을 둘러보시고나서 리진하에게 물으시었다.

《청사에 방이 몇칸 안되는것 같은데 모자라는 사무실은 어디에 정했습니까?》

《일제때 헌병대, 어업조합, 상회 등이 있던 적산 건물들의 방을 몇개씩 사용하고있습니다.》

《부서들이 모두 흩어져있으니 불편이 많겠소. 거기에서 본청사인 이 집도 펍 낡았구만. 음달쪽이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하겠소.》

순간 리진하는 장군님께서 걸터앉으신 소파에 눈길이 미치였다. 등받이에 씌운 융단이 닳을대로 닳아 속실이 드러나보이는 소파에 뒤이어 비물이 새여 얼룩이 진 천정이며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고삭은 마루바닥이 눈아프게 비껴들었다.

오늘아침도 그랬고 밤도 깊은 이때에 로고어린 현지지도의 먼길을 다녀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이런 루추한 자리에 모신것이 더없이 죄스러웠다.

리진하는 장군님께서 물으시는데로 흩어져있는 부서들의 사업실정을 대답올리고나서 이미 계획하고있는바를 말씀드리었다.

《도인민위원회 청사를 새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시내중심부의 덕성산 양지쪽에 부지를 정했는데 위

치와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인민정권기관의 권위로 보나 도소재지의 면모를 갖추는데서나 손색이 없게 크고 번듯하게 지으려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심중하신 안색으로 잠시 침묵하고 계시더니 무겁게 말씀하시었다.

《새로 창건된 우리 공화국의 정치적기초인 정권기관의 권위를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자면 집을 한채 짓거나 무슨 사업을 조직해도 인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그래 청사를 건설할 준비는 되었소?》

《기본적으로 되었습니다. 도안의 인민들이 나라의 세납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어 작년과 금년의 국가예산집행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구 지방예산도 풀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애국적인 기업가, 상인들이 스스로 헌납한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 돈의 일부로 청사건설자금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로력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오?》

《도내 인민들에게 호소하며 두루 동향을 알아보니 군중적인 운동으로 동원되겠다는 열의가 높습니다. 도인민위원회뿐아니라 청사가 불비한 군들도 인민위원회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리진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계획을 동감해주시는것으로 느끼고 활기에 넘친 목소리로 미리 세워두었던 건설공사전망을 자세히 말씀드리었다.

그러는동안 벽시계가 열한시를 알리었다. 그제서야 리진하는 소스라쳐 놀라며 장군님을 숙소로 정한 송도원별장으로 서둘러 모시려 하였다.

하나 장군님께서서는 창문가로 가시여 파도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바다쪽을 바라보시다가 진하에게 이르시었다.

《지금 곧 도재정부장과 소비조합위원장, 수산부장동무를 불러주시요.》

리진하가 선뜻 응하지 못하고 난감스레 머뭇거리자 그이께서는 정원등의 은은한 광선이 달빛처럼 흐르는 밝을 가리키시었다.

《보시오. 밤의 풍치가 얼마나 좋소. 바다를 앞에 안고있으니 더욱 시원하고 상쾌하오. 내가 쉬지 않아 걱정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밤을 잠을 자며 지내버리긴 정말 아깝구만. 말동무도 하고 청사문제와 관련하여 토의할것도 있어 그러니 빨리 불러주소.》

얼마후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모여오자 장군님께서서는 정말 말동무나 하시려는데 모두 가까이에 편안히 둘러앉도록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의논조로 말씀을 시작하시었다.

《오늘 강원도안의 어촌 몇곳을 돌아보니 새로 생긴 수산합작사들이 곤난을 겪고있습니다. 특히 가슴아픈것은 합작사원들의 거의 모두가 개인어업때부터 굶어지고 넘어온 빚을 아직 갚지 못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나니 장포리 같은데서는 빗값을 돈을 마련하겠다고 수산합작사의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파는 엄청난 현상까지 나타나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수산합작사가 못내 걱정되시여 이자리를 마련하셨다고 생각하니 리진하는 송구함을 금할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긴장해진 리진하의 얼굴을 스쳐보시고나서 누구에게라없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수산합작사를 조직한것은 령세어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례지도록 하자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보다는 령세어민들로 하여금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협동경리의 첫걸음인 공동노동의 우월성을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발전된 먼 앞날의 사회까지도 당당히 떠메고나갈 새 인간으로 키우자는것입니다. 한데 합작사가 생긴지 한해가 되어오는 오늘까지도 사원들의 아픈 상처를 가져주지 못하고있습니다. 한데도 일부 일꾼들은 합작사원들의 운명과 관계되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강건너 불보듯 관조적으로 대하고있으니 이게 어디 됐습니까.》

엄하시다기보다 애바른 정이 스민 장군님의 음성은 리진하의 가슴을 아프게 울리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에 대한 질책으로 통감되였다.

장군님께서 장포리에서 만나시던 진순보와 해녀들에 대해 거듭 세세히 이야기해주시고나서 모두를 둘러보시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수산합작사동무들이 개인어업 때 지고 넘어온 빚을 털어버리도록 도와주어야겠습니다. 그러자면 조속한 대책을 취해야겠는데 생각되는 안이 있으면 내놓아보시오.》

기대가 어린 친근한 말씀에 도소비조합위원장이 걸쭉한 얼굴을 쳐들었다.

《장군님의 말씀을 접하고보니 가책되는바가 큼니다. 우리 소비조합에서 넘겨받아 외상으로 처리한 수산합작사의 고등어값을 속히 수금하여 청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을 받아야 할 기관과 단위들에 지불을 독촉하는 한편 한꺼번에 물기 어려워하는 경우엔 월부제의 방법으로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야 어느 하가에 그 많은 돈을 다 받겠소.》

씨원치 못해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에 리진하는 더는 그냥 앉아있을수 없어 자기로서는 최종방도라 할 몇가지 의향을 내놓았다.

하나 장군님께서 그것도 신통치 않으신듯 고개를 가로 저으시더니 리진하뿐이 아닌 모두에게 말씀하시였다.

《도내 인민들이 들끓는 건국열의로 국가예산집행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고 따라서 도안의 지방예

산도 풀렸다는데 그렇게도 방도가 서지 않습니까?》

장군님께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리진하를 다시 스쳐보시고나서 엄숙한 표정을 지어시였다.

《고등어대금을 아직 청산해주지 못한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동무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도인민위원장동무는 수산합작사 어부들이 개인경리의 타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들은 자동차를 부릴 돈이 없어 낚은 고기배를 타고 시집을 가고 빗값을 돈을 구하려 애쓰면서도 고등어값을 독촉하거나 불평을 부리지도 않았소. 인민정권이 있는 한 그것을 곧 받아줄것이고 나라의 정책대로 수산합작사를 성실히 지켜나가느라 좋은 앞날이 열릴것이라 굳게 믿었기때문입니다. 이전날의 어부들에게서는 찾아볼수 없던 의롭고 도량깊은 인간미를 보지 못하고 그들을 경원시하는 원인은 뭘니까? 문제는 돈 2천만원보다도 그들속에서 움터나는 참된 인간탄생의 맹아를 제때에 가려보며 소중하게 여길줄 모르는 동무들의 그릇된 관점에 걸렸습니다.》

숙연한 침묵이 깃든 방안에 공명을 일으키며 울리는 말씀 한마디한마디는 리진하의 가슴에 마쳐들며 고리대금업자와 맞서 분노를 터치던 진순보며 빗값이를 하려 어쩔수 없이 장마당출입을 한다는 해녀들의 애절한 호소가 가슴을 후려치는듯하였다.

장군님께서 어떤 책망도 각오한듯한 리진하와 일꾼들을 더듬어보시고나서 준절하게 이으시였다.

《인민들이 바라고 아파하는바를 모르고 그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지도를 하여서는 인민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청사나 번듯하게 짓고 들어앉아있으면 일이 저절로 잘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의 권위를 높이는 문제는 인민들을 높이 내세우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라면 비록 작은것이라 해도 가장 큰것으로 보며 제때에 풀어줄때만 해결될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도재정부장에게서 받아드신 지방예산문건을 한참동안 굽어보시더니 어떤 결심을 내리신듯 고개를 드시였다.

《내 생각에는 청사건설에 넣으려던 자금을 우선 선대하여 수산합작사의 고등어대금을 물어주으면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고등어값이 수금되면 그것과 나머지돈으로 학교나 병원 같은것을 짓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는 불편한대로 임시 보수하여 쓰다가 차후에 짓도록 합시다.》

어느 누구도 전혀 생각할수 없었던 가르치심이였다. 숙연한 감정에 휩싸인 좌중을 돌아보고나신 장군님께서 계속하시였다.

《이 재정예산은 우리의 로동자와 농민, 상공인들이 새 조국 건설에 기여하자고 마련한것이니만큼

그들의 애국충정을 옹계 받아들이는 립장에 서야 합니다. 아마 도안의 인민들은 이 돈으로 청사를 짓는것보다 수산합작사의 번성과 학교나 병원을 세우는데 썼다면 몇갑절 더 기뻐할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인민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정을 담은 친근하신 말씀에 리진하와 모두는 가슴벅찬 감동과 경모의 정에 휩싸이였다. 향방을 모르는 오리무중속에서 헤매이다가 비로소 갈길을 찾은듯 그늘없이 환한 얼굴들이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심려가 채 가셔지지 않은 무거운 어조로 계속하시였다.

《돈 2 천만원이 큰 문제 아닙니다. 그것은 웅당 벌써 물어주었어야 할 대금입니다. 중요한것은 수산합작사 사원들의 살림이 아직 꺾이지 못한것을 착취를 당하던 지난날의 흔적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이 짓밟히던 낡은 사회에서 입은 상처로 보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에게 집단경영의 주인으로 등장한 오늘의 새 삶이 개인경영리보다 비할바없이 우월하고 존귀롭다는 참된 인생의 진리를 안겨주어야 합니다.》

간결하고 통속적이면서도 심원한 사상을 명료하게 깨우쳐주시는 장군님의 말씀은 리진하의 녀에 새로운 인식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뒤이어 장군님께서서는 정권기관뿐이 아닌 국영수산사업소와 립산사업소 등 모든 국가기관과 기업소들에서 수산합작사를 물심량면으로 도와줄데 대한 세세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나서 거듭 강조하시였다.

《수산합작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도하며 도와주고 보호하는것은 계속 견지해야 할 조직원칙입니다. 그러니만치 일군들 누구나가 수산합작사를 잘 돌보고 이끌어주며 모든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립장에 서야 합니다.》

시간도 많이 흘러 자정이 훨씬 기울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고 흥분된 마음으로 청사를 나서는 일군들을 트랙까지 배래워주시였다. 모두가 헤어져가고 사위가 조용해졌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리진하를 가까이로 부르시였다.

《장포수산합작사 위원장동무의 말이 저녁마다 밤고기잡이를 나간다면데 이맘때에도 바다에 나가있을가?》

낮뿐아니라 밤에도 바다에서 주낙질을 한다던 진순보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였다.

《밤고기잡이도 자정이전까지만 한답니다. 아마 그들도 지금쯤은 집에서 단잠이 들었을겁니다.》

물으심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 간청의 뜻이 애라게 스민 리진하의 어조에는 장군님께서 이제 얼마남지 않은 새벽시간이라도 편히 쉬시기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어리어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리진하의 심중을 헤아리신듯 정다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하긴 새벽잠은 꿀보다도 달지.》

그이께서는 성글게 널려있는 불빛들이 잠에 취한듯 뿌잇하니 비쳐오는 거리쪽을 바라보시더니 의외에도 숙소가 아닌 평양으로 올라가실 차비를 하시였다.

감각이 한껏 예민해있던 리진하는 엇어지듯 장군님곁으로 달려갔다.

《장군님! 이러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밤중에 5 백리 밤길을 떠나가시면 저는 우리 도인민들 앞에 죄를 짓습니다.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무시고 가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소매자락을 잡고 울먹이는 리진하의 한팔을 다정히 끼여잡으시더니 차걸을 지나 멀리 않은 바다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싱그러운 해풍을 타고 밤갈매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을 찾는것 같기도 하고 노래소리같기도 한 가냘픈 음향만이 들려올뿐 어둠속에 덮여있는 밤바다를 지켜보시던 그이께서는 조용히 뇌이시였다.

《여기도 장포리 바다와 같구만. 갈매기의 울음소리도, 은근한 파도소리도 똑같소.》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은 리진하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밤의 공간에 랑랑히 울려퍼지는 밤갈매기소리가 장군님을 뒹뒹던 해녀들의 환성으로 증폭되어 들리며 진순보, 들복이, 옥림이들의 얼굴이 마주 오듯 비쳐들었다. 그들의 앞길을 더욱 밝게 띄워주시려 밤을 지새이시고도 그들을 못잊어하시는 하해같은 은정에 목이 메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격렬한 감동의 파도가 고패치는 리진하의 심중을 헤아려 쓰다듬어주시듯 묵묵히 걸음을 옮기시더니 한참후에 말씀하시였다.

《나도 이 바다결을 떠나고싶지 않소.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는구만. 하지만 오늘밤엔 떠나야 하오.》

그이께서는 자식들을 두고온 고향쪽을 바라보는 듯한 아버지의 눈길로 장포리가 있는 남쪽바다를 점도록 지켜보시더니 간청하듯 말씀하시였다.

《나를 대신해서 장포리수산합작사에 다시 한번 내려가주오. 수산합작사가 좋으니 무으라고 한건 나인데 아직 개인어업때의 빚조차 가시여주지 못했으니 누구보다도 내가 면목이 없게 되었소. 그곳 동무들을 만나거들랑 아직 잘 도와주지 못해 안됐다고 사죄를 하고 머지 않아 수산합작사의 살림이 꺾이고 잘살게 될거라고 말해주시오. 나를 돕는 셈치고 꼭 그렇게 해주시오.》

《장군님!》

리진하는 온몸에 뜨겁게 차오르는 격정을 주체 못
해 어깨를 떨며 수은방울처럼 무거운 눈물을 떨구
었다.

이제 새 생활의 첫걸음을 뗌 수산합작사 어부와
해녀들 한사람한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새 인간의
탄생으로 보시고 아직은 연약한 그 새 싹에 온갖
사랑어린 자양분을 부어주시며 키워나가는 우리
장군님! 그렇듯 위대한 인간애로 혁명의 초석을 마

련해나가는 우리 나라는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영원히 무궁번영할것이다.

리진하는 이 하루동안 진순보와 들복이들의 가장
가까운 동지로, 벗으로 된 자기가 여직 자란것보다
훨씬 더 높이 성장한듯 느끼며 평양을 향해 먼 밤
길을 떠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경건히 바래드리었
다.

러명직전의 밤하늘에서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이
그이께서 가시는 앞길에 빛을 뿌리고있었다.

나는 행진곡을 사랑한다

홍성두

우리의 생활에
노래는 많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행진곡

일터의 설참이라
어깨춤 들썩이는 흥겨운 가락도 좋고
하루일 마친 저녁
온 식솔이 모여앉아
취하도록 부르고픈 행복의 노래 많건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행진곡

수령님 모시고 선렬들이 헤쳐온
만리광야의 눈보라소리를 너는 담았다
원썹미제 죽치던 전화의 나날
백병전의 함성을 너는 담았다

멀리 흘러간 병사시절
내 군기앞에 다진 선서의 엄숙함,
한생을 걸어도 못다걸을
그 길이 앞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혁명의 구령으로 높이 울린다 행진곡

아아, 그것 없이는 오늘도,
오늘의 행복한 노래도 있을수 없는
세월을 이어 굽이치는 혁명의 냇이
너의 구절구절에 세차게 퍼덕이나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 멀리 백두밀림에서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썹을 치자며
노래로 이어온 혁명의 길,
끝나지 않은 그 길을 어디에 이어야 함을
내가 알기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당을 따라 천만리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순간도 멈춰서지 말라고 멈춰서지 말라고
이 가슴의 피를 끓여주는 너의 선물이
어느덧 내 심장의 박동으로 되었기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세상에 어지러이 떠도는
한가닥 달콤한 선물에도
붉은기를 쫓버린 배신자의 녀두리엔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신념의 노래로 대답하나니

피끓는 온 심장으로
불타는 온 녀트로
나는 너를 부르며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의 생활에 노래는 많아도
오직 전진으로 부르는 너를
오직 투쟁으로 부르는 너를
오오, 행진곡
나는 너를 사랑한다!

《월탄을 거쳐 오가산을 넘은 다음에는 화평, 흑수, 강계, 성간, 전천, 고인, 청운, 희천, 향산, 구장을 지나 개천에 이르러 거기서 기차를 타고 만경대로 나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중에서-

연속기행

성간에서

성간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 강계를 떠나시어 넘으신 구봉령마루에서부터 시작된다.

천리길로정이 혈맥처럼 뻗어있는 구봉령마루에 올라서면 삼천리금수강산 우리 조국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는 경탄과 함께 이러한 아름다움 이러한 산천을 우리 인민의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비싼 대가를 치르며 걸어온 조선혁명의 간고하고 시련에 찬 로정이 떠오르며 위업과 계승에 대한 뜻깊은 자각이 저절로 갈라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23년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 이 령을 넘어 성간땅을 밟으시었다. 추운 계절이었다. 그때 구봉령의 령길을 장식한것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고향을 버리고 타향으로 가는 류량민들, 배고파 우는 어린것을 안고 추위와 굶주림에 여린 가족들을 이끌며 넘어가던 나라잃은 겨레의 비참한 모습이였다.

그 당시에는 령의 이름도 구봉령이 아니라 산천이 너무도 메마르고 땅이 불에 타는듯하다고 해서 불길령이라고 불렀다. 타는 목을 추길 한모금 물조차 얻기 어려운데다가 또한 넘을 때마다 불길한 일만 기다린다고 하여 불길령이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다, 이 령을 두고는 일본놈들조차도 후끼즈나 도오게(불길한 령)라고 부르며 넘기를 꺼렸다고 한다.

바로 이 령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열두살 어린 나이에 단신으로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넘으시었다. ...

구봉령! 아홉개의 높낮은 산봉우리들로 이루어진 이 나라의 평범한 고개, 허나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김형직선생님께서 오르시였으며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넘으신것으로 하여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조국의 자랑높은 령.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갈피를 번지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던 그날의 모습이 령사의 후사경속으로 우뚝이 떠오른다.

단정히 둘러쓰신 학생모의 채양아래로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빛나는 그 안광, 한쪽어깨에 책보를 메시고 3월의 찬바람에 두루마기자락 날리시며 장자

강을 옆에 끼고 힘차게 걸어가시던 열두살 어린시 우리 수령님...

구봉령의 급한 경사를 내려 성간읍을 향해 달음질치간 이 길은 아버님의 말씀을 받들고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우리 수령님의 그날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길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갔던가. 1920년대 초엽의 이 길은 조선민족의 비참한 운명만이 흘러가던 길, 나라를 찾겠다고 제나름대로의 뜻을 안고 화승대와 창날을 번쩍이며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갔지만 마침내는 전장에 피흘리며 쓰러져 나라를 구원해줄 령도자를 애타게 부르며 숨쳐간 민족수난의 령사가 비껴있는 길이었다.

청운을 담아시고 이 길을 따라 흐르는 장자강은 예나 제나 변함없이 맑고 푸르렀으나 그 푸르름마저도 왜놈에게 빼앗긴 슬픔의 눈물에 젖은것이였다. ...

우리는 그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기신 혁명의 큰뜻을 자욱자욱마다에서 뜨겁게 받아안으며 장자강을 따라 뻗어간 배움의 천리길로정을 걸어갔다. 30리쯤 가니 장자강과 간북천이 합쳐지는 성간읍 어귀였다.

지금은 콩크리트다리가 간북천을 가로질러갔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에 전천장을 보러 령님어오던 장군들과 타향으로 가는 류량민들이 건느던 징검다리가 간북천의 물가에 놓여있었다고 한다. 무채리산지의 원시림속에서 마구 찍어낸 삼송류, 적목, 분비, 홍송 등 고급목재들이 때로 무어져 간북천의 급류를 타고 흘러내렸었다.

1923년 그날의 늦은 저녁...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북천가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 별하거리에 들어서시였을 때 성간땅은 아직도 겨울이였다. 얼어붙은 장자강과 간북천가에서는 아릅드리 원시림의 밑동에 서슬푸른 날을 들이박는 도끼질소리가 우중충한 산발들을 따라 메아리쳐오고있었다.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던 당시에는 이곳이 성간읍이 아니라 강계군 성간면 별하동이였다. 장자강으로 흘러드는 간북천의 가지흐름이 있어 별하동이라 불렀다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도 있었다. 부대기농사가 생계를 이어나갈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그 세월 아무리 애써 농사지어도 흉년만 드는 별한고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는것이다. 나라잃은 민족의 슬픔이 배여있는 지명이었다.

당시 별하러인숙이 있던 이곳에는 왜놈들이 살던 호화로운 주택들과 화전민들의 오막살이들, 처서군들의 동기와집들과 가게방, 객주집들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에게 귀중한 산림자원마저 깡그리 약탈당하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아프게 느끼시며 별하러인숙의 동기와지붕아래서 잠못이루시였다.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던 잇을수 없는 력사의 한밤이었다.

준엄한 겨울이 흘러가고있는 구룡령너머의 먼 북쪽에서는 력사의 새벽길을 걸으시는 아버님의 발자욱소리가 들려오고있었으며 천리길의 절반이 남아있는 먼 남쪽에서는 만경봉을 굽이돌아 흐르는 대동강의 유정한 물소리가 울려오는 그밤...

아직도 멀고먼 로정이 위대한 수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한밤, 별하러인숙의 작은 방에는 동두바위를 스쳐 흐르는 간북천의 물소리 또한 높이 올렸을것이다...

동두바위전설

별하마을에서 간북천을 거쳐 북쪽을 바라보면 두개의 바위가 서로 어깨를 결고 솟아 하나의 섬을 연상시키는 풍치좋은 바위가 있다. 그 바위이름을 동두바위라고 한다.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 그러나 사실상 정확한 방위를 따져보면 동쪽이 아니라 북동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다.

한데 어찌하여 동두바위라고 부르는것인가?

이 바위의 이름과 방위간의 차이를 두고 이고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있다.

먼 옛날 랑림산줄기에서 석달열흘 내린 장마비로 하여 큰 홍수가 났을 때 산사태가 있었다고 한다. 그때 어느 산중턱에 뿌리박고있던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홍수에 밀려 떠내려왔다.

물살이 약해져서인지 아니면 더는 떠내려가기가 싫어서였든지 바위는 별하마을을 천메터쯤 남겨두고 물가운데 멈춰섰다. 그때 이 바위가 땅을 굽으며 내려온 흙재기가 그대로 간북천이 되었다.

지각이 없는 바위도 사람처럼 자기가 떠나온곳이 그리웠던지 머리를 랑림산줄기가 있는 동쪽으로 두고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여 이 바위의 이름을 동두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후 동두바위가 이고장에서 손꼽히는 명승지의 하나로 되고 판서팔경에는 없으나 지나가던 길손들

이 며칠씩 묵지 않고서는 차마 발걸음을 떼기 아쉬워하여 《10 일포》라고까지 불렀다는 경치좋은 락의정이 바위우에 생겨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두기로 한다.

랑반들과 돈있는놈들의 음풍영월로 술에 젖고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에 젖은 동두바위의 긴긴 력사와 어느해 여름인가 떼목을 타고 내리다 이 바위에 부딪쳐 죽은 류별공남편을 따라 한 녀인이 간북천의 소에 몸을 던졌다는 그런 이야기는 동두바위의 전설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시기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흔한 이야기이기때문이다.

동두바위의 참다운 전설은 1923 년 3 월로부터 시작된다.

별하마을에는 풍수지리에 도통하여 산머리만 보고도 산줄기를 그려볼수 있다는 한 풍수쟁이가 살고있었다.

동두바위가 틀림없이 랑림산줄기가 있는 동쪽으로 머리를 두었다고 몇번이나 확인한것도 바로 그 풍수쟁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동두바위는 별하마을에서 흐린 날에도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라침판과 같았다.

풍수쟁이에게는 매일 동두바위를 한번씩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다. 이를테면 산천정기를 느끼고 지세를 본다는것이였다. 그는 마치도 이 세상이 동두바위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듯했다.

그런데 어느 하루, 별하러인숙에서 하루밤 묵었던 손님들이 다 떠나간 아침 동두바위에 이른 풍수쟁이는 놀란 눈으로 바위를 바라보며 서있었다. 여느날에는 바위주위를 한바퀴 빙- 돌아보고는 곧 돌아가던 그였다. 그런데 이날은 어찌된 일인지 고로쇠지팡이를 끌며 한참 바라보고 바라보다가는 또 한바퀴 돌고 그리고는 또 바라보며 떠나지 못하는 것이였다. 그 이상한 거동이 마을사람들의 눈을 끌었다.

《아니, 생원님 왜 그러시우?》

마을사람들은 그를 존대해서 생원님이라고 불렀던것이다.

《바위우에 뭐가 있길라도 합니까?》

《아니, 그런게 아닐세.》

《그럼 왜 그러십니까?》

《...》

그러나 풍수쟁이는 대답대신 다시한번 천천히 고로쇠나무지팡이를 똑똑 울리며 바위변두리를 돌기 시작하였다.

마을사람들은 그 모습을 의혹에 차서 지켜보기만 하면서 그의 입에서 무슨 대답이라도 나오기를 기다렸다.

《허- 이상한 일이다. 그럴수가 없는데...》

《뭐가 말입니까?》

《모를 일이야.》

풍수쟁이는 종시 마을사람들에게 대답을 주지 않고 돌아섰다. 그리고는 얼마 가다가 돌아보고 가다가는 다시 돌아보고 하는것이였다. 전에 없던 이상한 거동이였으나 사람들은 도무지 그 영문을 알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풍수쟁이는 자기의 목적에 《1923년 3월 21일》이라는 날짜를 적어두었다. 그러나 그날의 이상한 조짐, 기이한 조화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풍수쟁이의 그 이상한 거동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매일 바위를 몇번씩 돌아보고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아무 말없이 돌아서 가는것이였다.

드디어 마을사람들은 풍수쟁이가 머리가 돌아서 저런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공부를 너무 하면 머리가 돈다고 하던 때였던것이다. 결국 풍수쟁이는 너무도 풍수설을 파고들던 나머지 머리가 돈 사람으로 인정되고말았다.

풍수쟁이가 목적에 이상한 일이 생긴 날짜를 써넣은 때로부터 어언간 14년이 흘러갔다.

1937년 6월초 어느날이였다.

그날 별하마을에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움과 환희에 휩싸이게 하는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가 압록강을 건너 보천보의 왜놈들을 모조리 녹여냈다는 희한한 소식이었다. 일본놈들은 모두 죽거나 줄행랑을 치고 략탈기관들과 그놈들이 살던 집들이 불길에 휩싸였다는것이였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동두바위로 달려올라갔다. 락의정에 올라 멀리 보천보쪽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감격과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 보천보전투가 이미 끝난지 며칠 지난 밤이었으나 그들의 눈에는 동북쪽의 밤하늘을 활활 밝히며 타오르는 그 불길이 보이는듯하였다. 그것은 조국광복의 서광을 알리는 민족재생의 해불이었다.

그때 머리가 돌았다고 마을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아오던 풍수쟁이가 나타났다. 그는 고로쇠나무지팡이로 땅을 치며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내 오늘은 말해야겠네. 내가 본것이 틀리지 않았네. 이 동두바위는 동쪽으로부터 북동쪽으로 머리를 돌렸단말일세.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백두산쪽으로!》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의 말을 듣고 다시보니 바위는 정말 북동쪽으로 머리를 돌고있는것이였다. 언제부터? 어느때부터? 그것은 누구도 알수 없는 일이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수 있단말인가? 바위가 저절로 자리를 옮기다니...

풍수쟁이는 지팡이로 또 한번 땅을 두들기며 소리쳤다.

《왜 바위인들 움직이지 않겠나.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 위인이 계신곳이 백두산인데! 이 바위가 백두산쪽으로 머리를 돌린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일세. 14년전 그날 아침이었지. 난 잘못본줄 알았네. 내 눈이 잘못되었는가 했지. 오늘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었네. 그런데 보천보소식을 들으니 바위가 백두산쪽으로 머리를 돌렸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네! ...

말 못하는 바위까지 그분이 계시는곳으로 머리를 돌렸은즉 우리 민족의 앞날은 환하네.》

동쪽으로 머리를 향하고있던 동두바위가 백두산을 향하여 머리를 돌리고 옮겨앉았다는 전설은 이렇게 생겨났다. ...

이것이 별하마을사람들속에서 전해지고있는 동두바위전설이다.

×

후세사람들에게 길이 전해질 전설을 남으며 누구나 영원히 따라배워야 할 불멸의 자욱을 새기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셨던 《배움의 천리길》, 성간군을 통과한 이 백리길에서 있던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고있다. 오직 력사의 저 멀리로 아득히 가버린 20년대의 세월만이 그 사연을 알수 있을것이다. 허나 아쉽게도 그 세월은 이미 가버렸다. 20년대의 그 세월은 과거의 시간과 함께 다시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것이다. ...하여 우리는 또다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갈피를 번진다. 그러나 그 끝없이 검허하신 필체속에서는 다만 《성간》이라는 두 글자만을 찾아볼수 있을뿐이다.

부지리에서 동산리로 뻗은 백리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의 그날에 무엇을 보시였으며 무엇을 생각하시였으며 무엇을 구상하시였는지 우리는 알수 없다.

그저 오늘의 현시점에서 상상해볼수 있을뿐이다. 그 시절, 위대한 수령님의 걸음걸음을 맞이해주었으며 심중속에 깊이 스며들었던것은 이 나라 력사의 비참하고 눈물로 가득찬 글줄속에서 찾아볼수 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사색속에 비겼을 조선의 미래에 대해서는 오늘의 성간땅에서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

해방후 성간땅은 현대적인 시설과 기술로 장비된 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군으로 일떠섰다. 지난날 처서군들과 화전민들의 오막살이만이 가득했던 별하마을에는 고층건물들이 늘어서고 슬픔에 울며 흐르던 강줄기마다에는 물고기떼가 옥실거리고 중소형발전소들이 의젓하게 들어앉았다. 나라의 발전된 공업지대, 립업지대로서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지닌 군의 그 어디를 가보나 해방전의 모습은 그 자취조차 찾아볼수 없다.

오직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있는것은 수풀처럼 일떠선 고층주력들사이에 깊숙이 파묻힌 별하려인숙뿐이다. 허나 오늘날 성간땅에서 일어난 전변을 두고 말할 때 별하려인숙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인민의 락원으로 별천지로 전변된 별하마을의 새 력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것이 아니라.

하기에 성간사람들은 지난날 가난과 몽매, 고통과 불행만이 지배하던 이고장을 오늘과 같은 락원으로 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현지도사적비에 아로새겨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

사람들이여, 지난날 망국노의 설음안고 령넘어가던 류량민들이 주저앉아 가난에 쪼들리며 화전농사를 짓던 이고장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영원히 잊지 말자.

일찌기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던 그 나날 신음하는 겨레의 참상 가슴아프시여 잠못 이루시던 수령님.

잊을수 없는 첫 현지도의 그날, 너럭바위우에 소박한 점심을 차리시고 마을로인들을 부르시여 피눈물에 젖은 지난날 이야기도 들어주시며 인민이 주인된 좋은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라고 손수 불로주를 부어주시л 때

아, 자애로운 수령님을 우러러 우리 그 얼마나 감격에 목메였던가.

성간땅을 락원으로 꾸려주시려고 수천명의 건설력량을 보내주시여 아담한 문화주력 지어주시고 튼튼한 남새기지와 현대적인 닭공장, 오리공장을 지어주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천리 동해어장의 신선한 물고기와 은물의 과일도 남먼저 보내주시였거니.

정녕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그 사랑속에 변변한 야장간 하나 없는 이고장에 오늘은 현대적인 대기계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 립업기지와 중소형 발전소들이 일떠서고 버림받던 척박한 땅도 옥토별되어 해마다 만풍년 설레는 나라의 튼튼한 후방기지로,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었어라. …》

그렇다! 근 70 년전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며 이고장을 밟으실 때 우리 수령님께서 그려보신것은 광복된 조국의 미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활짝 꽃피난 오늘이 아니었던가.

미래에로 줄기차게 전진하는 조국과 더불어 세월이 흐르면 산천은 변하리라.

허나 무궁한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력사의 자취가 그대로 머물러있는 혁명교양의 전당이 여기 별하마을에도 있나니. 이 집의 수수한 동기와지붕아래서 시간은 흐르지 않으리. 오늘의 이 행복, 이 기쁨이 어떻게 마련된것인가를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며 먼 후날에도 10 대의 어리신 수령님을 맞아들이던 그날의 한모습으로, 주체시대의 년대기우에 영원히 솟아있을것이다.

가사

태양의 꽃 김정일화

한관호

백두의 아침노을 송이마다 어렸는가

2 월의 봄빛이 꽃잎마다 비졌는가

아, 붉게 피는 **김정일화**

천만심장 물들이는 태양의 꽃이어

세상의 아름다움 한데 모여 피였는가

세상의 모든 향기 한데 모여 풍기는가

아, 붉게 피는 **김정일화**

천만심장 물들이는 태양의 꽃이어

만민의 흠모담아 그리도 불타는가

위인의 이름지녀 그리도 빛나는가

아, 붉게 피는 **김정일화**

천만심장 물들이는 태양의 꽃이어

환하신 웃음 영원하시옵기를

(총련) 김정수

수령님
참으로 기뻐합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
해처럼 밝고 밝으신 영상 뵈옵고보니

참으로 참으로 기뻐합니다
경사스러운 4 월의 봄날에
건강하신 모습
눈물속에 뵈옵고보니,

바다 건너 이역땅에서
늘 뵈옵고싶었습니다
조국 멀리 사는 몸이어서
더더욱 그리웠습니다
봄날처럼 환하신 그 영상, 그 웃음

아, 손을 흔들어주시며
결에 세워주시며 지어주시는 그 웃음
나라없는 망국노로
이역에 흩어져나간 겨레의 머리우에
푸른 하늘 펼쳐주신
웃음이옵니다

바람 잘날 없는 오늘에도
이역땅에 휘몰아치는
동풍서풍을 막아주시고
이 세상 가장 궁지높은
해외동포로 키워주신
웃음이옵니다

정녕
이역의 우리 앞길에

힘한 고개 천만이어도
힘을 주시고 승리만 가져다주시는
웃음이옵니다

수령님
수령님 그 웃음은
눈비 오는 발머리
바람부는 건설장
한평생 인민들과 교락을 함께 나누시며
인민들속에서 피우시는
사랑의 웃음이 아니옵니까

멀리 이국땅에서 찾아온
아들딸들을 만나보는것이
더없는 기쁨이라 하시며
한품속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웃음이 아니옵니까

수령님
세월이 흐른대도
천만년 뵈옵고싶습니다
강산이 변한대도
오늘과 같이 뵈옵고싶습니다
환하신 그 영상, 그 웃음을

수령님
우리 겨레 늘 보고싶고
온 세계가 한결같이 보고싶은
그 웃음 영원하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바라옵니다

《파란만장의 인생항로에서 내가 키를 잃지 않고 곳곳이 살고 싸워나갈수 있는것은 오로지 동지들과 인민들이 나를 진심으로 믿고 도와준 덕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중에서-

사랑과 의리의 세계 외 1편

김응하

자신을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남기시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간 선렬들의 명복을 비시며
수령님 한자한자 새겨가신
회고록의 금옥같은 그 글발들은

풍랑사나운 세기를 헤쳐오신
간고한 혁명의 그 길에서
한몸 겪으셔야 했던 시련과
상실의 아픔은 그 얼마였으랴
하나 그 모든것은 잊으신듯

참으로 신세를 많이 진 목사님이라고
잊지 못할 교하의 아주머니
그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일생의 한이라고
눈보라치는 라자구등판에서 만난
마로인을 잊지 못하시겠다고...

망국에 우는 겨레를 안으시고
걸음걸음 피의 강을 건느시며
인민의 락원을 이 땅에 펼쳐주신
수령님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하나 그 모든것은 뒤로 미루시고

평양역에서 받은 돈 3원
첫 동지의 그 정이 큰 힘을 주었다고
한영애의 수고를 잊지 못하시겠다고
김혁, 차광수, 공영... 그들이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큰 일을 했다고...

세월의 안개를 걷으시며

아득한 망각의 세계에서
하나하나 뜨거이 불러내시는
잊지 못할 전사들의 그 이름들
이름조차 모를 평범한 인민의 그 모습들

기나긴 반세기
쌓이고쌓인 사랑을 다 부어주시며
그리운 정을 다 쏟아주시며
그들이 남긴 위훈을
력사의 각광앞에 빛내주시는 수령님이시여

아버이수령님 펼쳐가시는
뜻도 깊고 정도 깊은 회고의 세계
그 세계에는
자신을 위한 자리는 하나도 없고
전사들과 인민을 위한 공간만이
무한대로 펼쳐졌습니다

아, 아버지수령님의 회고록
그것은 인민의 수령만이 지을수 있는
위대한 인민송가입니다
인민의 아버지만이 쓰실수 있는
사랑과 의리의 글발입니다

먼저 간 선렬들의 명복을 비시며
한자한자 새겨가신 회고록
금옥같은 그 글발마다에서
나는 우러러봅니다
충성의 못별들을 빛내주는
위대한 태양의 불멸의 모습을

《이사집은 밥그릇에 숟가락 몇개를 꾸러넣은 어머니의 보통이와 아버지가 메고가는 전대집 하나가 전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중에서-

이사집

텔레비존이며 랭동기...

광복거리 새집으로 옮겨가는

이사집을 꾸리다가

문득 손길을 멈추노라

또하나의 이사집

우리 수령님 회고속에

아프게 남아있는

그 소박한 이사집이 생각나서

만경대고향집을 떠나실 때

어머님의 머리에 이신 보통이에는

밥그릇과 숟가락이 몇개

아버님의 등에는 전대집 하나

림강과 팔도구, 안도와 무송

타향에서 타향으로

새로운 전구로 자리를 옮기실 때도

말파리에는 께짝이 하나

가슴에 품으신

《지원》의 큰뜻이 그리도 무거워

겨레의 기원과 믿음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실리어

민족의 어깨에서

망국의 피나리보짐을 벗겨주시려

결연히 떠나시는 그 길에

가지고 떠나신 짐은

그리도 간소하셨던가

우리 수령님

김형직선생님의 뜻을 다 안으시고

마음의 그 짐을 다 안으시고

백두산에 오르실 때

어깨에는 배낭이 하나

우리 겨레에게 주실

광복의 봄을 안고

백두산에서 내리실 때도

어깨에 지신것은 배낭이 하나

아, 조국을 안고 가시는

위대한분들의 이사집은

언제나 것처럼 작아야 했던가

가벼워야 했던가

혁명일가의 이사집

부피는 등에 한집밖에 안되여도

민족의 커다란 운명이 실려있어

세상 귀중한 재보로

조국은 오늘도 소중히 간직하고있어라

소박한 그 이사집에

오늘의 우리 겹도록 누리는

크나큰 행복이 다 실려있어

우리 마음 감사에 넘쳐

무겁게 무겁게 받들고있어라

신기한 옷

장군님부대에 만석이라는 대원이 있었다.

어느날 장군님께서 만석을 부르시더니 백두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성시에 내려가 걱정을 정찰해줄 임무를 주시었다.

(조선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왜놈들이 또 혼쭐이 나게 됐구나.)

만석은 이렇게 생각하며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하리라 마음을 든든히 다졌다.

임무를 주신 장군님께서 만석이앞에 무명바지저고리를 한벌 내놓으시며 입고 갔다오라고 이르시었다.

장군님께서 주신 무명바지저고리를 거뜬하게 차려입은 만석은 지체없이 길을 떠났다.

성시를 향해 발걸음을 다그치는 만석의 머리에는 문득 언젠가 중대장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느날 장군님께서 중대장을 부르시더니 강 건너 어느 마을에 나가 식량을 조달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중대장이 떠나기에 앞서 장군님께서 군복 한벌을 내주시며 입고 갔다오라고 하시었다.

장군님께서 주신 옷을 갈아입은 중대장은 곧 길을 떠났다.

목적지에 이른 그는 그곳에서 식량조달임무를 훌륭히 끝내고 부대로 돌아오고있었다.

그가 강을 건느려고 나무터에 이르렀을 때였다.

나무터에 있던 왜놈경찰들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다짜고짜로 총부리를 내대는것이였다.

너무도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미처 손쓸새가 없었다.

중대장은 무작정 강기슭에 펼쳐진 갈숲으로 피하려고 날래게 몸을 날리었다.

그때 총부리를 쳐들고있던 왜놈경찰이 그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땅!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총구에서 튀어나온 총알이 중대장의 몸에 맞자 바위에 부딪힌듯 튀어나는것이 아닌가.

총부리를 겨누고있던 왜놈경찰들은 저마다 방아쇠를 당겼다.

땅, 땅, 땅!

그때마다 총알은 군복을 뚫지 못하고 튀어나군하였다.

장군님께서 주신 옷이 보통옷이 아님을 제격 알아차린 중대장은 마음을 폭 놓고 품속에서 싸창을 꺼내어 왜놈들을 몽땅 요정내었던것이다.

중대장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며 자기가 입고있는 무명바지저고리를 내려다보는 만석은 마음이 든든하였다.

만석은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느새 성시가 뻥히 내려다보이는 산마루에 이른 만석은 잠시 땀을 들이며 형편을 살펴보았다.

두길이가 넘게 성을 쌓고 그우에는 가시철조망과 전기선을 늘어놓았는데 보기만해도 삼엄하였다.

왜놈수비대병영과 우편국, 농사시험장, 산림경영소가 자리잡고있는 성시로는 총창을 번쩍거리며 왜놈들이 들락날락하고있었다.

(어디로 해서 성시에 들어갈까?)

만석은 성시 여기저기를 두루 살펴보았다.

아무리 살펴봐야 성시로 들어가는 길은 육중한 성문밖에 없었다.

그런데 성문에는 누런 군복을 입은 왜놈들이 총창을 번뜩거리며 나드는 사람들을 깐깐히 단속하고있었다.

(어떻게 저 성문을 통과할까?)

만석은 이윽도록 성문을 내려다보며 궁리를 짜보았다.

그러나 별 신통한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길고짧은거야 대박야 알게 아닌가. 만석은 뼈저리게 정문으로 통과해들어가리라 마음먹었다.

여차직하면 왜놈들을 모조리 쏘아눕힐 생각으로 품에 간수한 싸창을 꺼내 살펴본 다음 산을 내려 성문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왜놈보초병들은 성안에서 나오는 한 할머니를 단속하고있었다.

한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른손에는 자그마한 보통이를 든 늙은 할머니가 토닥토닥 걸어나오고 있었는데 성문을 지키고있던 왜놈보초병이 총창을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다.

왜놈보초병이 지르는 짹 소리에 할머니는 흠칫 놀랐다.

《이거나 뭔가 말이다?》

왜놈보초병은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보통이를 짹 나꾸채더니 땅에 내동댕이쳤다.

중얼중얼하는 할머니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난이가 몸을 풀었다고 해서 수수쌀을 줌...》

할머니는 한손에 들고있던 지팡이를 내려놓고 땅에 푹 주저앉아 화들화들 떨리는 손으로 보통이를 풀어놓았다.

보통이속에서 뒤되나 될가말가한 불그스름한 갈수수가 나왔다.

《수수? 유격대에 보낼거지? 망할놈의 로친네. 이런거나 들고다니지 못하게 했다는걸 모르는가?》

왜놈보초병은 발길로 보통이를 탁 차버렸다.

그바람에 보통이에 들었던 수수쌀이 길바닥에 짹 뿌려졌다.

《아니 이런?...》

할머니는 황황히 수수쌀을 떨리는 손으로 쓸어 모았다.

《에 에 시끄럽다. 그냥 가라, 가란 말이다.》

왜놈보초병은 길바닥에 흩어진 수수쌀을 발로 짓밟으며 총각으로 할머니를 떠밀었다.

《에익, 천하에 죽일놈들!》

만석은 저도 모르게 품속에 찢러넣은 싸창에 손이 갔다.

그러나 다음순간 입술을 짹 깨물었다.

만석은 마음을 다잡고나서 보초병들이 서있는 성문쪽으로 걸어갔다.

왜놈보초병과 거리가 가까와질수록 마음이 더욱 긴장해졌다.

(왜놈들이 물으면 뭐라고 할가?)

이런 생각을 굴리며 왜놈보초병앞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왜놈보초병은 웬일인지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만석이가 성문을 다 지날 때에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거참 이상한데...)

만석은 한쪽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도 성문을 무사히 통과한 기쁨에 더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걸음을 다그쳤다.

성시에 들어선 만석은 왜놈수비대며 경찰서, 산림경영소 등을 살살이 정찰해가지고 성문밖을 빠져나왔다.

성문밖을 빠져나올 때도 아무일 없었다.

만석은 일이 너무 순조롭게 된 것이 이상했다.

생각을 더듬던 그는 입고있는 무명바지저고리에 눈길미치자 무릎을 쳤다.

(웁지, 장군님께서 주신 이 옷이 신기한 조화를 부려 왜놈들이 날 알아보지 못했건이구나.)

만석은 한참동안 서서 장군님께서 계시는 백두산쪽을 우러러보았다.

그러다 다시 걸음을 재촉하였다.

때는 선선한 가을이었으나 한참 달려서인지 온몸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좀 쉬었다 길을 다그치자.)

산중턱에 이른 만석은 어느 나무밑에 무명저고리를 벗어놓고 앉아 담배를 두툼하게 말아 물었다.

그가 담배를 절반쯤 태웠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총소리가 나더니 《유격대다!》하는 고함소리가 들렸다.

만석은 고개를 책 돌리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누런 군복을 입은 왜놈 《토벌대》놈들이 무리지어 다가오고있었다. 유격대를 찾는다고 산판을 싸다니다 만석을 본 모양이었다.

만석은 순간적으로 품에서 싸창을 꺼내 왜놈 《토벌대》놈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땅!

왜놈 《토벌대》한놈이 그자리에 푹 꼬꾸라졌다.

만석은 곁에 놓은 무명저고리를 한손에 들기 바쁘게 산으로 올리뛰었다. 뛰다가는 진대나무에 몸을 숨긴채 한방 갈기고 총을 쏜 다음에는 다시 내달렸다.

왜놈 《토벌대》놈들은 마구 총질을 해대며 쫓아왔다. 왜놈의 수는 점점 불어났다. 수백명의 왜놈들이 산을 포위하고 점점 좁혀들었다.

산말랭이로 번개처럼 내달리던 만석은 그만 발걸음을 푹 멈추었다.

발밑에 수백길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만석은 눈길을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수백명의 왜놈 《토벌대》가 총들을 꼬나들고 한걸음한걸음 조여들고있었다.

순간 만석은 그때까지 한손에 들고있던 무명저고리생각이 났다.

(아차, 내가 이 저고리를 벗은 것이구나.)

어망결에 만석은 자기가 옷을 벗었다는 것을 잊었던 것이었다.

그는 서둘러 무명저고리를 입었다. 그러자 총부리를 겨누고 다가오던 왜놈들이 하늘과 땅을 눈이 켜해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할뿐 바로 코앞에 서있는 만석이를 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방금까지 여기 있던 유격대가 하늘로 올랐는가 땅으로 잤는가.》

《김일성장군유격대가 틀림없다. 축지법을 쓴 모양이다.》

만석은 눈이 켜해서 어디서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벌벌 떠는 왜놈들사이로 유유히 빠져나왔다.

장군님께서 주신 옷은 둔갑술을 쓰는 신기한 옷이었던 것이다.

무사히 부대로 돌아온 만석은 장군님께 걱정을 낱알이 보고드렸다.

그날밤, 성시에 틀고앉아 갇은 악한짓을 다하던 왜놈들은 모조리 몰살당하고말았다.

명언해설

《돈에서는 우정이 생기지 않지만 우정만 있으면 없던 돈도 생기고 별의별것을 다 얻을수 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중에서 -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하신 이 명언은 혁명적동지애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한 소박하면서도 인간철학이 담겨있는 훌륭한 명언이다.

돈에서는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우정! 이것은 동지들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살뜰한 정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돈으로는 결코 계산할수도 없고 살수도 없는 정, 인간의 마음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다.

하기에 우정을 두고 언제나 진실하고 뜨거워 남이 자기로 되는 세계라고도 말하군한다.

우정만 있으면 돈으로도 구할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것들을 다 얻을수 있으며 특히 인간의 재부중에서도 가장 큰 밑천이며 재부인 혁명동지도 얻을수 있다.

결코 돈으로는 구할수 없는것이 인간의 정이다. 돈에 기초한 우정은 일시적인것으로서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 쉽게 변할수 있으며 그런 《단합》은 건고치 못하다.

이 세상에 맹목적인 우정이란 없는 법이다.

우정은 한 인간의 사상정신적품격에 매력을 느끼고 그로부터 따르고 존경하여 서로 믿어주고 내세워주는 믿음으로부터 형성되는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의 일종이다. 이 순결하고 뜨거운 정으로 사람들 호상간에 동지적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혁명의 주체인 수령, 당, 대중의 일심의 통일단결이 발전풍부화되는것이다.

우정은 사회제도마다 다르며 우리 사회주의제도에서는 가장 높은 인정세계를 이루고있다.

돌이켜보면 인류력사에 돈과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람들의 피의 쟁탈전이 얼마나 많았던가.

자본의 획득에만 취미를 가지고있는 억만장자의 대기업가들은 자본의 리운을 더 빨아먹기 위해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모험적인 고열로동으로 서슴없이 내모는 한편 개인의 출세와 권력, 성적욕망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제주머니의 돈을 깡그리 탕진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한푼의 돈이라면 혈육도 가리지 않고 부모와 자식간에, 부부간에 서슴없이 죽이고 사회적으로 깡패단이 백주에 돈을 강탈하고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려이어 일어나군한다. 이처럼 금전관계로 얽혀진 자본주의사회는 룰리도덕이란 깡그리 사라

지고 약육강식과 금욕, 개인리기주의만이 지배하는 사회로서 우정은 무참히 짓밟혀 생각도 못하고있다. 최근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고있는 동구라파의 실태는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전시기 사회주의제도에서 너나없이 평등하게 살아오던 사람들사이에 오늘에는 약육강식의 법칙, 돈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심각한 인간문제, 계급전이 벌어지고있다. 결국 돈에 의해 생기는것은 파멸뿐이다.

그러나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된 우리 사회에서는 영예군인들과 부모없는 아이들의 운명도 도말아 안아주며 잃어진 막대한 돈도 주인을 찾아주고있다. 진정 내 사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이 동지적 우정의 참신한 세계가 날로 발전되어가고있다. 이 판이한 두 현실은 우정만 있으면 이 세상에 해결 못할것이 없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우정이 진실하고 영원한것으로 되자면 삶에 대한 목적이 같아야 한다. 특히 자신보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집단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에게만 참다운 우정이 있는 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어린시절 광복의 길에 오르신 자신에게 한 동무가 준 소박한 편지와 돈 3원에 깃든 이야기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그가 그때 자신을 공색한 처지에서 구원해준 잇을수 없는 동무였다고 하시였다.

돈 3원! 동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지 않고서는 1920 년대 당시 형편에서 그것도 어린 나이에 돈 3원을 구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돈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우정의 무게가 실려있고 부자들의 백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진실하고 뜨거운 인정세계가 담겨져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이런 동지적우정과 의리에 고무되어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실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60 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를 그토록 잊지 못해하시는것이 아니런가.

인류력사발전이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전혀 기대할수 없었던 이런 동지적우정의 참신한 세계는 오늘 우리 사회에 하나의 기풍으로 되고있다.

승리의 메아리

김영길

1

흙도 타고
바위도 부서져 재가 되고
모래불의 해당화도 찢기고 짓이겨져
살아 숨쉬던 모든것
자취를 감추었는가

동해안-
물박으로 퍼붓는 적들의 함포탄에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살아남지 않은
작은 반도
돌출부의 포좌지

몸이 동발목이 되어 뺨치였던
깡도도 무너져내려
포가도 묻히고
퇴성을 부르던 성난 숨결도
찾아드는 화염속에 스러졌는가

철썩, 좌르르-
비말을 날리는 해풍에
생의 숨결이 불렸는듯
뉘엿이 걷히는 포연속에
꿈틀거리며 뒤척이는 고지

하나들...
전사들이 일어선다
타는 흙속에서
달아오른 모래무지속에서
몸을 털며 전사들이 일어선다

깊은 동면속에서 깨어나듯
중동이 꺾어져
어깨를 짓누른 동발목을 제치고
부시시 흙을 터는 모습

저게 누군가
폭풍에 흐트러진 군복자락
철갑모엔 스쳐지난 파편자욱
너슬거리는 팔소매엔
홍건히 내젓은 피...

외모는 찢기고 터졌어도
단단한 제것을 잃지 않은 모습
통박달인듯

탄력있는 몸매
피발저 독이 어린 눈빛

금시 다시 포사격구령을 내릴듯
그것만은 틀어쥐고 놓지 않은
붉고 흰 수기
그는 단문포의 포장
중사 강태진

부시시-
깃을 터는 사자인양
들썩워진 재무지를 털어버리며
그는 움쪽 일어섰다
그리고 서둘러 찾았다
《금철이! -》
《두삼아바이! -》

조준수가 일어섰다
장탄수가 화답했다
죽음에서 깨어나 만나듯
가슴과 가슴들이 으스러지도록 껴안았다
《포장동지! -》

아는가
대양건너온 고용병의 무리들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조국의 위기를 맨 앞장에서 막아나선
이 작은 반도
여기에
그 어떤 불사신들이 깃을 치고 사는지...

《제간놈들...
자는 범의 코수염을 건드려봤지비
무산철공소
이 대장쟁이의 손탁에
한번 들어와보랑이
내 그저 콩가루처럼...》

《хах하하...》
《허허허 ...》

《아바이 흰소린 ...
그 교활한놈들의 적함이
날 잡아줍시사하고
물으로 기여나오겠대요
에익, 그저
포탄만 떨어지지 않았으면...》

1953년 정초
통천, 원산, 함흥...
남포, 한천 ...
동서량해안에 대함대들을 집결하고
대규모의 공세를 피하는놈들

련사홀
여기 작은 《ㅅ》반도에
상륙의 썰기를 박으려 접어들었다
소함대와 수륙양용땅크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과장식으로 집요하게 덤벼들었다

- 단 한놈의 해적무리도
신성한 조국땅우에 올려놓지 말라!
- 바다로 기여드는 적은
바다우에서 모조리 소멸하라!

최후 결사전의 맹세로
성난 사자마냥 울부짖던 포진지
도망치는 마지막 적함들
조준경안에 잡아넣고
애타게 찾고찾던
포탄 포탄...

돌출부엔 때아닌 정적이 깃들어
들리는건 다만
방탄벽을 다시 쌓고
동발목을 추켜세우는
공병삽소리...
돌에 부딪치는 팽이소리...

장탄수 두삼아바이도
조준수 금철이도
말이 없었다
허나 마음속에 안고있는 생각은 하나
포탄을 가득 무저놓고
한번 실컷 쏘보았으면...

이밤-
곤히 잠든 갯도
탄피등잔불 가물거리는
포탄상자앞에
강태진은 잠못들고 앉아있었다
퍼놓은 기름종이우에
《삼천리》연필을 그루박고있었다

날뵈으면 야전기통수에게 띄워보낼
전투보고서인가
적에 대한 《ㅅ》반도의 론고장으로
력사의 갈피속에 새겨둘
《복수기록장》인가

한줄 쓰다가는 멈추고
두줄 잇다가는 생각하고
무슨 사연 깊고깊어
내치 글귀를 못고르는것인가

소달구지에 원호미를 실고
전선길 함께 떠났던 부모님
원췌의 포격에 숨졌다는
비분의 소식을 띄워보내며
어딘가 자기도 싸우려 떠난다던
너동생 경진이

열다섯살의 그 어린 몸
혈혈단신으로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참을수 없는 그리움을 마음속에 터치며
목매여 적어가는 글발인가

아 빠지직 빠지직-
타드는 등불심지인양
그 무엇을 애타게도 갈구하는
마음의 불꽃은
그의 온 넋을 활활 불태우고있었다
그의 온몸을 뜨겁게 달궜주고있었다

2

이 지구우에 벌어졌던
크고작은 전쟁들은
제노라던 장군들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였다
그가 잔인한 폭도였던
그가 우직스런 싸움꾼이였던

전쟁 ...
정의와 부정의의 칼이 대결했던
희세의 백전로장들
어느덧 망각의 질은 안개속으로
그 명성 사라져가는데...

지구우의 동쪽나라
불타는 전란의 땅에
전세후세에 유일무이한
위대한 령장중의 령장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전쟁을 이끄시고계시였다

《하하하...
아이젠하워란놈이 드디어
〈신공세〉의 서막을 올렸다?
〈부임인사〉가 괜찮아! ...

자 부관동무
그렇다고 우리의 일과야

달라질수 없지
새벽공기나 좀 쏘이기오...》

벼락치고 우뢰울어
금시 하늘이 무너져내린대도
태연자약한 심장을 지니신 그이
례사로운 산책길에 나서시려는듯
새벽의 숫눈길우에
차의 발동소리 울리어라

오 전쟁의 보통날
그이께서는 이렇게 길을 떠나시였다
치열한 공방전으로 낮과 밤이 이어지는
전선을 뒤에 두고
복으로 차머리를 돌리라 하시여라

(어디로 가시려는가?)
떠나신다는 예고도 없이
문득 가시는 이 길
보좌하는 부관의 가슴은
근심과 걱정으로 조바심쳐라

...세월을 진동하며 울린
전쟁의 첫 포성
바뀐 세번째해의 문전을 두드린 아침
최고사령부의 권위높은 의학박사는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장군님께 휴식진단을 내리였어라

엄혹한 3년간의 전쟁의 중하
한몸에 안고 오시느라
병약해지신 신변을 녀려하여
일파에 정해놓은 휴식시간
그 시간이 어떻게 흘렀던가

전쟁이 깊어갈수록
온 나라엔 천만가지 사연도 많아
날마다 최고사령부로는
전선에서 후방에서
수백통의 편지들이 날아들었다

그 편지 한장한장
그리도 소중하시여
진단받은 일파의 휴식시간
편지보는 시간으로 정하신 장군님

먼 전선전호가의
화약내 숨배인 편지
적후의 사선을 넘어
적정보고와 함께 보내온 편지
후방의 숨결어린 편지...

필체도 다르고
내용도 같지 않은

그 한장한장마다에서
장군님께서 읽으시였다
화선전사들의 불타는 심장의 맹세
굴함모르는 인민들의 필승의 신념

그리도 소식몰라 애타하던
반가운 자식의 글월인듯
먼곳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꿈같은 생사의 기별인듯

그이께서는 그 한줄한줄에서 읽으시였다
싸우는 이 땅의
불타는 열망과 지향
글귀마다에 어려있는
피맺힌 원한의 사연...

오 광대한 전전선에서
적들의 무모한 《신공세》기도에 맞서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는
시련의 이 계절

동부에서 서부의 전호속으로
중부에서 남부의 화선으로
불멸의 자욱을 이어가시고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앞에서
멸적의 화살표도 그으시며
백전백승의 전략을 펼치시는 장군님

그 위대한 작전과 더불어
휴식진단의 시간마저 바쳐가시며
단 한장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단 한줄도 스치지 않으시며
편지를 보시는 시간

오 그것이 어찌 휴식이였으랴
별치않은 작은 하나에서도
누구도 발견 못한
위대한 그 무엇
우주와 같은 전체를 찾아안으시는 그이

이름없는 한 전사의 편지에서도
가슴타는 하나의 글줄에서도
작전대앞에서는 다 헤아릴수 없었던
소중한 승리의 열쇠
예지의 안광으로 발견하셨나니

정녕 그것은 휴식이 아니였다
의학박사가 정하였던
일파의 휴식시간
그것은 전쟁의 운명을 두고 모색하는
그이의 위대한 사색의 련속
불멸할 작전의 계속이었나니

천만갈래속에서 찾아안은

그 승리의 실머리를 따라
 굽이굽이 령을 넘고 골을 지나
 그이께서는 북방천리 산길을 가시여라

짜르릉! - 짜르릉! -
 땅을 진동해오는
 가증스런 함포소리가 잦을수록
 빨리 더 빨리
 북으로의 길을 재촉하시는 그이

아 전선떠나 멀리
 후방천리길을 다그쳐 가시는
 위대한신 그이의 품속엔
 한장의 편지가 간직되어있었다
 그 무슨 내용이
 그속에 담겨져있는것인지...

3

《절커덕 절커덕-》
 가락맞는 전쟁의 노래인듯
 때로는 달구지바퀴에 걸어놓은 피대를
 손으로 돌려가며
 미구에 터져오를
 섬멸의 피성을 마련해가는 지하전선

《절커덕 절커덕-》
 가빠친 돌러감은 손바닥엔
 피가 질벅히 내배여도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신념의 글발을 심장에 새겨넣고
 포탄을 깔고잡는
 갱도속 군수공장

소소리높은 북방의 험준한 산밑
 키낮은 갱도속을
 장군님께서 걸으신다
 터져오르는 환호의 열풍은
 두터운 지층을 터칠듯

감격의 이슬젖은 모습들
 그 얼굴들에 비끼
 승리의 신심을 읽으시며
 기름묻은 손들을
 하나하나 뜨겁게 잡아주시는 장군님

통나무를 잘라 만든 발판우에
 키가 모자라
 벽돌장을 고여놓고 선반을 돌리는
 나어린 단발머리처녀앞에
 발걸음 멈추시여라

발에는 쇠밥에 굽혀 숨이 더진
 커다란 숨신발

앞자락은 기름에 얼룩지고
 어깨엔 군데군데 천을 덧대인
 흘린한 누빈 동복
 허나 이슬젖어 습벽이는 눈매만은
 숯불처럼 타는 처녀

울먹이는 그 입속에서
 터져나오다 메이는 목소리
 오매에도 꿈결에도
 뵈옵고싶던 그 모습
 《장군님! ...》

《오냐, 용타! - 용타! -》
 소식모르던 친딸자식인듯
 어린 그 몸으로
 전쟁의 시련을 곳곳이 맞서 이겨감이
 그리도 기록해서인듯
 처녀를 뜨거이 품안아주시는 장군님

정말 장하다고
 기특하다고
 불이며 잔등이며
 살뜰히 애무해주시는 그 손길
 정겹게 속삭여주시는 그 언약

《나를 용서해다오...
 전쟁이 어렵다보니
 꽃처럼 피어야 할 고운 너에게
 이런 신발
 이런 옷을 입혀놓았구나...》

내 이제 돌아가거든
 최전선의 병사들에게 보내준
 그런 신발
 그런 옷을 보내주마
 여기도 싸우는 지하의 최전선이거든! ...》

《장군님! -》
 아 우리가 전쟁만 이긴다면야
 이 곤난이 무엇이며
 겹쳐드는 천만시련인들
 이겨내지 못하랴

단발머리처녀도
 기대결에 둘러선 로동자들도
 마음속의 대답을 울리는데
 그 감사의 마음을 읽으시는듯
 잠시 열기띤 눈길들을 돌려보시던 장군님
 품안에서 한장의 편지를 꺼내드시여라

《동무들!
 이 편지는
 전선동부의 한 포병분대장이
 나에게 보내온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사연이 적혀져있는것이겠습니까!...》

숨죽은듯 조용한 갯도
그속을 우렁우렁 울리시는 말씀에
그들의 눈앞엔
환히 떠올랐다

조선전쟁에서의 편이온 참패로 나떨어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그 만회를 떠벌이며
백악관의 새 주인자리에 들어앉은
아이젠하워의 《신공세》 작전기도

토끼허리처럼 잘룩한 동서해안에
침략의 함대들로 상륙을 감행하여
그 허리를 자르고
내륙깊이 《특공대》들을 투하하려는 그 흉심

《적들은 지금
동해안의 관문인
작은 〈人〉 반도에만도
하루 수천발의 함포탄을 퍼부으며
집요하게 덤벼들고있습니다

도망치는 마지막 적함을
조준경안에 잡아넣고
빈포탄상자를 두드리며
애타게 부르짖던 그 목소리가
여기에 울리고있습니다

포탄이 떨어져
적함을 소멸하지 못한다는
포탄을 한번 실컷 쏘보았으면
한이 없겠다는 이 편지
강태진포장의 이 가슴치는 호소에
누가 회답을 주어야 하는가! ...

내가 믿을것은
동무들밖에 없습니다! 》

순간
《흐흑-》
고요한 갯도의 침묵을 깨뜨리는
흐느낌소리

모두들 의아하여 눈길을 돌리는데
선반기를 끌어안고 어깨를 들먹이는
단발머리처녀
그 입에서 저도 몰래 새어나오는 소리
《오빠! ...》

《아니, 오빠라니?! ...》
그리움에 젖어나온 목소리에

누구도 영문을 몰라하는데
처녀의 결으로 다가가시여
허리를 굽히시고
다정히 물으시는 장군님

《그래, 너의 이름이 뭐지? ...》
《강... 경진입니다》
《음, 경진이라...
강태진... 강경진...》

이윽고 처녀는 품안에서
집을 떠나기전
마지막으로 받아본 오빠의 편지
보풀인 편지를 꺼내드는데
그 글발을 찬찬히 새겨보시던 장군님

《웁다
이 편지의 주인이
네 오빠가 맞구나
경진아! ...》
《장군님! -》

아 전쟁의 동란속에 흩어졌던
저저마다의 친혈육을 찾은듯
지켜보는 눈길들에 이슬이 어리는데
포장의 편지를 높이 드시며
기쁘시여 하시는 말씀

《이 편지는 곧
포병들의 부락을 담아
나에게 보내온 편지이자
동생 경진이에게 보내온 편지이며
싸우는 전선이
후방에 띄운 편지입니다...

자, 회답을 쓰시다!
나의 회답
경진이의 회답
후방의 회답
더 많은 포탄을 꺾고꺾아
전선으로! -》

아아 포탄마다에 재워질 피성인듯
심장의 박동소리
맹세의 화답소리
천리지축을 뒤울린다 뒤흔든다!
지맥따라 전선전화가로 파동쳐 이어진다!

4

폭풍의 광란을 잉태한 바다
우뢰와 벼락을 품고있는 반도
흑운이 낮추 서려도는 저곳은
수평선인가

지평선인가

바다의 푸르름을 다 덮어버린 피함들
순양함 구축함...
소해정 상륙정 수륙양용탱크...

불탄 모래불을 적신 선혈인듯
해당화꽃잎
점점이 찢겨져 흩어진 포좌지에서
묵묵히 쏘아보며
결사전을 각오한 마음들엔
때아닌 평온이 깃든듯

두삼아바이는 반땅크수류탄을 묶고
금철은 모래불 코숭이에
경기관총을 걸어놓고
갱도 석벽에선 보병삽날 가는 소리
태진은 한자두자
최후의 맹세문을 적어간다

《개새끼들
덤벼들테면 들어봐라!》
아바이는 배심이 든든한듯
마라초쌈지를 푸는데...

무겁게 드리운 공기를 찢으며
가슴들에 서린 불안을 가져내며
총알처럼 날아오는
감시병의 새된 목소리
《포탄이 온다-아-!》

구렁이나 받은듯
벌떡벌떡 쳐드는 고개들
바라보는 도래굽이 전호파라
얼씬얼씬 다가오는
이고 진 포탄상자들

《포탄이다!》
《포탄이 왔다!》
뛰며 엎어지며 달려가
받아내리우는 포탄상자들
부동켜안은 가슴가슴들

인사말도 건느기에 앞서
《삐이-익-》
성급한 금철
못박은 상자를 뜯어제꺾다
이어 벌컥벌컥 포탄상자들이 열리었다

한순간-
침묵, 침묵...
하늘도 땅도 갈라놓을
벼락을 품고있는 누으런 포탄들...

헌데 이게 무엇인가
상자마다 놓여있는 종이쪼박
조심히들 펼쳐드는데
쩡!-
증오가 장진된
심장의 퇴관을 치는 소리

《미제 침략자들에게 천백배의 죽음을!》
《조국의 한치땅도 피로써 사수하자!》
...

근엄한 포장의 얼굴에도
포수들의 눈길에도
비장한 각오가 비껴흐르는데
마지막 포탄상자를 메고
불쑥 좌지에 나타난
낮선 군관

《강태진포장이 누구요? ...》
《...?!》
긴장하여 주시하는 눈길들
수기를 감아쥐고
한걸음 다가서는 포장
《상사 강태진!》

《아, 태진동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동무의 편지를 받으시고
몹소 어느 군수공장을 찾아주시었소》
《?! ...》

《그이께서는 어제밤
〈긴급포탄수송대〉를 무으시여
나를 이리로 보내주시면서
누이동생의 소식도
잊지 말고 전해주라고 하셨소...》
《아니, 동생이라니?! ...》

《자, 읽어보오
경진이가 보낸거요...》
의혹과 놀라움 속에 펼쳐든 종이우엔
뿌잇이 젖어오는 이슬속에 안겨오는
낮익은 필체

《오빠! ...
아버이장군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운 오빠의 소식도 알려주시고
포탄을 부탄한 그 편지도 보여주셨어요
...

오빠
받으세요 이 포탄을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오빠에게 보내주시는 회답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리의 후방이
싸우는 전선에 보내는 회답이에요!

〈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 》

순간, 드르릉-
땅을 진동하는 굉음이 울려왔다
화력구역안에 들어선
적함들의 함포사격소리 사격소리...
태진은 벼락같이 소리쳤다
《포수-포에랏! -》

《목표! 》
《목표! 》
《해상에 나타난 적구축함》
《해상에 나타난 적구축함》
《거리 2,500》
《거리 2,500》
《방향 29-00》
《방향 29-00》
《수준기 30-00》
《수준기 30-00》
《철갑탄, 급속 쏘! -》
《발사! -》

오 우뢰가 터져올랐다
벼락이 다닥친다
광란하는 침략의 폭풍우속에
가증스런 적함들의 잔해를
갈가마귀떼처럼 날려버리며
우뢰울고
벼락친다

원썩들의 오만한 대공세파탄작전의
서곡인듯

《사》반도에서 울린 포성에 이어
량익측으로 뻗어간 전해안의 좌지들에서
일제히 터져오르는
포성! 포성!

온 조국땅이 격노하고
하늘이 뒤흔친다
바다가 뒤끓으며 타래친다
단 한척의 적함인들
신성한 령해우에 떠다니게 할수 있으랴

수십척인가
수백척인가
바다를 뒤덮었던 적함들
포탄에 박산나고 수장되고
서로 맞췄아 깨여지고...

아이젠하워의 어리석은 《신공세》작전기도
꺼어진 포탑속에 꾸겨넣고
줄행랑을 놓던 마지막 구축함
꾸르륵- 꾸르륵-
천길 물속으로 잣아드는데

아아!-
천리 바다기슭이 떠나갈듯
승리의 기쁨에 울고 웃는
심장들의 메아리가 터져오른다
《만세! -》
《만세! -》

태진이며 금철
두삼아바이도
목소리 합치는 포성같은 만세소리
천리 갯도속의 경진이네들도 듣고있었다
최고사령부의 작전지도앞에 서계시는
장군님께서도 만족히 새겨안고계시였다

후방의 회답에 이어
다시 전선이 화답하는 그 메아리를...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와 작가의 형상적탐구

박춘택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령을 형상한 혁명문학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이 완성되고 해방후편이 려이어 발표되고있으며 특색있는 단편소설들이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창작되고있다.

오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핵으로 되고있으며 우리의 문학은 확고히 수령의 형상창조를 주선으로 하여 힘있게 건설되고 있다.

우리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가야 한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심오히 분석일반화하고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탐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는것은 평론의 중요한 과업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수령형상문학의 고유한 생리에 따르는 작가의 형상적탐구에서 기본으로 나서는 몇가지 문제를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해방후편의 장편소설들을 놓고 논의하려고 한다.

(1)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작품에는 일반작품과 구별되는 미학적특성, 고유한 생리가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 고유한 생리가 있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화폭의 중심에 내세우는 수령의 특출한 사회적지위와 관련된다.》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로부터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문제는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공산주의자의 형상은 개인의 형상이지만 수령의 형상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인민대중의 리익의 최고체현자의 형상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공산주의자의 전형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긍정적전형들을 내세우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주인공의 형상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

수령의 형상은 일반공산주의자의 형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리해관계와 지향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다. 따라서 수령의 형상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지향이 아니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요구, 근로인민대중의 지향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있다.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형상은 아무리 높은 수준에서 전형화하고 아무리 깊이있게 그려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나라들의 수령형상문학작품들에서는 수령을 한갓 개인으로 보고 그리기때문에 수령의 생활을 보여준다는 명목밑에 일반 개인들과 다름없는 사말사를 펼쳐놓거나 수령의 인격에 어울리지 않는 세부를 보여주는것이 적지 않다.

수령을 개인으로 보고 그리면 혁명투쟁과 력사발전에서 수령이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줄수 없으며 수령의 형상이 일반 개인들의 형상과 다름이 없이 되고만다. 결국 이렇게 되면 수령의 생활과 투쟁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게 되며 사람들에게 수령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주게 된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수령은 개인이 아니다. 그런데 문학에서는 추상적인 인간을 그리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을 그려야 하는것만큼 로동계급의 수령을 추상적인 존재로 그려서는 안된다.

수령을 구체적인 인물로 그리면서도 개인으로 형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하여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은 자기의 고유한 생리를 가지게 된다.

창작실천에서 수령을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절대화하여 그리면 격식화, 기정사실화하는 편향에 빠지게 되며 반대로 구체적인 인간으로 보고 그린다고 하면서 개인의 형상에 융해시키면 수령의 높은 품격을 품위있게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수령형상작품에는 수령을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력사발전과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특출한 위인으로 형상의 중심에 내세워져야 하며 그의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위대한 품모와 현실에서 살아숨쉬고 활동하는 위인으로서의 인간적품모가 다같이 생동하게 그려져야 한다.

이러한 미학적원칙으로부터 수령의 심오하고 진실한 형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특출한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감명깊게 그려내는것이다.

수령의 형상에서는 령도자의 지위에 맞는 위대한 품모가 격이 있게 그려져야 하며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이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생활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이 형상적요구를 구현하는데서 기본은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수령과 전사의 혈연적관계, 혁명전사와 인민에게 베푸는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잘 그리고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주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품위있게 형상할수 있는것은 바로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한데 있다.

장편소설이 력사적배경으로 하고있는 시기는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이 끝없는 감격과 양양된 민족자주의식을 안고 반동들의 온갖 준동을 물리치면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잔재를 청산하며 새 조국을 건설해나가던 력사적인 사변들로 빛나는 위대한 전환의 시기였다.

작품은 이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앞에 가로놓인 복잡다단한 문제들가운데서 인재문제를 가장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제기하시고 도처에 널리있던 한사람한사람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한품에 안으시고 이끌어주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펼쳐보이고있다.

사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인재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하여 우리 인민의 배움의 길이 막혀 지식인들이 극히 적었을뿐아니라 그나마 도처에 흩어져있었으며 또한 종파분자들은 지식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그들이 새 조국 건설에 적극 나서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그런데 새 조국 건설에 요구되는것은 인재였다. 인재문제의 해결, 이것은 새 조국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였다.

과연 인재문제, 지식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이 력사적인 사업은 오직 우리 수령님만이 감당할수 있는 위대한 과제였다.

장편소설은 탁월한 수령만이 해결할수 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력사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하고 비범한 령도품모를 격이 있게 형상하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문학작품에서 매 인물은 자기의 형상과제를 안고있다. 인물의 형상과제는 종자와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본문제를 풀어나가며 작품의 구성을 엮는데서 매 인물이 맡아안는 몫이라고 말할수 있다. 어떤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성격의 면모와 그 형상의 높이가 결정되는것이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바로 조국과 민족,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

제, 지식인문제를 제기할뿐아니라 이 거창한 력사적인 위업을 떠맡어나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활동세계를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펼침으로써 정서적감동성과 견인력을 보장하고있다.

장편소설은 해방후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인재문제 특히 과학기술인재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심문제로 튼튼히 틀어쥐시고 한명구, 최준걸, 강병철, 양춘만, 안동권 등 각이한 경력을 가진 오랜 지식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여 사랑과 믿음으로 혁명의 편으로 개조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의 중심에 모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복잡한 인생행로를 걸어온 지식인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직 이들의 애국심을 굳게 믿으시며 그들모두를 사랑과 믿음의 한품에 안으시여 때로는 심장의 호소로 숭고한 인간애의 정열로 깊이 감화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철의 논리와 높은 지성으로 타이르시면서 혁명의 편에 돌려세우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병철을 개조하시는 과정은 참으로 감동깊게 형상되었다.

강병철은 러송공대출신으로서 철공소를 경영하는 사람의 아들이며 일제때에 일본제철소에서 복무한적이 있는 금속전문가이다. 그는 민족적량심이 있었으나 자기의 과거생활처지로 하여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외곡된 인식으로 하여 우리에게 대한 그릇된 감정을 가지고있었다.

그처럼 오래동안 편견에 사로잡혔던 강병철이앞에는 그가 이전에 생각하던 그런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을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시며 지성인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 계시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성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가, 지성인들을 일정한 기간 리용하고 버리지 않는가고 생각깊었던 강병철이 마침내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인간적품모에 감동되어 새로운 마음의 지령점을 안게 되는것이다.

《이 믿음을 안고 나는 한생 살겠다. 이 지령점이 있는 한 나는 다시 흔들리지 않을것이다. 이것이 서있으면 나도 서있고 이것이 넘어지면 나도 같이 땅에 꺼꾸러질것이다.》

심장의 이 웨침은 죽음보다 더한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 탄생한 강병철의 기쁨에 찬 환호였다.

작품은 그외에도 양춘만과 같은 지식인들을 로동계급의 지식인으로 키워가시는 과정에 대한 진실한 묘사를 통하여 해방후 산산이 흩어진 지식인들을 하나의 대하로 묶어세우시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와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력사적위업은 오직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수행되었다는것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수령의 형상과제는 일반주인공의 형상과제와 다르며 력사에 이름있는 걸출한 위인이나 영웅의 형상과제와도 다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조국과 민족, 혁명과 건설의 운명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것

이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의 수령형상문학으로서의 가치는 바로 사회주의위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지식인문제해결의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우고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그린 데서 이루어진것이다.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움으로써 수령의 품모를 품위있게 형상한 모범은 장편소설 《조선의 봄》에서도 볼수 있다.

장편소설의 형상적묘은 수령의 위대성과 새 사회 건설의 진정한 비결을 토지개혁이라는 거창한 역사적사변을 통하여 천명한다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치고 토지개혁의 역사를 거치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이 토지개혁을 민주주의혁명단계의 선차적인 혁명과업으로 삼고있다.

토지개혁은 특히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낮은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으로 제기된다.

토지개혁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역사적과업으로 나서고있으나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그렇듯 짧은 기간에 그렇듯 철저하게 수행한 전례는 일찌기 없었다.

당시 우리 나라 토지문제에서 조건이 좋아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것은 결코 아니었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토지개혁문제를 둘러싸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가 본격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그와 은밀히 내통하고있는 지주세력이 악랄하게 준동하고있으며 조만식, 오기섭을 비롯한 온갖 어중이며중이들이 음으로 양으로 방해책동을 벌리는것이다.

일부사람들속에서는 토지개혁정책작성을 둘러싸고 《시기상조론》, 《토지국유화론》, 《유상몰수, 유상분배》 등 온갖 교조주의적이며 좌우경적인 론조들이 엇갈려 나오고 또 지주와 사이 좋게 토지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가 하면 농민들의 자각을 불러일으킬 대신 법령만으로 토지개혁을 강행하자는 의견들도 있다. 정황과 과업이 어렵고 복잡한데 비하여 일군들의 준비정도와 더우기 농촌문제해결의 당사자인 농민들의 의식수준이 그리 높지 못한 상태에 있다.

장편소설은 토지개혁수행의 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시고 인간중심의 위대한 철학적리념에 기초하시여 토지문제해결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2)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 수령이 지닌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는데서 나서는 중

요한 문제의 하나는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펼쳐나가는것이다.

작품에서 수령의 인간성은 행동이나 대사에서도 나타나지만 보다는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는 데서 뜨겁게 발현되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느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련과 마음고생을 많이 겪어오신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수령님께서서는 종파놈들때문에 머리가 세었다고 말씀하시고 조국통일문제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시였다고 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그 깊은 심리세계를 생동하게 펼쳐보여야 하며 수령님께서 겪으신 시련의 과정들을 생활적으로 그려야 한다.

류레없이 간고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게 기울으신 어버이사랑을 형상적으로 깊이 그려내고 체험세계와 심리적굴곡과정을 감명깊게 묘사하는것은 수령형상작품으로서의 품격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에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박원식이 원썬들의 총에 맞아 심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의 상처를 쓸어만지시며 북받치는 울분과 비애와 절절한 감정을 이겨내실수 없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

박원식이 끝내 운명하자 그토록 충실했던 전사의 희생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박원식동무! 동무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모진가, 차라리 엄살도 있고 얼마간 미련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는 않겠는데...》 라고 하시며 자신의 의지로써도 감당하실수 없는 슬픔이 북받치시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수령님.

박원식이 만들다가 채 완성하지 못한 놀이감권총을 띠여보시고 요새 하루에도 몇번씩 그것을 볼 때마다 박원식을 생각하곤하시여서 그럴 때면 그것을 보이지 않는데 치워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종시 그렇게도 못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내면심리... 그것은 위대한 인간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겪으신 가슴아픈 눈물의 세계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 확인으로 빛난다.

장편소설 《조선의 힘》에서의 적후천리를 헤치고 돌아온 최현과의 상봉을 두고 겪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심장의 아프심과 마음속의 눈물의 묘사 역시 인간학에서만이 길이 전할수 있는 위대한 인간세계의 일단을 보여주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사선을 헤치고 돌아온 전사를 맞이한 기쁨은 크시나 그의 어린 딸이 희생된 슬픈 소식때문에 장군님께서서는 저러오는 마음의 아픔을 어찌지 못하신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안색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무엇인가 안정을 못하는 최현, 그러는 최현을 바라보시며 더욱더 비애에 잠기시는 수령님...

작가는 수령님과 최현의 심리적교감과 파동, 굴곡을 섬세하고 진실하게 추구해들어감으로써 수령과 전사사이에 오가는 뜨거운 혈육의 정, 동지애의 관계를 감동적인 화폭으로 펼쳤으며 그속에서 발현되는 수령님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절절하게 묘사하고있다.

특히 소설에서 자체분들과의 작별장면은 사람으로서의 넘기 어려운 아프심을 겪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인간세계, 내면심리를 인상 깊게 보여주고있는 예술적극치의 장면이다.

아버님의 곁을 떠나기 매우 아쉬워하는 어린 자체분들의 마음을 달래이시며 김정숙동지께서 좋아하시던 노래를 그들과 함께 부르시는 수령님의 모습, 머나먼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의 길을 떠나시는 자체분의 손에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를 쥐여주시는 수령님의 심증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으랴.

그 아프심을 혁명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이겨 내시고 준엄한 시련의 난국을 뚫고 전쟁의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 진정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걸으시는 성스러운 그 길에서 조국의 오늘이 펼쳐진것이다.

장편소설 《50년 여름》과 《조선의 봄》도 위대한 인간세계를 진실한 심리묘사로 보여준 빛나는 예술적화폭들이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동상이몽하는 고질적인 종파분자 오기섭과 민족주의자의 탈을 쓰고 공산당을 반대하여 친미정권을 세우려고 요술을 피우며 장군님께서 연설하시는 3.1 봉기 27주년기념대회장에 줄개를 시켜 폭탄을 던지는 비렬한 행동을 감행하는 반동적인 우익정객 조만식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어려운 시련과 참기 어려운 마음고생을 겪으시였는가를 심오한 체험세계와 심리적굴곡과정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진지하게 그리고있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은 화폭의 중심에 내세우는 수령의 특출한 사회적지위로 하여 심오한 철학을 구현할것을 중요한 미학적요구로 제기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사회정치적집단에서 누구보다도 혁명정세와 시대의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멀리 내다보는 특출한 혜안을 가지고있으며 혁명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전략을 밝혀낼수 있는 뛰어난 자질과 품모를 가지고있다. 그 비범한 예지로 하여 수령의 사상과 교시들은 언제나 완벽한 과학적정확성과 심오한 철학적집도를 가지고 혁명의 앞길을 등대와 같이 밝혀주는것이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수령은 다 위대한 철학가였다. 수령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철학사상을 내놓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지도리념으로 삼는다. 수령의 사상리론활동은 지도사상으로 내세운 철학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리론을

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도 그 철학사상에 바탕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인류사상사에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비범한 철학적예지를 지니신 탁월한 철학가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들을 만나시여 하시는 평범한 말씀에도 그속에는 심오한 철학적진리가 담겨져있으며 수령님께서 벌리시는 활동과 사색마다에는 특출한 철학적예지로 빛나고있다. 때문에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철학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내야 수령님의 뛰어난 품모와 업적을 옹게 보여줄수 있는것이다.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자질과 철학적리념세계를 깊이 리해하고 높은 지성도를 가지고 수령님의 철학세계를 심오하게 펼치기 위해 예술적탐구를 심화시켜야 할것이다.

장편소설 《조선의 힘》이 수령형상작품으로서의 감화력을 가지게 된데는 중요하게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철학세계를 심오하게 펼친데 있다고 볼수있다.

작품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의 한 전략적단계, 그것도 미제의 대규모적인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선과 후방이 차단되고 략동강전선의 주력부대들이 적들의 포위에 들수 있는 일대 위기가 조성된 때로부터 전쟁의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채진공이 진행된 시기까지의 전쟁의 가장 준엄한 단계가 취급되고있다. 때문에 소설은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군사활동, 군사작전들을 기본으로 그리고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엄혹한 현실, 긴장한 군사정세에 따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활동 그자체를 다시말하여 그이께서 펴시는 군사작전의 외적인 모습을 현상적으로 쓴것이 아니라 전쟁의 운명을 한손에 틀어쥐신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령도술, 철의 의지와 담력의 근저에 놓인 숭고한 철학세계를 밝히는데로 형상을 집중하고있다.

이 작품전반에 흐르는 강한 철학성의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작품에는 당시의 긴박한 정세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에 대한 단호한 결심, 서울방어전투조직, 제2전선의 형성, 평양해방작전 등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작전과 그 수행과정에 대한 생활화폭들이 기본줄거리로 펼쳐지고있으나 그 어느 생활 하나도 그 결과만을 강조하거나 모든 문제를 즉석에서 척척 결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수령님의 외적모습만을 그리지 않았다. 준엄하고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따르는 중요한 군사작전을 그리면서도 거기에 굽이치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철학,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투시하는 비범한 철학적예지,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대한 힘에 대한 심오한 철

학적진리를 천명하는데 형상의 각광을 집중하고 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결심하시는 생활에 대한 묘사는 이에 대한 생동한 실례로 된다.

새로 조직된 연합부대를 지도하시고 수도로 돌아오시는 장군님께서 눈앞에 펼쳐진 폐사로운 가을 풍경을 바라보시면서 겪으시는 심리체험세계, 메고 갈 총이 없어 빈몸으로 인천, 서울의 격전장으로 달려가던 병사의 모습, 조국의 머리우로 어떤 무서운 메지구름이 밀려오는지도 모르고 반두질에 여념이 없는 애들과 전선에 나간 아버지, 형님, 누나들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리고있는지도 모르는 천진烂漫한 어린것들, 여기에 미친듯한 폭우속에서 결전을 벌리고있는 락동강전선의 치열한 모습이 겹친다. 눈앞에 있는 대구와 하루길사이에 있는 부산을 두고 오직 공격만을 생각하고있는 주력부대의 장병들, 그러나 적들의 인천상륙으로 군사정세는 너무도 급변한것이다.

역경을 뒤집고 전쟁승리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아야 할 비상한 대책을 세우고 단호한 결심을 내려야 하는것이다. 그것은 단 하루를 늦춰도 안되는 것이다.

장편소설은 준엄한 이러한 사태앞에서 피로운 사색속에 잠겨계시면서도 하나의 작은 생활에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신념, 의지를 느끼시고 탁월한 군사작전을 구상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비범한 사색의 세계, 철학세계를 감명깊게 형상하고 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년의 랑랑한 글소리, 준엄한 환경에는 아랑곳없이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꿈많은 소년의 목소리는 충도 없이 수류탄 하나만을 차고 싸움터로 떠나던 수많은 병사들의 가슴속에 차민친 심장의 노래되어 장군님의 마음을 뒤흔든다.

그 누구도 듣고 범상하게 흘러보낼 소년의 글소리, 인민들의 생활의 폐사로운 하나의 사실에서 지금까지 피로운 사색속에 펼쳐오신 비상한 결심을 무르익히시고 가장 크고 억센 믿음에 기초한 결심을 내리시며 그 어떤 원쑤도 꺾지 못할 우리 인민의 힘을 확신하시는것이다. 바로 여기에는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원한 철학세계가 심오한 형상으로 밝혀져있는것이다.

작품은 이밖에도 전쟁의 날에도 평화시기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국립연극극장의 마당을 쓸고있는 로인의 소박한 모습에서, 폭탄이 터지는 환경속에서도 《발갈이노래》를 들으며 웃고 떠드는 후방인민들의 락천적인 생활에서, 최고사령부로 새 전

투명령을 받으러 간다는 꼬마전사의 힘찬 대답에서 힘을 얻으시고 그 믿음에 기초하시어 새로운 작전적구상을 펼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오한 철학세계를 깊이있게 부각하고있다.

(3)

수령의 특출한 사회적지위와 관련한 수령형상 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살리는데서는 또한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을 일정한 사회적계층의 대표자로 전형화하고 상대되는 인물의 격을 높여 형상하는것이 중요한 미학적요구로 나서고있다. 이것은 문학작품에서 수령의 형상이 일정한 사회정치적계층의 지향과 요구를 대변하는 전형적인인물과 관계를 맺을 때라야 수령의 지위와 역할이 밝혀지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수령형상작품에서는 노동자, 농민은 물론이고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자기의 계층의 대표자로 되도록 훌륭히 전형화하고 수령과 보통인물과의 적극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함으로써 사회적집단을 인도해나가는 최고뇌수,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이 부각되어야 한다.

장편소설 《50년 여름》에서는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이 웅당한 수준에서 격이 높게 형상되고 있다. 작품에는 전선사령관 김책, 민족보위상 최용건,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강건, 전선사령부 군사위원 김일, 52사단장 최현, 905땅크려단장 류경수 등 조선인민군 고위군사지휘성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뚜렷한 개성을 가진 성격으로 격이 있게 형상되었다.

작품에서는 적들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적들을 회화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식으로 그리지 않고 역사적으로 실재한 현실적인 인물로 채현하고있으며 놈들의 패망상을 통하여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가 어떻게 부서져나가고 놈들의 패배가 어찌하여 불가피한것으로 되였는가를 사실주의적으로 밝힘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반증하고있다.

미국대통령 트루먼을 비롯한 강한 힘을 가진 미제의 거물급들을 등장시키고 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걸음마다에서 참패를 겪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전략전술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사실주의적필치로 그림으로써 수령님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안겨오게 하고있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상대되는 인물의 격을 낮추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더욱 높이는 방법으로 형상하여야 한다는것은 직급이 높은 인물만을 설정하여 그려야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인물이 비록 평범하다 하더라도 사회정치적계

층의 지향과 요구를 대변할수 있는 사상정신적품모와 의지가 체현되었을 때는 그 인물은 일정한 격을 가진것으로 될것이다.

장편소설 《조선의 봄》의 종교인 송신일목사의 형상은 이것을 뜻깊게 확인하고있다.

송신일은 해방전부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감복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게 된 사람으로서 해방후 장군님의 정책을 지지옹호하였지만 아직 혁명적세계관이 서있지 못한데로부터 토지개혁과 같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앞에 두고 지주와 농민이 서로 의종게 해결하는 방도를 찾을수 없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하고있다.

작품은 놀부가 징벌을 받는데 대해서는 만민이 공감한다고 하신 장군님의 비유를 통해 지주토지몰수의 당위성을 깨달은후 그 진실을 농촌현실속에서 확인하고서야 그 정당성을 감수하는 송신일과의 관계속에서 종교인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토지개혁과 새 민주조선 건설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예술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송신일목사는 당시 우리 나라 현실에 살고있었던 평범한 종교인으로서 당시 종교인들의 지향과 이해관계를 대변하였으며 당의 새 민주조선 건설로선에 대한 종교인들의 립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격이 있는 송신일목사의 시점에서 토지개혁의 정당성이 밝혀짐으로써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품모와 업적이 더욱 부각되는것이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형상을 탐구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수령을 보좌하는 인물의 성격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산 모범으로 전형화하는것이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수령의 주위에 세워야 할 전형은 수령과 고락을 같이하는 충신의 전형이며 수령님께서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시는 충신의 전형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해방후편의 장편소설들에는 김책, 최현, 류경수 등 수많은 측근인물들이 등장하고있는데 그 모든 인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고락을 같이하는 충신의 전형으로 뚜렷한 개성으로 형상되고있다.

작품에 형상된 인물들은 개인의 행복과 영예우에 사회정치적생명을 올려놓고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단순히 령도자와 령도를 받는 대중의 관계로만 이해한것이 아니라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로 련결된 혈연적관계로 체득하였다. 그들이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주체형의 인간으로 공산주의투사 혁명가로 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주체사상의 진리를 그저 단순히 깨닫고 실천에 옮긴데 있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젖줄기와도 같이 주체의 혈통을 받아안고 수령님과 당에 의하여 육성되었다는것이며 수령님과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조직적관계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육친의 정,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관계이라는것이다

작품에 그려진 인물들은 수령과 자기들의 관계를 고락을 함께 나누는 혁명동지, 어버이와 자식간의 관계로 느끼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체현함으로써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했던것이다.

최현의 형상은 이것을 실증하고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어렵고 힘든것이라도 수행하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한다.

장군님의 명령을 5 시간이나 짊어땀가면서 흥정 하려드는 리승엽에게 《용서치 않을줄 아오! 그가 누구던지...다시한번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놓고 흥정하거나 한치라도 어기면 그자리에서 싸죽일테요...》라고 분노를 터뜨리는 최현의 형상은 품위 있는 인간적개성으로 격이 있게 그려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하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수령을 형상하는데서는 문학의 일반적인 창작원리를 지키면서 수령형상작품에 고유한 생리를 살려야 하는것만큼 일반작품을 쓸 때보다 더욱 정력적으로 탐구하고 깊이있게 사색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지성과 정서적체함을 그 위대한 인간 세계의 높이에 접근시키고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잘 살림으로써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수령형상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자.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작사 전동우, 작곡 김덕수, 편곡 강철호

1. 고요한 강물위에 불빛이 흐르네
 못잇을 추억을 안고 내 마음 설레네
 (후렴)
 끝없이 걷고싶어라 내 사랑 평양의 밤아
 지새지 말아다오 아름다운 평양의 밤아
2. 깨끗한 구슬땀을 내 여기 바치였네
 청춘의 푸른꿈도 여기서 꽃피웠네
 (후렴)
3. 위훈의 그 사연을 어이 다 말하랴
 래일을 속삭이며 이 밤은 깊어가네
 (후렴)

이 민 위 천

김종석

항용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서 교훈으로 삼을 문제이거나 지침으로 정한것을 가까운곳에 새겨두고 늘 거울처럼 마주보며 자기의 마음을 다잡군한다. 그것을 일명 좌우명이라 하겠다.

인간이 한생을 살아가는 길에 늘 기쁘고 즐거운 때만 있는것은 아니다. 실패와 우여곡절, 고난과 슬픔, 눈물을 뿌리는 설분에 잠길 때도 있고 생소한곳에서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도 있다. 오죽하면 인생행로는 파란만장의 길이라 했겠는가. 그럴 때면 누구든 체험으로 굳어진 생활의 진리, 인생의 총화로 얻은 좌우명을 되새기며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서 방도를 모색하군한다.

설날에 있는 일이다. 텔레비존을 마주하고 앉으니 지난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인민경제 여러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기록영화가 방영되었다.

옛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시를 찾으신 모습이 보이고 북부산간지대의 농사형편을 보아주시는 영상도 나올 때마다 나의 마음은 그저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구나 하는 감동에 젖을뿐이었다. 이때 여섯살짜이 딸애가 나를 뺨히 돌아보며 물었다.

《아버지, 대원수님은 힘드시지 않으실가?》

《영?!》

《저렇게 매일 산에두 가지구 바다에두 가지는데 말이야. 저기 가선 누구 만나시나?》

고운 눈을 울롱하니 울려뜨고 묻는 딸애의 물음 앞에 나는 한동안 입을 벌리지 못했다.

《누굴 만나시는가...》

《...》

《누굴 만나시겠니? 거야 우리 인민을 만나주시지?》

《인민? 인민은 또 누구나?》

《저기 텔레비존에 나오는 로동자아저씨구, 농장원아지미, 또 대학생오빠...》

《체 그럼 저 아저씨, 아지미들이 대원수님보다 켜나, 왜 대원수님께서 오라고 해서 만나지 않고 힘들게 찾아가서서 만나나.》

딸애의 엉뚱한 말에 놀라움과 한편 찌르르 젖어오는 감동이 있었다. 인민이 더 센가구, 왜 힘들게 찾아가 만나시는가구... 어찌 철없는 어린이의 물음이라고만 하랴. 어른들은 생각도 못하는 상상밖의 일을 아이들은 얼마나 곧바로 짚어 말하는가.

이 물음을 어찌 한두마디의 답변으로 대치하랴.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오늘 국내외에 널리 애독되

고있는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전서인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이 생각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머리글에 이렇게 쓰시었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혁명에 몸바쳐오시는 길에 움직일수 없는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 명문을 대하고보니 나의 가슴은 절로 숭엄한 생각에 벅차 오른다.

인민과 하늘, 옛글에도 하늘이라 함은 가장 신성시돼온 절대적이었고 최고권력의 높이로 숭상되어왔다. 인류의 려명기에 화산의 분출, 폭우, 지진 그 모든것을 소박한 원시신앙은 《하늘의 조화》로 묘사했다. 중세철학사를 놓고보아도 예수교나 이슬람교, 불교 등 그들이 내세우는 최고의 우상우에는 《하느님》 즉 하늘이 놓였다. 하늘은 이렇듯 권좌의 상징이요 최고의 신이다. 하기에 려대 봉건황제들과 제왕들은 자기를 칭하여 하늘의 아들, 즉 《천자》라 하였고 형목을 따질 때도 《하늘의 벌》을 가장 무서워하였다. 백성 역시 왕가물이 들고 전염병이 휩쓸 때면 《하늘이 노했다》고 빌었고 하늘을 우러러 자기의 심정을 하소연했다.

착취사회에서 이러한 하늘은 언제 한번 인민이라는 문구와 동격시되어본적이 없었고 또 천만부당한 일로 되어왔다. 과거력사로 다시 돌아가보자.

조선봉건왕조 오백년간의 봉건통치배들의 정치사를 수록한 천팔백여권을 헤아리는 방대한 **《조선봉건왕조실록》**에는 봉건제왕들의 《성덕》과 사대부들의 《충정》은 극구 찬양했어도 출신이 미천한 인민대중에 대하여서는 단 한줄도 올라있지 않다. 간혹 올랐다면 농민봉기군들을 《란민(란을 일으킨 백성)》이라고만 썼을뿐이다. 그 당시 임금이 되려는 왕세자들이 반드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독본처럼 공부하던 책인 **《자치통감》**에는 백성을 《검수》라고 표현했다. 물론 백성이 머리에 검은 두건을 둘렀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백성들의 머리엔 먹물만 가득했다는것으로 검자에 먹목자로 부수를 달아췄다. 노예제사회나 봉건사회에서 **《상놈》** 백성은 말하는 도구였고 인력에 불과했다. 근대사를 둘러봐도 산업 **《문명》**은 몇몇 자본가들에겐 황금덩이를 안겨주었어도 인민대중은 여전히 인간이하의 천대속에 헤매었다. 이러한 인민, 이러한 수난의

체험자들이 언제부터 자기의 존엄을 찾고 역사무대 위에 당당히 등장했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서 자신께서 우리 인민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된 때를 이렇게 회고하시였다.

《3. 1인민봉기는 나를 인민의 대오속에 세워주고 나의 망막에 우리 민족의 참다운 영상을 새겨준 첫 계기였다. 내 마음속에 우뢰가 되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던 독립만세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나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성을 두고 다함없는 자부심을 느끼곤하였다.》

여덟살 어린신 나이에 보통문가에서 올려퍼진 독립만세를 높이 부르며 자신께서 바로 인민의 아들임을 깨달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기실 때도 벌써 우리 수령님의 가슴속에는 인민에게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가 확고히 새겨져 뜻을 멀리에, 높은곳에 정하시였다. 하기에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던 초시기 일부 사람들이 일제의 백만관동군과 상대로 싸우자면 국가적후방이 필요하다고 할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국가적후방을 바라겠는가. 우리에게는 인민이 후방이고 인민이 국가이며 인민이 정규군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전민이 병사가 되어 싸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 참으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시는 이러한 좌우명을 새겨안으셨기에 난관이 겹겹이 막아나설 때마다 제일먼저 우리 인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다.

인민의 목소리를 들을수만 있다면 탈곡장의 구름노전우에도 허물없이 앉으시고, 밭머리와 비내리는 산골길, 항구와 막장 그 어디에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수령님...

인민의 행복을 위한 팔십평생, 인민을 찾아 쉬임없이 걷고 걸으시는 길에 언제나 마음 편한 휴식을 드린 일이 있으며 맑고 푸른 하늘만을 펼쳐드린 일 있었던가.

우리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쉬임없이 걷고 걸으신다. 이제는 한두번만 찾은 고장이 아니고 얼굴까지 환히 익힌 인민들이건만 그들의 허물없는 목소리를 들으셔야만 기쁨으로 되시고 즐거움으로 되시는 우리 수령님이시다.

이민위천-인민을 하늘같이 여기시기에 인민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의 념원을 헤아리시는 우리 수령님이시다.

아, 하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내세우는 정치는 인민의 정치, 그이 세우시려는 무릉도원, 지상천국은 인민의 나라, 인민이 제일인 세상이다. 그 리상 《이민위천》의 사상이 현실로 꽃피난것이 바로 우리 조국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이다. 나는 딸애에게 이 모든것을 다 말해주고싶었다.

나의 집 창가에 피는 꽃

안창만

하늘 높이 솟은 나의 집 창가에

사랑하는 꽃

아름다운 꽃

김정일화 피었네

창가에 비끼는 해돋이 노을이

이제는 이 꽃에 빛을 주려 오는듯

잠을 깬 못새들의 지저귀조차

이제는 이 꽃 하나를 노래부르는듯

이 꽃이 피니 아이들도 기특해졌네

형과 동생 저마끔 뒤질세라

앞다투어 화분에 주는 물은

만경대 웅달샘에서 길어온 물

안해도 나도 이제는 아침마다

이 꽃을 눈에 새기며 집을 나서고

들끓는 일터 성실한 노동의 순간순간

이 꽃은 마음속에 함께 있고

보람찬 하루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 꽃아래 모여앉은 내 집 식구들

티끌의 가책도 없이 이 꽃을 바라보는

뿔뿔한 그 얼굴, 웃는 그 얼굴이 좋구나

한가정엔 대대로 물려오는 유물이 있고

그 집이 지켜오는 가풍이 있다면

우리 집의 유물은 붉게 된 충성의 이 꽃

우리 집의 가풍은 이 꽃처럼 순결하게 사는것

만약 집을 떠나 멀리

초소에 간대도 이역에 간대도

아들아, 딸아, 이 꽃을 마음에 안고가거라

이 꽃을 가슴깊이 안고 살거라

김일성동지를 노래합니다

호세 안토니오 페노리오

만경대 가난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끝없는 조국애 지니시고
인민의 자유 위해 싸워오신 수령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김일성 동지를 노래합니다

위대한 수령님 령도를 받는
영웅의 나라 조선
천리마의 기세로 달리는
조선인민을 자랑합니다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김일성 동지를 노래합니다

소리높이 노래합니다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
위대한 벗 조선인민
영원히 함께 가고 싶습니다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김일성 동지를 노래합니다

(필자는 니까라과작곡가임)

최고사령관 김정일원수이시여

까르멜로 가르시아 페르난데스

붉게 타는 노을은
강산을 물들이고
인자하신 그 미소
강산을 비칩니다

진달래꽃향기
싱그러운 과일향기
상쾌한 아바나의 이 아침
당신의 위대성 소리높이 자랑합니다

강철의 령장
최고사령관이시여
조선은 분렬의 고통 겪고있으나
당신의 영명한 향도따라

통일의 날은 앞당겨올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여
당신의 환한 미소
우리를 밝게 비쳐
세계인민들 앞을 다투며
당신의 넓은 품으로 달려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당신의 존함 길이 빛내이며
건군절의 아침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필자는 꾸바시인임)

제주도 진주소개

옛날에 탐라국으로 불리우던 제주도는 바다에 명줄을 걸고사는 해녀들이 많은 고장으로 소문이 높다.

해녀들은 제주에서 시작하여 바다기슭을 따라 섬을 한바퀴 돌아오는 《일주도로》근방에 밀집하여 살고있다.

이곳 주민의 95%가 제주도 3대도로의 하나인 《일주도로》 주변의 바다가에서 살고있다는 그네들의 생활이 바다와 얼마나 깊은 연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히 짐작할만하다.

북제주군 하도리도 두산봉과 지미봉사이를 꿰질러 북으로 뺀 《일주도로》에서 동쪽으로 10리 채 못미치는곳에 자리잡고있는데 여기에는 탄실이라는 젊은 해녀가 살고있었다.

탄실이네는 대대로 해녀였다. 어머니도 해녀였고 할머니도 해녀였으며 언니와 동생들 역시 해녀들이었다.

그들의 생활은 매우 비참하였다.

전등도 없는 돌담에 가리운 움갈은 집아닌 집에서 마실 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살아가고있었다.

게다가 일은 참으로 고되였다.

제주도에 있는 1만명 해녀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탄실이네도 12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을 내놓고는 내내 물속에 들어가 하루 13~14시간의 고된 일을 하여야 하였다.

《언제야 **김일성** 장군님의 정치를 받으며 이북처럼 잘살날이 오겠는지?》

할머니는 생활이 고달플 때마다 늘 이런 말을 되뇌우곤하였다.

《할머니! **김일성** 장군님은 어떤분이시나요?》

어릴적에 탄실이가 이렇게 물으면 할머니는 그를 무릎우에 앉혀놓고 백두산에서 일본놈과 싸워 나라를 찾아주신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옛말처럼 들려주곤하였다.

할머니는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있었다.

《축지법》 이야기며 장군별 이야기 그리고 《승천입지》 이야기도 알고있었다.

탄실이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통하여 **김일성** 장군님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다. 그리고 장군님께서 싸우신 백두산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있었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있었다.

할머니는 말하기를 백두산과 한나산은 한지맥이라고 했다. 백두산천지에 물이 불으면 한나산 백록담에 그늘이 덮인다고 하였다.

한나산도 백두산의 한자드락이라는것이였다.

어려서부터 늘 들어와서 그런지 탄실이에게는 백두산이 매우 가까이 있는것으로 여겨졌다.

탄실이 할머니는 일제시기 왜놈들의 간악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일으킨 해녀들의 폭동에도 참가하였다.

1932년 1월 7일 하도리에서 시작된 해녀들의 투쟁은 제주도 전지역을 휩쓸었고 조선력사에는 제주도 해녀폭동으로 크게 기록되어있다.

할머니는 이 투쟁의 앞장에서 싸웠다.

탄실이는 이런 할머니를 몹시 존경하였고 무척 따랐다. 그런데 할머니는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몇해전에는 어머니마저 우도앞바다에서 전복을 따다가 전쟁연습을 한다고 쏘아대는 어뢰에 맞아 시신마저 찾지 못하게 되었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 맏딸로 태어난 탄실이는 병약한 아버지와 어린 세 동생을 돌보는데 자기 한생을 고스란히 바치였다.

그리하여 세 동생은 이미 결혼을 시켜 세간을 내였으나 탄실이만은 서른이 훨씬 넘도록 시집도 못가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었다.

탄실이는 집을 나간 동생들도 늘 극진히 돌봐주어 마을에서는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본토에서 전복과 해삼을 사러 온 장사군들에게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북에서는 **김일성** 장군님의 뜻을 이으신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께서 나라의 정사를 맡아보신다는것이였다.

그분께서는 신기한 지휘봉을 지니고계시는데 그 봉을 한번 드시면 어둠속에서 해매는 사람들의 앞길이 환히 열리고 천만산악도 길을 비킨다고 하였다.

탄실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전에 할머니가 하던 말을 되새겨보았다. 백두산장군별옆에 새별이 또 하나 나타나 국운이 열릴 조짐이라고 하더니 과연 그 별이 틀림이 없구나 하고 탄실이는 생각하였다.

그후 며칠이 지난 어느날 저녁이였다.

탄실이가 바다에서 돌아오니 둘째동생이 언제왔는지 집에서 자기를 반겨맞아주었다.

젊은 아버지를 문안하러 찾아왔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실은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온것이였다.

동생은 안주머니에 깊이 간수한 종이장을 하나 꺼내주면서 다짜고짜로 거기에 써여진 글을 읽으라고 하였다.

《아니 이게 뭐냐? 무엇인지 알고나 읽자꾸나.》

《어서 읽으라는데요. 읽으면 다 알아요.》

종이장을 펴보니 거기엔 한편의 《모음가》가 적혀있었다.

탄실이는 동생의 말대로 무작정 그것을 읽었다.

아-아침해 빛나는 저 멀리 백두산

야-야밤에 눈부신 주체의 큰별님

어-어둠에 짓눌린 캄캄한 이 땅에

여-여명을 부르며 찬란히 빛나네

오-오늘은 향도의 그 빛발 우러러

요-요원의 불길로 파초를 부시네

우-우리는 가련다 충성의 한길로

유-유난히 빛나는 향도성 따라서

으-으뜸의 내 조국 영원히 빛내며

이-이 세상 끝까지 충성을 다하자

《모음가》를 다 읽은 탄실이는 동생에게 물었다.

《참 좋은 시로구나. 이 시가 어디서 났니?》

《언니, 이 모음가는 지금 본토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슴에 품고다니며 애송하고있대요. 그리고 노래로도 부른대요. 이 시만 외우면 그 무엇도 무섭지 않구 힘이 막 솟는대요. 나도 이 시를 읽었더니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달려온 참이예요.》

《정말 그렇구나. 〈모음가〉를 읽으니 막 힘이 솟는다.》

탄실이는 《모음가》를 한번 더 읽었다.

《주체의 큰별님!》

그는 입속으로 다시 한번 외웠다.

그날부터 탄실이는 그 《모음가》를 가슴속에 품고다니며 읽기도 하고 노래로도 불렀다.

그 《모음가》를 배우니 탄실이는 가슴속에 태양을 안은듯 앞이 환해졌다. 그는 해녀의 고달픈 생활속에서도 늘 희망에 넘쳐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세해가 지나갔다. 그러나 그 어느 한순간도 그 《모음가》를 잊은 적이 없었다.

피로울 때도 슬플 때도 그 《모음가》를 부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새힘을 얻곤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동백꽃이 활짝 핀 봄날이었다.

이날도 탄실이는 어느때와 다름없이 《어업조합》의 다른 해녀들과 같이 바다물속에 들어가 전복을 따고있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바다물속에서 번쩍 빛을 뿌렸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탄실이는 그리로 헤엄쳐갔다. 그는 바위틈사리에서 커다란 진주조개를 발견하였다.

밥사발뚜껑만한 진주조개는 입을 넓적거릴 때 마다 조가비안에서 밝은 빛을 내뿜고있었다.

탄실이는 하도 신기하여 그 진주조개를 집어 들고 물밖으로 나왔다.

진주조개는 조가비안에 밤알만한 진주를 품고 있었다.

《야! -》

그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탄실이는 희귀한 진주조개를 그 누구도 모르게 치마폭에 감추어가지고 집으로 갔다.

아버지에게 보이니 난생처음 보는것이라고 하면서 희한해하시였다.

《정말 귀한것이로구나! 》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글쎄.》

너무도 뜻밖에 귀한것을 얻었는지라 아버지도 어리둥절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탄실이는 진주조개를 두고 이리저리 생각을 굴러보았다.

조가비안의 진주는 빨간 진주인데다가 보통진주와는 다르게 어방없이 커서 보석상이 알면 뭉치돈을 줄것은 뻔한 일이었다.

탄실은 진주를 팔아 빛을 지고사는 가난한 살림에 보태여줄까 하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다 이내 머리를 흔들었다. 귀한 진주를 그렇게 쓰고싶지 않았던것이다.

탄실이는 갑자기 무릎을 쳤다.

(옳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 드리자!)

향도의 별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어두운 남녘땅을 환히 비쳐주시는 통일의 구성이신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께 진주조개를 드리리라 결심하였다.

탄실이는 아버지에게 자기 의향을 말씀드렸다.

《네가 참 훌륭한 생각을 했구나. 앞으로 그의 백성으로 몇몇이 살려면 우리의 성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

아버지의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을 굳힌 탄실이는 진주조개를 귀히 간수했다.

그날밤 잠자리에 든 그는 흥분에 떠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탄실이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인즉 하늘에서 류달리 큰별이 밝은 빛을 뿌리다가 가뭇없이 사라지는것이였다. 잠시후 하늘에서 한점의 구름장이 땅아래로 날아내려왔다. 그 구름장은 탄실이가 서있는 하도리바다가 모래불로 곧추 내려왔다.

눈이 휘둥그레진 탄실이는 그 구름장을 자세히 보았다. 그랬더니 그것은 구름장이 아니라 날개달린 하얀 룡마였다. 그 룡마우엔 한 장수가 타고있었다.

모래불우에 룡마가 날아내리자 장수가 훌쩍 뛰여내렸다.

장수는 탄실이를 향해 곧바로 걸어왔다. 장수의 온몸에서는 별빛처럼 밝고 눈부신 빛이 해살처럼 퍼져나오고있었다.

눈을 비비고 보니 젊은분이었는데 순식간에 사로잡는 신비로운 인력에 끌려 그는 저도 모르게 그 장수를 우러러보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탄실이를 보자 젊은분은 밝게 웃으시었다. 그분이 웃음을 웃으시자 백사장은 해쑈는 아침처럼 환해졌다.

《얼마나 고생하오. 조금만 더 참으시오. 이제 우리 나라가 통일되어 백두와 한나가 하나로 이어질 날이 멀지 않아 반드시 올것이요. 나에게 주겠다는 진주조개는 바다에 놓아주시오. 진주를 더 크게 키워 조국이 하나로 되는 날 통일연회상에 올려놓아 위대한 장군님께 드립시다.》

그이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고 자애로움이 넘치었다.

《아, 김정일 선생님!》

탄실이는 무릎을 꿇고앉아 그이께 깊숙이 머리 숙여 절을 올렸다.

한참만에 머리를 들어보니 그분은 어디에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다.

탄실이는 아쉬운 마음으로 둘러보았다. 저 멀리 밤하늘로 흰 룡마가 날아오르는것이였다.

얼마후 룡마도 안개에서 사라지고 밤하늘엔 류달리 큰 별이 솟아 밝은 빛을 뿌리는것이였다.

《항도성이로구나!》

탄실이는 그이께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못해 안타까와하다가 잠을 깨고말았다.

꿈에서 깨어나니 그지없이 아쉬웠고 마음이 허전하였다. 《주사야몽》이라고 낮에 생각한것을 밤에 꿈을 꾸다 하지만 탄실이는 그 꿈이 그저 범상한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하늘이 준 계시거나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께서 직접 이르신 분부이라고 생각되였다.

새벽에 일어난 탄실이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지난밤에 꾸 꿈이야기를 하였다.

《그 꿈이 그저 범상한 꿈이 아닌것 같다. 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 조개를 바다에 가져다놓으라.》

탄실이는 그길로 진주조개를 가지고 바다로 나갔다.

그는 누구도 모르게 바다속으로 헤엄쳐 들어가 깊은 바위굴안에 가져다놓았다.

탄실이는 그날부터 늘 그 진주조개에 마음을 썼다. 미역이나 전복을 따거나 조개를 잡을 때 째만 있으면 남모르게 진주조개가 있는 바위굴속에 들어가보곤하였다.

진주조개는 참으로 신기하였다.

탄실이가 가볼 때마다 부쩍부쩍 자라 놀랄만치 커지곤하였는데 한해가 지나서는 커다란 솔뚜껑만 해졌다. 조가비안의 홍진주는 주먹만큼 커졌다.

아버지도 동생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라와하면서 기뻐하였다.

그런데 어느새 그 소문은 한입전너 두입전너 온 마을에 퍼지고 름근마을에 퍼져가더니 제주도안에 소문이 파다해졌다.

지어는 본토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희귀한 진주조개를 구경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중엔 속에 검은 생각을 품고오는자들도 더러 있었다. 그자들은 현대적인 잠수복을 입고 하도리 앞바다와 우도기슭의 바다속을 살살이 뒤졌다. 그러다가 도적놈들끼리 맞붙어 싸워 개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누구도 그 진주조개를 찾지 못했고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오래동안 팔죽끓듯하던 진주조개이야기도 뜸해지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풍문도 돌았다. 하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으니 그럴법도 한 일이였다.

더우기 《어업조합》조합장과 경찰관 파출소소장이 짜고들어 탄실이에게 진주조개가 있는곳을 대라고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도 받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진주조개는 여전히 바위굴속에서 그대로 자라고있었다. 전보다 더 커져 한아름에 안을수가 없을만큼 되였다.

탄실이는 지금도 그 진주조개를 키우면서 조국이 통일되는 날만 학수고대하고있다고 한다.

명제해설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를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문학예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당, 문학예술행정기관, 문예총의 3 위 1 체의 원칙을 지키는것입니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명제는 문학예술건설에서 지켜야 할 지도방법, 지도원칙에 관한 명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는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여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체계이다.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를 구현하는것은 우선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는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만 보장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식 창작지도체계인것이다.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또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이 자기의 성격과 사명을 고수할수 있다.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또한 우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더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일반적으로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적인 문학예술을 건설하자면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문학예술부문에 남아있는 낡은 체계와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주체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분야에서는 지난 시기 당의 령도밑에 문학예술에 남아있던 개인독단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창작체계를 대담하게 마스고 새로운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마련될수 있었다.

1970 년대에는 1 년남짓한 기간에 세계를 경탄케 한 5 대혁명가극을 창조하였으며 최근에는 1 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다부작에설영화 《민족과 운명》 1 부~10 부까지를 창작완성하였다.

다부작에설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실천을 통해 우리는 창작사업에서 우리 식 창작지도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것을 알수 있다.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를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 문학예술행정기관, 문예총의 3 위 1 체의 원칙을 지키는것이다.

문학사업에서 3 위 1 체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문학예술지도사업과 창작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으며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도록 할수 있다.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를 구현하는데서 3 위 1 체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문화예술부를 비롯한 문학예술행정기관들과 문예총이 일심동체가 되어 잘 협의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적인 투쟁목표를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각기 자기 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동원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문예총과 작가동맹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문학사업도 하나의 사회적운동인것만큼 당의 지도밑에 문예총과 작가동맹이 주동이 되어 힘있게 조직전개해야 한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것은 작가들에 대한 교양사업과 그들의 문학창작사업에 대한 지도방조를 실속 있게 하는것이다.

그리고 창작지도를 행정실무화하여서도 안된다.

행정실무화는 문학사업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낳는 주되는 요인이며 문학운동을 억제하는 장애물로서 주체적창작지도체계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과 창작의욕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집체적지혜를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우리는 문학사업에서 3 위 1 체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당이 세워준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유산과 전통에 대한 주체적리해

신경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화론》**에서 현시기 민족문화유산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시여 민족문화유산의 본질과 그 계승발전의 필연성, 민족문화 유산과 전통의 관계 및 그 계승발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 등 유산문제전반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화론》**에서 밝히신 유산과 전통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주체적문제 사상과 리론을 새롭게 심화시키고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민족문화유산계승발전의 필연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민족과 문화유산,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 문제가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는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민족문화유산계승발전의 필연성에 대한 사상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민족문화유산을 옳바로 계승발전시켜나아가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주체적문화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주체적문화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민족문화유산을 옳바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문화예술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나서는것은 우선 사회주의적민족문화예술의 자체발전의 합법칙성과 관련된다.

어느 시대의 문학예술이든지 빈터우에서 발생 발전할수 없다.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다음 새롭게 건설하는 사회주의문학예술도 지난날에 이룩된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인것과 인민적인것을 계승한데 기초하여 혁신적으로 건설되는 문학예술이다.

문학예술의 일련의 형식과 수단들은 단꺼번에 창조되는것이 아니며 력사발전과정에서 창조되어온 형식과 수단들을 부단히 개작하고 보충, 완성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문학예술이 형상적형식을 취하는것만큼 형식과 수단에서 계승과 혁신의 부단한 련관과정을 취하면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적문

학예술 자체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민족문화유산을 옳바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주체적인 문학예술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나서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문학예술이다.

사회주의적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담은 문제는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워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원칙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민족문학예술형태로 존재하면서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대중의 정치문화생활에 적극 복무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이므로 그 내용에서 철저히 로동계급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일관되게 되며 또한 자기 나라 인민들의 정서와 비위에 맞을것을 요구하는 문학예술인것으로 하여 고유한 민족적형식을 취하게 된다. 문학예술은 혁명적이며 계급적인 내용을 그 나라 인민이 좋아하고 구미에 맞는 민족적형식에 담을 때에만 진실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갈수 있다.

민족문화유산을 옳바로 계승발전시켜나아가야 하는것은 또한 민족성을 견결히 고수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우리 시대는 주체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다.

오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전세계적 흐름으로 되고있는 때 민족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승패, 인민대중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매개 민족에게는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민족성과 그에 따르는 고유한 미감과 정서가 있다.

민족성은 모든 민족에게 있으나 서로 독특하게 구별되는 민족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그것은 매개 나라 인민의 생활양식과 언어, 관습, 세태풍속 같은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민족성을 살리는것이 매개 나라 인민의 심리와 정서, 생활양식과 언어, 풍습을 비롯하여 생활과정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것이기에때문에 민족성은 대체로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의 차이를 낳게 하며 자기 민족의 특성에 맞는 미관을 형성하게 된다.

민족의 형성과 력사발전 과정에 고유한 민족적특성과 민족적전통이 형성되고 공고화되며 또 그것

이 민족문화에 뚜렷이 반영되기때문에 민족문화에 술유산을 한마디로 형상적으로 반영된 민족성의 력사라고도 할수 있다. 따라서 민족성은 민족문화유산을 떠나서 견결히 고수될수 없으며 민족문화유산은 민족성을 지켜나가는데서 정신문화적바탕으로 된다고 할수 있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태도문제가 민족에 대한 령장문제에 귀착되는것은 량자가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고 또 유산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이 곧 민족적자존심과 민족제일주의의 중요한 표현으로서 매개 나라 인민의 민족성을 지키고 발양시켜나가게 하는 중요방도로 되기때문이다.

민족문화유산에는 매개 나라 인민들의 력사적인 생활과정에서 드러나는 민족적특성을 반영한 문화정서생활에서의 고유한 미관이 반영되어있기때문에 자기 민족문화유산을 흠시하고 배제하는것을 어느 민족이든지 좋아하지도, 허용하지도 않으며 또 그렇게 하는것은 반민족적행위로 된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허무주의는 사대주의를 낳으며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와 민족이 망하기때문에 자기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옳바로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민족적자존심과 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자기 인민들을 교양하고 민족성을 끝까지 지켜낼수 있다.

민족문화유산을 옳바로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다음으로 국토와 민족이 둘로 갈라진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외세에 의하여 국토와 민족이 둘로 갈라진 우리 나라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분렬주의자들의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범죄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이다.

민족이 하나이면 민족문화도 하나로 존재하며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민족공동의 념원이며 단일민족문화의 본성적요구이다.

그러나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피뢰도당을 비롯한 분렬주의자들은 나라와 민족이 일시적으로 둘로 갈라진것을 기화로 우리의 슬기롭고 유구한 민족문화유산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발악하고있다. 또한 썩어빠진 《양키문화》를 비롯한 반동적인 부르조아문화를 망탕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워 점점 원래의 체모습을 잃어가고있으며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양식과 왜색왜풍이 판을 쳐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잠먹고있다.

이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며 격분할 일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민족문화유산은 나라가 분렬되었다고 하여 둘로 갈라지는것이 아니며 그 누가 제멋대로 가른다고 하여 갈라지는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며 민족문화도 하나이다. 단일민족문화를 고수하려는것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한 우리 민족의 공통적인 사상감정이다. 그러므로 국토와 민족이 일시 둘로 갈라졌다고 하여 우리

민족문화유산을 둘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우리는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과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책동을 짓부시고 반만년의 오랜 력사를 거쳐 물려오는 귀중한 우리 민족문화유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그것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이 다같이 민족자주의 리념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막고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자면 모든 문제를 민족자주의 리념에 기초하여 옳게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국토와 민족이 일시적으로 량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적조건에서 우리가 정치, 경제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족문화건설분야에서도 민족자주리념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민족문화건설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자주리념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만 문학예술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물론이고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속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민족자주정책의 정당성과 그 빛나는 생활력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시키고 공감시킬수 있으며 우리 당이 제시한 조국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민족문화유산계승발전의 필연성에 대하여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한 해명을 주시면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문학예술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주시대의 기본요구와 우리 당의 민족자주로선과 관련된 중요한 정치적문제로 된다는것을 강조하시었다.

민족문화유산의 본질과 유산과 전통의 호상관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적내용에 대하여 정식화하시고 민족문화유산과 혁명적문화유산과의 호상관계문제를 독창적으로 해명하여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적내용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족문화유산은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이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을 그 본질로부터 내용적으로 여러가지로 갈라볼 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에는 후대들이 계속 이어받아야 할 것과 보존해두기만 할 것이 있으며 없애버려야 할 것도 있다. 여기서 이어받아야 할 유산이 바로 전통을 이룬다.**

민족문화유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속에서 창조된 혁명적문화유산도 있고 그 이전시기 선조들이 이룩한 고전문화유산도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족문화유산에는 후대들이 계속 이어받아야 할 것과 보존해두기만 할 것이 있으며 없애버려야 할 것도 있다. 그것은 민족문화유산자체가 지난 시기 인민들과 함께 여러 사회계층에 의해 창조된 조건에서 시대계급적인 제한성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족문화유산은 그 창조의 사회력사적시기와 창조자, 그 내용의 사회계급적 성격과 질적가치에 따라서 혁명적문화유산과 고전문화유산으로 가를 수 있다. 여기서 계속 이어받아야 할 유산이 전통으로 되는바 그 전통을 혁명적문화전통과 민족문화전통으로 갈라볼 수 있다.

혁명적문화유산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시기에 노동계급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창조된 혁명적재부이며 고전문화유산은 그 이전시기에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민족적재부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로작에서 중요하게 밝히신 사상리론은 민족문화유산과 혁명적문화유산 및 혁명적문학예술전통과의 호상관계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해명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조들이 이룩한 재부이든 혁명가들이 이룩한 재부이든 자기 민족에 의하여 마련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이라면 다 민족문화유산으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금까지 일부 사람들속에서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가지고있던 그릇된 견해와 관점을 바로잡아주시고 혁명적문화유산과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과의 련관속에서 볼데 대하여 깊이있게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심오한 사상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혁명적문화유산이 중요하다고 하여 그것을 민족문화유산의 범주에서 벗어난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였고 지어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과 계선짓는다고

하면서 유산과 전통이 아무런 련관이 없는것으로 갈라놓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상하좌우로 넓힌다고 하면서 과거 애국전통을 혁명전통으로 취급하고 실학과문학이나 《카프》문학도 우리 문학의 혁명전통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혁명전통이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모르는 몰상식한 견해이며 혁명전통을 오가잡탕으로 만들고 혁명전통을 이룩한 수령의 업적을 말아먹으려는 반동적인 꾀변인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전문화유산만 민족문화유산으로 보고 혁명적문화유산을 민족문화유산으로 보지 않는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혁명적문화유산을 민족문화유산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선조들이 이룩한 재부이든 혁명가들이 이룩한 재부이든 그것이 다 자기 민족에 의하여 마련되어 후대에 전해지는 자기 민족의 귀중한 재부이기때문이다.

민족문화유산이란 본질적으로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 전체를 의미하는것만큼 고전문화유산만 민족문화유산으로 보고 혁명적문화유산을 민족문화유산으로 보지 않는것은 리치에도 맞지 않는 매우 잘못된 견해이다.

혁명적문화유산은 민족문화유산의 테두리밖에 존재하는 별개의 개념인것이 아니라 그 범주안에서 론하게 되는 류종관계에 놓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문화유산을 민족문화유산밖의 별다른 개념으로 볼 수 없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도 민족문화유산속에서 보아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도 민족문화유산속에서 보아야 한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속에서 보는것은 과학적으로도 옳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지위를 높이는 의미에서도 합리적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말씀은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속에서 보아야 할 근거를 밝혀주고있는 지도적지침이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속에서 보아야 하는것은 우선 그것이 과학적리치에도 맞기때문이다.

노동계급의 혁명전통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그 어떤 다른 민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혁명전통은 원래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밑에 진행된 혁명투쟁의 전력사적행정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전풍부화되는것으로써 그것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그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로서 끝없이 귀중한 우리 민족의 혁명적재부이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속에서 보는것이 과학적진리성을 띠게 되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전통자체가 조선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에 의하여 마련된 전통이며 민족공동의 재부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조선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공산주의리념이 결코 민족적리념을 배제하지 않으며 공산주의자들의 리념은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함으로써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려는 민족적리념과 잇닿아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의 사람들의 생활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번영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이야말로 민족의 리념을 옹호고수하고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된다.

따라서 공산주의적리념에 기초한 혁명투쟁과정에 창조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이라고 하여 그것을 창조한 공산주의자들에게만 필요한 재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보아도 압담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들을 구원하고 조국광복과 민족의 자주적인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이끄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창조한것이기때문에 조선민족모두에게 필요한 재부일뿐아니라 조선민족이 대를 이어가며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더없이 귀중한 전민족적인 유산이다.

그러므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이 조선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에 의하여 마련된 전통이라는 의미에서 보나 조선민족모두에게 필요한 귀중한 민족공동의 재부라는 의미에서 보나 그것은 반드시 민족문화유산속에 포함시켜 보는것이 과학적으로도 옳은 것이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속에서 보아야 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지위를 높이는 의미에서 합리적이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속에 포함시켜본다고 하여 혁명

적문학예술전통의 가치와 의의가 왜소화되는것도 아니라고 명백히 가르쳐주시었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속에 포함시켜 그 구성부분으로 볼 때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가치와 의의는 더욱 높아질수 있다.

그것은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그 전통의 력사적지위와 가치를 전민족사적건지에서 옳게 평가할수 있으며 민족문화유산의 격도 높일수 있기때문이다. 또 그렇게 보아야 민족성원들이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가장 귀중한 민족적재부로,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적극 투쟁할수 있다.

사실 오늘 우리 민족문화유산속에 항일혁명문학예술과 같은 영광스러운 전통이 있다는것은 우리 민족문화유산의 높은 품격과 가치를 보여주는 참으로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고전문화유산과 함께 민족문화유산속에 포함시켜 단순히 구성부분으로만 보고 유산일반으로 대하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전통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라고 볼수 없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고전문화유산과 함께 민족문화유산의 구성부분으로 보되 민족문화유산속에서 그것을 과거의 민족문화유산과 계선을 명백히 긋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이 차지하는 위치와 가치를 옳바로 밝히고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문화유산을 고전문화유산으로만 보아도 안되지만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과거의 민족문화유산과 뒤섞어놓거나 민족문화유산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를 다른 유산과 평균주의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과거의 민족문화유산과 뒤섞어놓거나 그와 평균주의적으로 대하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훼손말살함으로써 그것을 이룩한 수령의 업적을 거세하려는 기회주의적인 반혁명적계책인것이다.

우리가 혁명적문학예술전통과 민족문화유산의 계선을 똑똑히 그을데 대하여 강조하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을 민족고전문화유산과 뒤섞어놓지 말고 그 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하기 위해서이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과거의 문화유산과 뒤섞어놓지 말고 또 평균주의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이 민족문화유산에서 핵, 중추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민족문화유산의 핵이며 중추이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이 민족문화유산의 핵이며 중추로 되는것은 우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이 질적내용에서 민족문화유산의 최고봉을 이루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수천년 민족사를 통하여 선조들이 마련해놓은 민족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검토총화하고 자주시대의 새로운 문학예술을 창조하는 과정에 이룩되었다. 그러므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조상대대로 창조하여온 민족문화유산의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모든 우수한 내용을 집대성하고있을뿐아니라 종래의 유산이 도달할 수 없었던 문학예술의 높은 경지를 개척한 가장 우수하고 혁명적인 민족문화유산이다.

그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에는 주제적문제 사상과 이론, 혁명적인 문학예술창조 경험과 업적, 혁명적인 문학예술창조기풍을 비롯하여 비상히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져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내용은 인류문화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주제적문제 사상과 이론은 인류문예사상사의 가장 높은 단계를 열어놓은 위대한 사상리론이며 민족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과학적 해명을 주는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이다. 그리고 일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는 류레없이 간고한 혈전의 환경속에서 문학예술을 혁명의 무기로, 문학예술창작을 혁명사업의 한부분으로 삼고 손에 총을 잡은 투사들 자신이 노래를 짓고 연극을 창조한 그 전투적인 창조기풍은 오늘 자주적인 민족문학예술을 건설하는 모든 창작가들의 귀중한 경험으로 된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비롯한 항일혁명문학예술작품과 우리 당의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소설들은 그 사상예술성과 인식교양적가치, 그 창작 경험과 업적에 있어서 종래의 민족문화유산이 오를수 없었던 최상의 높이를 개척하였으며 그것은 오늘 세계적으로 커다란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이처럼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그 질적내용에서 민족문화유산의 최고봉을 이루고있는 까닭에 민족문화유산에서 핵이며 중추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것이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이 민족문화유산의 핵이며 중추로 되는것은 또한 그 가치와 생활력에서도 민족문화유산의 최고봉을 이루기때문이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질적내용에서뿐만아니라 그 가치와 생활력에서도 과거의 민족문화유산과 엄밀히 구별된다.

혁명적문학예술은 그 내용의 심오성과 혁명성, 위대성으로 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서 비할데 없이 높은 가치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다.

그러나 민족고전문화유산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것이기기는 하지만 시대력사적으로 뒤떨어진 낡은 사회제도를 반영하여나온것이고 여러 계급, 계층에 의하여 창조된것만큼 시대적

급적제한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을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민족고전이라 하여도 그것은 반드시 오늘의 시대적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해나가야만 할 대상으로 되지만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주체적문학예술건설에서 명실공히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문화유산으로 된다. 따라서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본질에 있어서 주체적인 민족문학예술의 원형이며 그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만년초석으로 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과 전통문제에 대하여 심오하고 독창적인 해명을 주신것은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계승발전의 필연성과 민족문화유산의 본질, 민족문화유산과 혁명적문학예술전통과의 호상관계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유산과 전통에 대한 가장 정확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이 확립되게 되었으며 유산과 전통을 올바로 계승발전시켜 주체적문학예술을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꽃피워나갈수 있는 확고한 사상리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의 올바른 계승문제를 매개 나라에서의 민족문제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새롭게 결부시켜 밝혀주심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매개 나라에서 민족성을 견결히 지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또하나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번 로작에서 밝혀주신 유산과 전통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국토와 민족이 일시 분열된것을 기화로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고 발악하는 민족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책동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을 자랑하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과 전통을 철저히 보호하고 옹계 계승발전시키며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참으로 귀중한 사상리론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로작에서 밝히신 유산과 전통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은 그 리론실천적의의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공감과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대로 민족문화유산과 혁명적문학예술전통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끊임없이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개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시문학이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서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다하자면 서정성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서정의 나라를 펼쳐주시다

사람들은 격동적인것, 사변적인것, 환희로운것을 목격하거나 체험할 때마다 시적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시문학은 서정의 문학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시문학은 서정이 풍부하지 못하고 운율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환히 꿰뚫어 보신분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문학의 본성적 요구와 시가문학발전의 현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우리의 시문학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앙상하던 시문학의 가지우에 무성한 잎을 피워주시고 열매를 무르익혀주시는 자양이였고 빛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서정성이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시문학에서의 서정성이란 그것이 시문학을 가장 뚜렷이 특징짓게 하는 본질적인 성질로서 깊은 생활정서로 충만된 상태를 의미하는것이다.

시문학이 소설문학이나 극문학 등 다른 문학형태들과 구별되는 점의 하나가 바로 풍부한 서정성에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1972년 9월 6일말씀과 문학부문 지도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일찌기 우리의 서정시들이 강연제강이나 정치적구호를 해설한것처럼 딱딱하고 산문화된데 대하여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형상한 시를 쓰라고 하면 행복이란 단어를 넣지 않고는 쓰지 못하는것과 같이 극히 직선적으로 쓰는데 대하여 심각히 지적하시면서 서정성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으로 되는 풍부한 서정성은 단순한 정서가 아니라 당의 은덕아래 나날이 꽃피어나는 행복한 우리의 현실생활에서 환기된 정서로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풍부한 서정성이 시문학의 사상예술성을 특징짓는 고유한 요인

으로 될뿐아니라 시문학의 견인력을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형상의 힘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데 있으며 시에서 사상은 정서를 통해 흘러나와야 한다고 하시였다.

시형상의 힘이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데 있게 되는것은 시에서의 정서가 단순한 정서인것이 아니라 사상을 반영하고있는 정서이기때문이다.

이것은 사상이 정서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자기의 위력을 발휘한다는것을 말하며 사상이 흘러나오는 정서를 풍부히 담아야 시형상이 사람들을 공감시키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것을 말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은 풍부한 서정성은 시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기본담보이며 서정성을 높일 때에라야만 시가문학이 명실공히 시가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이 서정성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인들이 이에 대한 인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전국의 시인들을 한자리에 부르시여 시문학에서 서정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서정시창작에서 산문화를 극복하고 운율을 조성할데 대한 문제, 기타 시창작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설정하여 강습을 조직하고 연구토론회와 창작토론회를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시인들을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좋은 기회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시문학창작에서 도식과 류형을 극복하고 서정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현실을 깊이 체험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현실은 마를줄 모르는 서정의 저수지이다.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시간마다 기적과 혁신으로 수놓아지고있다.

그러니 이런 현실이 시인의 눈에 비쳐지고 시인의 심장에 느껴질 때 그들이 써낸 시에 어찌 피가 뛰지 않고 숨결이 맥박치지 않겠는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에는 도식과 유형이 있을수 없고 서정이 메마를수 없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인들을 현실속으로 불러주시었다.

온 나라의 시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수천척지하막장과 불꽃튀는 건설장으로, 풍어기 휘날리는 먼바다와 황금파도 설레이는 사회주의협동벌로 달려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인들이 쓴 시들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지도하여주시었다.

1977년 12월 어느날이었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보시던 일을 뒤로 미루시고 5편의 서정시를 친히 보아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서정시 《수령님 우러러 부르는 노래》, 《조국땅우에 밤은 깊어가도》, 《창밖엔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내 자란 사랑의 품이여》, 《만경화》를 한편한편 보아주시고 방송과 신문에 내보내도록 하여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우리의 시문학은 날이 갈수록 풍만한 서정의 나래를 펼치며 보다 높은 경지로 나래쳐올랐다.

1979년 3월 어느날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인들이 정성담아 써올린 두편의 서정시를 보아주시었다.

첫 시는 서정시 《나의 조국》이었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 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리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것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릿이 젖어드는것이냐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이 더없이 귀중함을 노래하면서 궁지높은 우리 조국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것을 풍만한 서정의 축적을 통해

여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감동적으로 토로한 시였다.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궁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그 이튿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해당 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었다.

그이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일군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다음 우리 조국을 노래한 두편의 서정시가 잘된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면서 그것을 당보에 내도록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특히 서정시 《나의 조국》은 조국을 노래하는데서 정치적표현을 많이 쓰면서 사상을 지내 로출시키던 지난 시기의 결합을 극복하고 시형상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이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통해 정서적으로 흘러넘치고있기때문에 사람들속에서 깊은 감동을 자아내며 인상에 오래 남는 좋은 시라고 하시었다.

하나의 물방울에서 온 우주를 들여다보듯이 풍만한 정서가 넘쳐흐르는 한편의 서정시에서 우리 시문학의 성장한 모습을 보시는듯 그리도 대견해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가슴후더움을 금할수 없었다.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며 좋은 시들을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사랑과 지도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인들이 써올린 장시와 서사시도 많은 시간을 내시여 보아주시고 눈부시게 발전하는 우리 시대, 날로 풍만해지는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감정과 정서에 맞게 시창작의 주제령역을 넓힐데 대하여 밝혀주시기도 하시었다.

1984년 11월 어느날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시인들은 생활적인 시, 짧은 시 5편을 써서 그이께 삼가 올렸다. 거기에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보람에 대한 생각을 담은 시들도 있었고 영광스러운 당의 해빛아래 꽃피나는 체고장의 자랑을 노래한 시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청년들의 사랑과 리상을 두고 후더운 심장을 터친 시도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끝없이 풍부하고 행복한 생활을 다양한 측면에서 꾸밈없이 노래하려는 시인들의 새로운 발견과

진지한 탐구의 흔적이 어린 시들을 일일이 보아주고 신문에 내도록 하여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생활적인 시와 노래를 많이 보급하면 청년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었다.

시 《금쪽처녀》, 《내 너밖에 몰라》, 《시와 인생》, 《삶에 대한 생각》, 《무산이라 철산은》 등 생활적인 시들이 출판물과 방송에 소개되자 청년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시인들은 이번에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1980년대 성격의 주도적인 감정, 시대정신을 격조높이 노래한 서정시들을 지어 또다시 그이께 올렸다.

1985년 6월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서정시 《우리는 배낭을 벗지 않으리》, 《당을 따라》, 《우리 가는 길》, 《내 마음》을 친히 읽어보시고 잘 썼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4편의 서정시를 모두 《로동신문》을 비롯한 출판물에 발표하게 하시고 시인들의 창작

작경험을 텔레비존으로 널리 소개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한량없는 사랑속에서 우리의 시문학은 서정의 나래를 활짝 펴 오늘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좋은 시들이 창작되자 자신의 로고에 대하여서는 모두 묻어두시고 시인들을 어버이수령님앞에 내세워주시는 더없는 영광을 베풀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전해에 창작된 시들과 이전에 쓴 시들중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실만한 시들을 묶어서 올려보내도록 하시면서 매 작품들에 시인의 이름과 소속기관까지 밝히도록 하시었다.

시인들은 그이의 말씀을 받들고 시선 《축원의 노래》를 묶어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올리였다.

우리의 시문학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아름다운 형상세계를 활짝 펼치고 우리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생활의 노래, 투쟁의 노래로 더욱 힘있게 복무할것이다.

나를 다시 세워달라!

박세일

나를 다시 세워달라

김일성 광장이여
그날의 그 열병대오에
이 몸을 세워달라

나는 다시 뵈고싶구나
섬광이 번뜩이는 그이의 영상
다시 듣고싶구나
퇴성을 치는듯한 그이의 음성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
그이의 사열을 다시 받고싶구나

그대로 이 지구를 한바퀴 돌며
위대한 장군의 병사 -나의 모습을
이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고싶었던
오, 가슴터질듯한 그날의 걱정이어

그날의 광장을 떠나왔다고
중대의 초소로 돌아왔다고

내 어찌 순간인들
마음속에 쉬엣구렁 내릴수 있으랴

《우로 봤!》 구렁에 따라
우러리뵈던 영광의 단상
거기에 내 삶의 기준점을 정하리

《영접받들어총!》 엄숙히
열병의 광장을 행진하던 그 자세
불구름 밀려와도 변함없으리

오 그러면
내 혹시 몸은 다시 못간다 해도
위훈의 넓은 살아
그 광장에 다시 들어설수 있으리라

통일의 향도성 **김정일** 장군의
만족하신 사열을 받을수 있으리라!

충성의 걸음을 더 크게...

리종렬

전쟁을 겪은 우리 세대의 동지들은 모든것을 일찌기 시작했고 일찌기 체험하였다. 원쑤와의 혈전도, 입당도, 죽음도, 사랑도...

우리련대의 련대장은 24 살이었지만 온 련대의 병사들로부터 《련대장아바이》로 불리우며 존경을 받았고 나의 짝패였던 저격수 방영걸은 적병 96 놈을 쏘아눕히고 19 살에 전사하였다.

나역시 례외가 아니었다.

나는 16 살에 인민군대에 입대하였고 18 살에 입당하였다.

1950 년 가을, 조국이 엄혹한 시련을 겪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였다. 나는 후퇴하는 인민군부대를 따라 북부내륙지방의 깊은 후방으로 들어갔으며 한 산간읍 학교마당에서 군인선서를 하고 보충을 수여받았다.

그때 신병들을 보충받아 재편성된 우리 부대는 인민들에게 인민군대의 규률성과 불패의 전투력을 시위하며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기 위하여 매일 중대별로 엇바꾸어가며 대렬합창을 우렁차게 부르면서 산간읍의 한산한 거리를 행진하였다.

지금도 눈을 감고 추억에 잠기면 아득한 40 여년전의 그 나날 산간읍의 거리를 진감하던 발구름 소리며 대렬합창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것 같다.

수류탄 헤이 감장대가리
미국놈만 보면 하하하하하

옆구리에 찬 수류탄이 적들만 보면 좋아서 웃어댄다는 노래였다. 투쟁의욕에 충만된 랑만적인 시절이었다.

그때 소년병인 나는 키가 작아 대렬의 제일 뒤 꼬리에서 따라가며 목청껏 수류탄의 노래를 불렀는데 보폭이 짧아서 조금만 채심하지 않으면 대오에서 두세걸음씩 떨어지곤하였다.

우리 분대장은 그것을 퇴치하려고 나한테 정보 훈련을 개별적으로 시켰다. 그는 정보로 걷는 나의 뒤를 따라오며 《하나 둘 하나 둘!》하고 힘차게 구령을 치다가는 이렇게 소리쳤다.

《보폭을 더 크게... 더 크게! 동무는 다리가 짧아서 행군에서도 락오자가 될수 있어. 행군을 못하

는 병사는 잘 싸울수 없어. 가슴을 쑥 내밀고 보폭을 더 크게! 더 크게! 하나 둘! 하나 둘!...》

분대장의 그 말은 잡념이 없었던 나의 뇌리에 투쟁의 진리처럼 깊이 새겨졌다.

아, 행군과 전투, 전투와 강행군으로 이어진 전쟁 3 년간이여! 걷는 강은 얼마였고 넘은 령은 얼마였던가. 명문고개, 아득령, 아호비령, 개잔령, 무산령, 직동령, 쌍두령, 단발령, 철령... 어느 령이나 강행군으로 넘었다.

나는 행군이 시작되면 대오에서 떨어질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들어 정신을 차리고 보폭이 크게 발을 내디디고 다리를 재게 놀리며 기운차게 걸었다. 행군길에서 키보다 큰 보총과 탄약과 식량이 든 배낭은 점점 더 무거워지며 천근무게로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앞에 고개길이나 령길이 나타나면 락오자로 될수 있다는 불안감에 초긴장이 되어 죽을 기운을 다 내여 걸음을 다그쳤다. 몸이 확확 달아오르고 목구멍에서 거북내가 뿜겨올랐다.

키가 구척같은 분대장은 자주 나의 곁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 이렇게 소리쳤다.

《김종렬이 용타! 장해!》

그는 웬일인지 나를 김종렬이라고 불렀다. 생사 운명이 판가리되는 전투를 앞둔 행군길에서 그것이 무슨 큰 문제랴. 이름이야 어떻게 불렀든 분대장의 그런 말은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나는 땀으로 미역을 감으며 걷고 또 걸었다.

나에게 있어서 전쟁은 힘겨운 행군의 련속이었으며 그 행군길은 소년병의 가슴에 하나의 인생관을 심어주고 제나름의 사고방법을 형성시켜준것 같다.

전화의 그날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제대되어 예비역군관, 작가로 된 다음에도 나는 청소년기에 습관되었던 병사의 생활감정과 사고방법에서 벗어날수 없었던것이다. 나에게는 인생행로도 작가의 창작과정도 험치 않은 행군길처럼 생각되었으며 힘겨운 창작과정은 개잔령이나 단발령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채심하여 온 정신력을 연소시켜 사색하고 탐구하지 않으면 락오자로 될수 있다는 불안감을 물리칠수 없었다. 작가동맹 함북도지부의 말석작가였던 나는 문학적지위로 보아도 작가대오의 말단병

사였다. 또한 도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의 협동농장마을에서 살고있어 지리적인 거리로도 수도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있는 문학전사였다. 게다가 창작기량도 변변치 못하여 남달리 채심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다리가 짧은 병사처럼 행군에서 락오자로 될수 있었다. 피타는 탐구와 사색, 환희에 넘친 창작로동으로 잠없는 밤이 계속되었다.

길이 잊지 못할 1975년 설날 도지부의 한 일군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정지간에 들어선 그는 반기여 일어선 나한테 숨이 턱에 닿아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동무에게 신년축하장을 보내주시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가 정중히 안겨주는 큰 봉투에서 년하장을 꺼내 펼쳐든 나는 《당중앙위원회 김정일》이라는 존함을 보자 숨이 멎는듯하였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무슨 존재라고...

우리 당의 령도자가 작가대오의 제일 말단병사인 나한테까지 어떻게 되어 이런 년하장을 보내주시는가... 그날 내가 받아안은 은정에 대한 소식은 삽시간에 온 농장마을을 들었다 놓았다. 마을사람들은 꼬리를 물고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꽃나이 처녀들도 년하장을 돌려가며 읽고는 친애하는 그이의 은정에 대하여 꾸밈없는 말들을 하였다. 눈물을 짓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참으로 그이의 사랑은 슬하에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진 자식에게 더 원심을 쓰는 친부모의 끝없는 애정과 같은것이였다. 그이의 포용력은 우주의 만유인력처럼 무궁한것이며 그이의 품은 시인들이 노래해온것처럼 바다와도 같이 넓은 것이였다.

그날 나는 농장원들과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축배의 술잔을 들었다.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벅찬 감격에 나는 눈물이 그렁해졌다. 나는 새인간으로 탄생한듯하였다. 나의 피는 정화되고 충성의 열정은 흥벽을 울리며 회오리쳤다. 그 열정을 쏟아부어 쓰고 또 썼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종자론과 공산주의인간학을 비롯한 주체적인 문예리론들과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을 령도하며 하신 강령적인 말씀들은 창작을 침체시킨 진부한 도식들을 짓부셔버리고 우리앞에 대담하고 혁신적인 창작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이께서 큰 작가들의 작품들과 함께 이 병사가 쓰는 작품의 경계문까지 보아주며 지도해주신 그 사랑은 작고 소심한 심장에 담력을 안겨주어 나의

마음을 문학적환상의 창공으로 자유롭게 날아오르게 하였다. 마침내 나는 사상과 정치, 예술의 천재인 거인의 손길에 이끌려 다른 모든 동료작가들과 함께 가장 보람찬 창작의 길을 걷고있으며 그 길에서 작가적인 보록이 나날이 커가고있다는것을 가슴 벅차게 느끼게 되었다.

40여년전 전화의 그날 한 성미 급한 보병분대장만이 이 병사의 걸음새에 원심을 써주었던 일을 회고하면 가슴이 궁지감과 영예감으로 한껏 부풀고 누리는 삶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만족스럽고 감미롭기만 하였다. 하지만 작가적인 능력과 담력의 부족과 의지의 박약으로 나는 창작의 길에서 한두번 난관과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때 나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초고에 우리 혁명과 국제당과의 관계, 위대한 장군님과 국제당과전원의 친분관계를 생활적인 화폭으로 전개하여 묘사했는데 그 문제가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여러가지 정치적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말썽많은 그 장면들을 아주 뽑아버리라고 충고하는 동무들도 있었다. 자신의 창작적구상이 허물어질수 있는 운명에 처하게 되자 나는 락망하여 의기소침해지고 기색마저 후줄근해졌다. 새로 쓰는 책에 새것이 없다면 3~4년의 긴장한 창작로동으로 생의 한부분을 연소시키면서 그런것을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불만까지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나 견문이 넓지 못하고 사상정치적인 분석도 예리하지 못하며 형상능력도 모자란 나로서는 아무리 고민하며 탐구를 거듭하며 사색하여도 해결방도와 출로를 찾아낼수 없었다.

그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 무명작가의 창작적고민과 창작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헤아려보시고는 천재적인 예지로 우리 혁명과 국제당과의 관계, 유격근거지에 찾아온 국제당파전원을 어떻게 형상할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명안을 밝히시여 그것을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명안에 찬동하시여 문건표지에 동의한다고 쓰시였다.

그것은 1981년 5월 4일에 있는 일이다.

당중앙위원회 해당 일군으로부터 그 문건을 받아안은 날 나는 가슴 더지도록 북받쳐오르는 감격과 흥분, 행복감을 누를길 없어 맥전나루근처의 대동강기슭을 끝없이 오르내리였다. 대동강의 물결은 해빛을 눈부시게 반사하며 흐르고 연두빛이 짙어가는 버들숲은 잎사귀들을 반짝이며 설레였다.

나는 생각하였다.

이 세상에 우리처럼 당과 수령의 깊은 관심과 사랑 속에 창작하는 작가들이 과연 있을것인가? 없다. 없다! 작가의 창작이 이처럼 중요시되고 작가의 사회적지위가 우리처럼 높은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한때 로씨야의 혁명시인 마야콥스끼는 레닌으로부터 한편의 손바닥만한 풍자시를 평가받은 것을 일생의 자랑으로 여긴 일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국제혁명의 중하를 지니고계시면서도 천금같은 시간을 내시어 비상한 독서력으로 수많은 장편소설들과 문학예술작품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치하와 함께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다. 이 영광, 이 행복을 무슨 말로 표현할것인가. 이 세상 어느 혁명의 수령이 혁명소설을 금보다도 더 값비싸다고 하며 문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던가!

정령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품속에서 보람찬 창작생활을 누리는 우리 조선의 작가들처럼 행복한 작가들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의 자애로운 스승일뿐아니라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이시고 육체적생명의 구원자이시다.

우리 문학예술인대오속을 더듬어보아도 그이의 은정깊은 손길에 의하여 정치적생명을 되찾고 소생하였거나 불치의 병으로 사경에 이르렀다가 구원된 전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재능있는 시인 김철이 풍파많은 자기 한생의 체험을 총화하여 우리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어머니... 나는 그 품을 떠나 못산다고 격조높이 웨친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나의 한생 역시 순편하지 않았다. 나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정치적생명을 보호받으며 창작생활을 계속 해오는 문필전사이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나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여주시었을뿐아니라 금년 1월 6일에는 당에 기쁨보다도 심려를 더 끼쳐드린 이 무명작가를 고무 격려하시려고 친필서한까지 보내주시었다.

한없는 애정과 신뢰를 담아 활달한 필치로 영원히 당과 함께 충실히 복무하기를 바라신다고 쓰신 친필의 구절구절을 읽던 나는 터져오르는 오열을 참을길 없었다.

40여년전 전화의 그날 분대장까지도 이름을 헛갈려 부를만큼 막돌처럼 모란데가 없던 소년병사가 당의 품속에서 혁명소설을 쓰는 작가로 자라나 오늘은 위대한 당의 령도자로부터 어떤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것인가. 그날 나한테는 조국의 하늘이 유난히도 푸르러 보이고 사람들이 전에 없이 정답게 느껴졌다.

밤이 왔다. 안해와 아이들은 자정이 넘도록 고매한 인덕의 령도자, 친애하는 그이의 친필을 눈물속에 읽고 또 읽었으며 육친의 마음과 사랑이 굽이쳐 흐른 위인의 필적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다가 존함을 부르며 목놓아 울었다.

나는 걱정에 못이겨 목이 메여 창가림을 열어제끼고 수도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우주공간의 별무리들이 그대로 내려앉아 눈부시게 반짝거리는듯한 저 멀리 광복거리와 락원거리의 불빛바다... 행복한 사연을 끝없이 속삭이는듯한 그 모든 불빛들이 나를 지켜보는것 같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품속에 안겨살아 우리모두의 정치적생명은 눈부시게 빛을 뿌리며 영생하는것이 아닌가. 우리는 영생의 별들이다.

나는 크나큰 행복감과 감사의 정에 목이 메여 자신의 량심에 명령하였다.

진심으로 보답하자. 충성의 걸음을 더 크게 더 크게!...

나를 보고 있소 !

리용수

처녀는 침대머리의 쪽걸상에 앉아 착잡한 눈길로 환자를 지켜보고있었다. 형광등빛이 밝은 치료실안의 흰 네벽과 흰 침대보, 니켈도금을 한 흰 점적대와 그리고 처녀가 입은 위생복의 흰빛으로 해서 환자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보이는듯싶었다. 한 점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현대리석같이 차고 무표정한 얼굴이다. 고통에 못이겨 한순간이라도 신음하거나 얼굴을 찡그린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쇼크상태였다. 산악을 횡단하면서 설설 뚫던 피의 소용돌이가 서서히 식어들며 각일각 바라지 않는 그 심연속으로 잦아들고있는지 모른다.

굳어진듯싶던 처녀의 속눈썹이 바르르 떨었다.

《선생님, 우리 중대장동문 꼭 살아야 합니다!》

소대장 우성만은 줄곧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초조한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았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퍼올릴 마술같은 힘이 이 순간엔 오직 뺨담한듯싶은 이 처녀의사에게 있다고만 믿는 그였다. 자신뿐 아니라 저 차디찬 밖에서 장작을 패여 치료실에 불을 때며 방안을 기웃거리는 병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기도 한것이다. 하지만 처녀는 피로한듯 약간 눈살을 찌프린 뺨담한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있을뿐이다.

가물거리는 생명을 무자비하게 토막쳐버리듯 땡! -하고 복도에서 새로 한시를 알리는 벽시계소리가 유난스레 크게 들려왔다. 처녀는 한순간 몸을 흠칫하며 컴컴하게 질려있는 우성만을 바라보았다.

십분전 병원문을 부서지게 두드리며 들이닥친 그들이었다.

가늘게 뛰는 맥박, 급격히 내려간 혈압... 심한 타박상으로 환자는 빈사상태였다. 캄파, 안나카...련속 주사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환자에게서 의학은 좌절당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기적 즉 환자자체의 정신력, 강의한 의지나, 융감성에 기대를 거는수밖에 없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점적병을 잠시 바라보던 처녀는 위생복주머니에 청진기를 넣으며 일어섰다.

《가망있나?》

그의 일손을 거들어주던 오십대의 간병원이 근심뻔 소리로 나직이 물었다. 간병원이 의사에게 반말질하는것이 이상스러웠다. 자그마한 리병원에서

어이팔이 같이 일할수는 없는것이고 아마도 앞뒤집에서 살지 않으면 모녀간처럼 자별한 사이인 모양이었다.

처녀는 대답대신 《좀 지켜주세요.》 하더니 의 사실로 나갔다. 걸음이 약간 비청거렸다. 몇분사이에 파도한 정력소모로 현훈증이 일어난것 같았다.

우성만은 사이문을 조용히 닫고 녀의사를 따라나갔다. 처녀는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밖에서는 병사들이 여전히 장작을 패서 아궁이에 밀어넣고있었다. 경비실에 들어가 몸을 녹이며 쉬라고 했으나 중대장과 더불어 밤을 새우는 그들이었다.

처녀는 지금 매우 심각한 피로움과 고민에 잠겨있었다. 하지만 우성만은 그것을 알수 없었다. 그것은 오직 처녀만이 간직하고있는 비밀이었다. 다만 집요하게 침묵을 지키고있는 녀의사의 태도로 보아 중대장의 상태가 그닥 낙관적이 못된다는것만을 느낀 성만이였다. 초조해난 그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절걱- 라이타 켜는 소리에 처녀가 고개를 돌리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성만은 문득 병원규정을 상기하고 담배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앉으세요.》

처녀는 그에게 자리를 권하고 책상에 마주앉았다. 처녀는 한동안 책상의 유리판 밑에 라틴어로 써놓은 약명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침착한 어조로 물었다.

《환자와 생활한지 오래가요?》

우성만은 녀의사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시간을 다루는 증상자를 두고 그런건 왜 묻느냐 하는 표정이였다.

《넉달째...아, 아니 십년이상은 더 살아온것 같이 느껴집니다.》

실무적으로 대꾸하던 성만은 갑자기 이상스레 흥분되는것을 느끼었다. 상대가 인간생명의 기사라는 직분때문이었다. 산골의 자그마한 병원에 있지만 어디라없이 도시풍의 세련된 몸가짐과 지성미가 엿보이면서도 말이 없고 뺨담해보이는 이 녀의사에게 참된 한 인간의 심장이 어떻게 고통쳐왔는가를

이야기해준다면 그 무슨 기적이라도 창조해낼지 뭐 알라.

우성만은 잠시 치료실안쪽에 귀를 기울이고있다가 갈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중대장동무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사람입니다. 비록 나이는 나보다 서너살아래이지만 나에게 지휘관의 참된 품성을 배워준 진실한 벗입니다. 그가 중대에 임명되어온 첫날이 생각나는군요.》

성만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중대는 그날 쉬는날이어서 이웃 고사포중대에 축구경기를 하러 갔습니다. 떠나기에 앞서 병사들은 나를 보고 같이 가자고 했으나 나는 웃으며 뿌리쳤습니다.

새 교육년도 전야이다보니 할일이 많은데다가 다음날엔 중대장이 새로 오므로 두루 준비할것이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건 다 구실이고 사실은 나이 갓서른을 넘겨가지고 《령감》티를 내면서 뛰기를 싫어했지요. 중대장은 군사대학에 가고 정치지도원도 강습가서 없는데다가 중대장대리를 한다는 1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그랬으니 병사들은 마치고 아버지없는 아이들처럼 서운한 얼굴로 떠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진 되었는데 뜻밖에도 새 중대장이 도착했다고 직일관이 뛰어와서 알렸습니다. 병실바닥 방열판주변에 금이 간것을 회려했고있던 나는 손을 닦으며 열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순민입니다.》

중대장동무가 먼저 미소를 띠우며 인사했습니다.

《허 이거 손이 어지러워나서...》

나는 황급히 중얼거리며 중대장을 맞이했습니다. 보통키에 짝 조인 혁띠, 칼칼해보이는 얼굴, 조용히 빛나는 두눈은 곧추 앞을 바라보고있었습니다.

《련대에서 쉬고 래일 온다고 했는데 ?!》

《네. 그래두 제집에서 쉬는게 편안하지요.》 하며 그는 싱긋 미소했습니다. 웃을 때 오른쪽 입귀에 덧이가 살짝 보였는데 마치 순진한 소년같았습니다. 《제집》이라고 하는 말에 나는 대뜸 십년지기처럼 중대장동무에게 정이 폭 들어 코를 어루만지며 히죽이 웃었습니다.

《중대는 축구경기하러 갔다지요?》

《네, 이젠 돌아올 때가 됐는데...》

내가 손목시계를 보며 중얼거리는데 《아, 저기 옵니다.》 하고 중대장이 정문을 가리켰습니다. 순간 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대렬을 짓긴 했지만 투덕투덕 걸어오는품이 매우 꼴기가 없어보였지요.

《진가보군.》

나직이 외우는 중대장의 눈섭밑으로 엷은 그늘이 스쳐지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중대는 불명에 스럽게도 2대 0으로 패한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 소대장동문 왜 안갔됐습니까? 숨쉴있는 문지기였었다던데...》

《허참, 그게 언제때 일이라구요. 할일도 많은데...》

병사시절에 사단 문지기로 《체육명수》라고 이름났던 나였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고왔는지 중대장이 섭섭한 어조로 상기시켜주자 병사들이 같이 가자고 조르던 일이 새삼스레 떠올라 경기에서 패한것이 마치도 나때문인것만 같아 먼구스러웠습니다.

병사들은 축 처진 기분으로 신입 중대장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중대장은 매 병사들을 조용히 빛나는 눈길로 한명한명 주의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중대가 점심밥을 먹고나자 중대장동문 사관장을 불렀습니다.

《사관장동무, 중대에 있는 악기들을 모두 가지고 곧 운동장에 모이시오.》

나는 경기에서 진 전사들의 기분을 군중무용이라도 해서 전환시키려나 생각하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지요.

십분후 중대는 북, 나팔, 손풍금 등 있는 악기들을 몽땅 가지고 모였습니다.

《동무들!》

중대장은 병사들을 조용한 눈길로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중대지휘관으로써 경기에서 패하고 중대의 명예를 훼손시킨 동무들을 용서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사포중대와 경기를 다시할것을 결심했습니다.》

병사들은 뜻밖인듯 모두 입을 항 벌리며 콧웃이 서있는 중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역시 아연한 눈길로 그를 보았지요.

경기란 이길수도 있고 질수도 있는것인데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승벽이 세기로서니 금방 끝내고 온것을 다시 하다니?! 나는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동문 결코 내가 생각한 그런 저속한 심리적자극때문에 반발한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반응은 각이했습니다. 머리를 끄덕이는 병사도 있었고 고개를 기웃거리는 전사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로한듯 폭신한 침대요가 있는 병실을 돌아보는 축들도 있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중대장동무는 땀짜게 구령쳤습니다.

《중대 우로 돌아! 목표 고사포중대운동장, 앞으로 갔?》

중대는 출발하였습니다. 중대장동무는 땀에 젖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담담한 눈길로 나를 곧바로 보며 말했지요.

《나는 공격을 하겠으니 1 소대장동무 문을 맡아 주시오.》

《매일 강행군을 하겠는데 병사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행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기가 저락된 병사에겐 십리도 천리처럼 멀어보이지요. 갑시다. 출전하는 병사들이 우리 지휘관들을 보고있습니다.》

새 중대장을 섬기기가 험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숨이 나갔습니다. 하는수없이 나도 《끌려》갔습니다.

고사포중대운동장은 조용하였습니다. 축구에서 이긴 만족에다 특식까지 푸짐히 먹고 자리에 누운 대원들을 돌아보고 병실을 나서던 꺾다리 고사포중대장은 나팔이랑 번쩍거리며 운동장에 들어서는 우리를 놀란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순민동무 아닌가?》

고사포중대장이 대뜸 우리 중대장을 보고 소리치며 달려와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새 잘 있었습니까? 철이 어머니랑...》

《응, 그저께 사단에 올라가 애길 들었네만 이오 집에 올줄은 몰랐군, 영?》

두사람은 껄껄 웃었습니다. 알고보니 그들은 같은 고등중학교 출신이었는데 고사포중대장은 우리 중대장보다 2년선배였습니다. 둘다 체육소조에 있었는데 우리 중대장은 탁구선수였고 고사포중대장은 축구선수였습니다.

《그때 영희동무한테선 소식이 없나?》

《그 말은 그만둡시다. 피차 단념한 문제인데...》

《참, 사람두...》

술술하게 끊어지는 두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대뜸 우리 중대장동무에게 무슨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영희라는 그 처녀는...아니, 그 이야기는 후에 합시다.

《자, 사무실로 가자구.》

《가만, 2 회전을 해야지요.》

《2 회전이라니?》

중대장동무의 팔을 잡아끌던 고사포중대장은 의아한 눈길로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니 축구가 무슨 탁구경기라고 회전경기를 한단 말이요?》

《왜요? 필요하다면 5 회전도 할수 있지요. 자, 이젠 그만 채우고 기상시키십시오.》

어깨를 으쓱하며 덤덤히 우리 중대장을 바라보던 그는 《중소.》하고 신호수를 찾더니 기상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낮빛이 불긋하게 상기된 품이 기분이 좀 나쁜듯했으나 학창시절의 체면을 봐서 참는것 같았습니다.

《또 지면 어떻게 한다? 여긴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곳도 아닌데...》

고사포중대장은 너그럽게 웃으며 이죽거렸습니다.

《두고보야지요.》하며 중대장동무는 조용히 미소했습니다.

곧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중대장동무에게 문은 넘려말라고 장담했습니다. 정작 경기장에 나서니 병사시절의 흥분이 저도 모르게 살아났지요.

운동장복판을 꿰지르며 맹활약하는 중대장동무가 유묘하게 두드러져보였습니다. 모두 하얀 스포링바람이었으나 중대장만은 아래에 긴 보위색내의를 입고 뛰었으니깐요. 땀이 나면 내의가 다리에 달라붙어 시끄러우니 벗으라고 했으나 웬일인지 당황해하며 머리젖던 그였습니다.

고사포중대장은 경기에 나오지 않고 틀을 차리고 앉아 《지도원》역할을 하고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총공격으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전반전에서 몇개 득점하여 우리의 넋을 뽑아보려고 한것 같았습니다. 후방이 텅빈 약점을 리용하여 중대장동무 교란작전을 벌렸습니다. 힘들게 방어하면서도 항시적으로 두명을 그곳에 매복시키고 때를 노렸지요.

전반전시간이 득점없이 흘러가던 마지막 5분을 앞둔 때 중대장동무 마침 잡은 공을 깊숙이 찔러넣었습니다. 배후에 있던 우리 두 선수는 짧은 연락으로 당황해하는 상대편 방어수를 쉽게 골려넘기고 통쾌하게 숫하였습니다. 풀이었지요.

와-복소리, 나팔소리 요란한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사기충천한 선수들과 병사들이 웃고 떠들며 단물을 마시는데 중대장동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위를 둘러보니 저만치 떨어진 백양나무뒤에서 얼씬거리는 그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단물병을 들고 얼른 그리로 갔습니다. 순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중대장동무의 오른쪽장판지에 주먹만한 종치가 텅텅 부어올랐는데 다쳤는지 피고름이 흘러내리고있었지요.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그제야 아래내의를 벗지 않고 경기에 참가한 중대장이 리해되었습니다. 만일 병사들이 중대장의 저 《부상》을 알게 되었다라면 그들의 심리가 어땠겠습니까? 중처를 감추고 뛰어다니느라니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그것을 모르고 중대장을 좀더 빨리 뛰라고 보챈 이 소대장이란 사람은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합니까?

《중대장동무, 그런 다리를 가지고 어찌자고...》

《쉴- 이젠 다 나왔습니다.》

싱긋 미소하는 입귀에서 덧이가 살짝 보였습니다. 그것이 더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위생...》

나는 위생지도원을 찾으려고 급히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중대장동무가 내 팔을 나누어채며 성냈습니다.

《왜 떠듭니까? 별치 않은걸 가지고... 병사들이 보겠습니다.》

중대장동무는 고름을 짖 짜버리고 나서 개인봉대를 꺼내 짖 동여맸습니다.

《갑시다. 전술을 다시 짜야지요. 고사포중대장이 이번엔 참가할겁니다.》

《아니 중대장동무 그만두시오.》

《그만두다니요?》

《내가 공격하겠습니다.》

《걱정말고 문이나 든든히 지켜주세요.》

《글쎄 안된다는데 왜 이럽니까?》

나는 벌떡 성을 냈습니다. 경기보다도 중대장동무의 다리가 걱정되었으니까요.

잠시 소소리높은 백양나무우듬지를 바라보던 중대장동무는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는가지는가 하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매 병사들이 자기를 알고 집단의 단합된 힘을 알게 되면 앞으로 그 어떤 어려운 군사적임무도 능히 수행할수 있다는 용기를 스스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 모두 피곤해하지만 나는 중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인 내가 이쯤한것에 주저 않는다면 중대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시다. 병사들이 우리를 보고있습니다.》

더는 그의 고집을 꺾을수 없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나다를가 상대측은 왼쪽날개인 중대장을 축으로 공격서열을 편성해가지고 첫시작부터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대장동무는 고사포중대장에게 우리 선수 두명을 붙여 손발을 얹어맸습니다. 하여 단독으로 속공을 하려는 시도가 매번 좌절되곤하였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어 23 분만인가 고사포중대장이 우측 날개에게 길게 연락해준 공이 유감스럽게도 우리 그물에 걸리고말았습니다. 나는 그때 문을 비우고 너무 나가있었습니다. 중대장동무의 다리때문에 그에게 자꾸 정신을 팔다보니 불의의 역습을 당한것이었습니다.

고사포친구들은 외짝 기세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중대장동무는 자기 위치에 서서 자그마한 당황함도 없이 선수들을 지휘하며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해나갔습니다.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측의 약한 고리(중대장이 우리 선수들에게 포위되어있으므로)인 왼쪽옆구리를 불의에 담새기군하였습니다. 그것이 성공하여 우리는 점수를 잃은지 7 분만에 보기 좋게 득점할수 있었습니다. 경기는 한층 더 팽팽한 분위기를 띠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에서 얼마 남지 않은 후반전시간을 두고 꼴을 더 넣으면 방어에 총력량을 집중하면서 시간을 끄는것이 상례이지만 중대장동무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측이 정신차릴새없이 실점당한 초조한 심리를 더욱 불안하게 자극하며 연속적이고 드세찬 공격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여 심판이 입에 호르래기를 붙며 시간을 보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중대장동무가 머리받기로 한꼴 더 넣는것으로 3 대 1로 보기 좋게 이겼지요.

사기가 충천한 병사들이 와- 달려들어 중대장의 목이며 팔이며 허리를 그러안고 나딩굴었습니다.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1 등한들 이보다 더 기뻐했습니까! 고사포선수들은 멍하니 굳어진채 서서 입맛을 켜썩 다시였습니다. 그러고보면 오전에 승리한 기쁨에 도취되어 잔뜩 포식하고 누웠던 잠에서 아직 덜 깬것 같았습니다. 중대장동무는 운동장 복판에 쓰임을 다시며 앉아있는 고사포중대장에게 한수 더 뒀습니다.

《철이한테 줄 축구공을 하나 얻어왔는데 다음번 쉬는날에 가져오지요.》

그리고는 뺨 돌아서서 구령했습니다.

《중대- 모였!》

중대는 순식간에 병렬대형으로 정렬하였습니다.

《목표 병설.》

소대장들이 대렬앞에 나섰습니다.

《1 소대순서로 앞으로 갔!》

척척척...

누군가 힘찬 목소리로 선창을 뽐습니다.

언제나 친근한 우리의 령장

진두에 높이 모셨네

...

쟁쟁 지축을 울리는 발구름소리, 씩씩한 대렬함창... 고사포중대군인사택의 아낙네들이며 조무래기들이 울롱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허를 찔렀습니다. (참, 그날저녁 집으로 퇴근한 고사포중대장을 비롯한 군관들은 아낙네들이 밤도 짓지 않고 어찌나 야단을 쳤는지 쨍쨍매며 빌다가 하는수없이 모두 제손으로 밥을 지어먹었습니다. 허허허.)

병사들은 목청을 더욱 돋구었습니다. 그들이 기쁨에 들떠 노래부를 때 중대장동무의 바지가팽이는 피에 젖고있었습니다. 부임되어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중대장동무는 그날의 그 걸음으로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 서서 꾸준하게 중대를 이끌어왔습니다.

땡 땡! 벽시계가 두점을 쳤다.

우성만은 이야기를 끊고 긴장한 눈길로 녀익사를 바라보았다. 처녀 역시 우성만을 주시했다. 한순간 두사람은 유난스레 뚜렷한 벽시계소리를 꺼져가던 주순민의 심장의 박동소리로 착각했는지도 모른다.

《잠간만.》

급히 일어난 처녀는 치료실로 들어갔다. 죽은듯이 누워있는 환자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였다. 한

치녀의사가 밥솥을 하며 소생시키기 위해 그토록 애쓰고있던 무감각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삶과 죽음의 경계선위에 떠있었다.

맥박과 혈압을 재보고난 치녀는 캄과 한대를 주사하고나서 의사실로 다시 나왔다.

《차도가 있습니까?》

《아직 ...》

치녀는 말끝을 흐리며 지친듯 의자에 앉았다.

해빛이 쨍쨍한 먼길을 달려온듯 피로와 수심이 어린 눈가에 어딘가 모르게 초조한 심리조차 비낀듯싶었다. 그것은 주순민의 기약없는 운명에 대한 불안으로 우성만의 가슴을 더욱 옥죄이는것이였다.

치녀는 말없이 우성만을 쳐다보았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듯한 표정, 그랬다. 이야기를 계속하라는 암시인것이다. 혹시 치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습하는 피로와 보다는 이시각 의사의 무능을 비웃을수 있는 환자의 야속한 운명에 대한 위구와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모대기고있는지도 모른다. 하여 우성만은 서둘러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달이 밝고 대기가 무척 쌀쌀한 초겨울 밤, 우중충한 숲속을 벌겍게 비치며 모닥불이 타고르고있었습니다.

행군에 지친 병사들은 천막속에서 혼곤히 잠들었는데 중대장동무와 나는 령마루로 올라오는 오솔길어귀에 불을 피워놓고 2분대장을 기다리고있었지요. 중대장동무는 달빛에 강줄기가 흰피오리같이 반짝이며 흐르는 산아래를 굽어보며 묵묵히 서있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불가에 주저앉은 나역시 뼈금뼈금 담배를 태우며 이글거리는 불무지만 주시할 뿐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기분이 좋지 않아 될수록 눈길이 마주치기를 저어하는 우리였습니다. 무슨 말이든 있어야 어색버섯한 분위기가 깨지겠는데 중대장동무는 집요하게 침묵이였습니다.

내쪽에서 이젠 들어가 쉬라고 말을 꺼내도 《괜찮습니다.》하는 단마디뿐 화제를 더 끌어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뽕담하다고 해야 할지, 융통성이 없다고 해야 할지 그때까지도 감피를 잡을수 없는 중대장동무였습니다. 적게 말하고 적게 웃으면서 부하들에 대한 요구성은 지나칠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것으로써 다감하고 자유분방한 병사들과의 교제에서 마찰이 생길까봐 가슴조이는 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만은 짙고 땀뻑 소리를 친 중대장이였습니다.

숙영지에 도착하여 천막을 치는 한편 저녁밥을 짓는 병사들을 돌아보던 중대장은 2분대장에게 은식전사가 왜 보이지 않는가고 물었습니다. 분대장은 나와 중대장을 번갈아보더니 고개를 수그렸습니다.

《중대장동무, 내가 그를 중대로 보냈습니다.》

은식전사는 얼마전에 원산에서 갓 입대한 젊은 병사였습니다. 규정 학습도 잘하고 기계체조도 일정

하게 하는데 먼 행군에선 주력이 딸리는 단거리선수였습니다. 새벽에 시작된 행군이 점심시간을 넘기자부터 돌맹이를 걷어차며 털썩털썩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는 《1 소대 행군간격 보장하라!》 《속도빨리!》하는 중대장의 구령이 입과 입들을 거쳐 련속 날아왔습니다. 구대원들이 그에게서 총을 벗겨가고 배낭을 벗겨가고했으나 입을 벌린채 흐릿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데 당장 무슨 일이 날것만 같았습니다.

행군을 하기 전날 군관모임에서 중대장동무가 젊은 병사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참가시킬데 대하여 엄격한 지시가 있었으므로 나는 눈을 꼭 감고 못본체했으나 더는 모르쇠할수 없었습니다. 하여 분대장에게 중대로 되돌려 보내라고 지시했지요. 물론 전사는 당장 주저앉을판인데도 버티었지만...

자초지종을 들은 중대장의 눈에 뻥뻥한 빛이 스치었습니다.

《전사가 제발로 선뜻 돌아섰소?》

《아닙니다. 그냥 행군하겠다고...》

2분대장의 대답에 중대장은 한순간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단 말이야. 2분대장동무, 곧 떠나시오.(그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은식동무를 데리고 스톨네시까지 도착하시오. 기다리겠소.》

순간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차게 들렸던지 나는 속이 썩늘해졌습니다. 금방 먼길을 행군해온 사람을 다시 보내다니?! 생각해보십시오. 설사 그 전사를 데려다가 이번 행군길에 참가시킨다고 당장 마라손선수처럼 되는 기적이라도 일어나겠습니까? 그도 이들과 함께 수년세월 군사복무를 하느라면 스스로 키가 자랄게 아닙니까!

나는 대뜸 속이 울컥하였습니다.

《밤이라도...》

《시간이 없습니다. 은식동무가 우리와 더 멀리 떨어질수 있습니다.

자, 가면서 먹소.》

중대장은 야전가방에서 자기의 몫으로 차례전 건빵을 꺼내 2분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2분대장은 활기있게 거수경례를 붙이고 돌아섰습니다.

《아니, 2분대장동무, 차라리 내가, 내가 가겠소.》

나는 불만을 가까스로 누르며 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대장동무!》

나직하나 땀뻑 소리가 채찍처럼 귀전에 울렸습니다. 나는 핵 돌아섰습니다.

《소대장동지, 격정마십시오. 제격 갔다오겠습니다.》

2분대장은 싱긋 웃어보이며 이웃 중대에라도 다녀올듯 가벼운 걸음으로 령을 내렸습니다. 나는

2분대장이 사라진 산아래를 바라보며 영성한 떨기 나무가지들 우드득 꺾어주었습니다. 중대장동무의 노여움비낀 조용한 눈길이 나를 지켜보고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기다리는 시간과 함께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던것입니다...

《내 지나간 이야기를 한마디 할가요?》

굳어진듯 서있던 중대장동무가 뜻밖에도 불무지결에 다가와 앉으며 혼연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집요하게 침묵하고있던 그였던지라 나는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임명되어온날 저녁 잠자리에서 고사포중대장이 말하던 영희란 처녀가 누구인가 물었지요?》

그랬습니다. 그날밤 나는 퇴근하지 않고 중대장동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물었겠지요. 그때 중대장동문 차차 알게 될거라고 하면서 쓸쓸한 미소를 지어보였을뿐이었습니다.

《그 처녀는 나의 애인이었습니다. 얼마전까지 나는 그가 배반한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를 배반하였습시다.》

《? ...》

피로운듯 어금이를 꼭 무는 그의 얼굴에 고뇌의 빛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실련의 고배를 마신 사나이의 얼굴을 마주 대하기란 피로운것이어서 나는 묵묵히 담배를 태우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백두산기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발이 장엄했지요. 허허... 1년전 소대장을 할때 나는 병사들과 함께 량강도혁명전적지답사를 갔었습니다.

어느날인가 백두산람승을 앞두고 우리는 철창에 답사는 평양의학대학졸업반처녀들과 함께 오락회를 하게 되었지요. 노래와 개인 장끼들이 몇순배 돌아가자 어느 친구가 귀뜸을 했는지 지명당한 처녀가 저희네 소대장(학급장)과 나를 불러내어 2중창을 시키는게 아니겠습니까! 마주 서보니 낮이 익더군요. 노래를 부르고나서 통성을 했는데 우리는 입대전에 동대원구역의 한아파트에서 살았더군요. 참, 인연이란... 다음부터 편지가 자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동문 그해에 대학을 졸업하고 적십자병원 외과의사로 배치받았습니다. 많은 편지들가운데서 나는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였지요. 처녀 역시 그것을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뜻밖에도 집에 휴가갔던 고사포중대장이 눈물에 얼룩진 처녀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너에게는 이미 내가 절찍 어른 인물 잘 나고 전도유망한 외교일군감 청년이 있으니 판 생각을 말아. > 하니 이를 어쩌면 좋은가고 하소연했더군요. 나에겐 대뜸 배반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리기적이고 타산적인 아버지의 강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속맥, 시대

에 뒤떨어진 애정관을 가진 녀자...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주저없이 회답했습니다. <사랑이란 매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한 독자적인 생활의 운전과 같은 것이다. 그 운전대를 동문 남에게 맡긴 신세인데 길이 험한 이 산속보다도 그 청년이 끄는대로 열대의 야자수그늘밑이나 북극의 백야속으로 가보시오... > 그리고나서 단념해버렸습니다. 스스로 따라올 처녀도 많은데 하필이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 동요하는 녀자를 억지로 끌고갈 재미가 있겠는가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얼마후 처녀에게서 나 자신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하는 편지가 한통 날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중대장동무는 웃주머니에서 접은 자리에 보풀이 인 편지 한장을 꺼내 나에게 주었습니다.

《...인간이란 목적이 아니기때문에 때로는 주저와 동요라는 감정도 체험하게 되는것이 아닐가요? 그렇다고 저는 자신에 대해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자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녀성들이 가정을 이루면 누구를 쳐다보고 사는가요? 사회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앞선 사람이 뒤진 사람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는것이 우리 인간들사이의 고상한 미덕이고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무섭군요. 그렇게 쉽게 저버리는 사람과 함께 일생을 걸어가려고 한 자신이...

동문 지휘관으로서 자기가 교육교양하고있는 병사들속에서도 나처럼 뒤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저버리겠나요? ...》

《결국 나는 애인을 잃었지만 귀중한 교훈을 찾았습니다.

사랑이란 서로 부족한것은 보충해주고 지치면 이끌어주어 인간을 부단히 완성시키는 생의 철학이라는것을 말이지요. 그것은 비단 남녀간의 애정뿐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느꼈습니다.》

달빛 깔린 우중충한 산밭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중대장동무의 얼굴에는 깊은 회오와 가슴아픈 자책의 그림자가 비껴있었습니다. 실련의 쓰린 상처를 오히려 자신의 인간미를 완성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솟구쳐오른 성실한 사람, 나약과 주저를 모르고 언제나 실천적모범으로 중대를 전투력이 강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병사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사람...

그를 대하고보니 맑은 거울앞에 선것처럼 자신이 추하고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개인생활에서나 군사적무수행에서나 나는 이처럼 성실하고 책임성 있었던가? 손자들의 비위나 어리광을 받아주는 할아버지처럼 《사람좋은》인간으로 그시그시 살아오지 않았던가!

《소대장동무, 만약 은식이와 같은 병사들이 천혈육처럼 생각된다면 힘때일수록 엄격해주시요. 손이 차도 심장만 뜨거우면 됩니다. 과연 그들의 부

모형제들이 누구를 보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참된 전사로 키워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나나 소대장동무, 우리 지휘관들이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2 분대장도 먼길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대장동무! ...》

나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중대장동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영희동무한테선 그후 소식이 더 없습니까?》

《... 없군요...》

《이제 있겠지요. 두고보십시오. 그 처녀 중대장동무외엔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겁니다.》

《그렇가요?!》

중대장동무는 조용히 미소했습니다.

《아, 오늘밤은 참 좋은 밤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즐겁게 담소하며 앉아있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 2 분대장과 은식이이 나타났습니다. 중대장을 보는 순간 은식의 눈엔 대뜸 물기가 펴 고이는듯싶었습니다. 자기가 짐이 되는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이끌어주는 중대장이 한없이 고마웠던것입니다. 중대장동문 불가에 그들과 함께 앉아 늦은 저녁을 들면서 나직이 이야기했습니다.

《은식이, 동무나 나, 우리모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새 세대 병사요. 우리는 앞으로 그이를 모시고 참으로 먼길을 가야 하오. 그길에서 힘이 진해 때론 동무가 먼저 주저앉을수도 있고 또 내가 주저앉을수도 있소. 그때마다 우리는 조국통일에 대하여 그처럼 심려하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명심하고 서로 부축하고 이끌어주며 끝까지 가자구. 그래야 인생을 깨곳이 부끄럼없이 살았다고 할수 있지.》

나는 저런 관점과 립장에서 병사들을 책임지고 일해왔던가? 과연 전사들이 나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으며 어떻게 사색하고 행동했는가?

행군때면 드문치 있군하던 범상한 일을 두고 새롭게 벌어진 그날밤의 일에서 나는 또다시 자신을 돌이켜보고 귀중한 교훈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대장동무를 리해하는 빙산일각에 지나지 않았습니...

쌍방훈련때 《적》 군사기지습격전투에서 그가 발휘한 실천적모범은 병사들로 하여금 당에서 제시한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를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진실한 화폭이였습니다.

중대는 새벽에 함박알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이른봄이라 기온이 몹시 찻습니다. 대오에 휴식구령을 내린 중대장동문 군관들을 데리고 지형정찰을 나갔습니다. 《적》 군사기지는 건너편 산가운데의 폐계속에 있었습니다. 갱도입구에 두대의 탐조등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겹겹이 둘러쳤는데 쌍보초까지

세웠습니다. 갱도로 오르는 45 도가량되는 경사지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없는 뽕뽕한 잔버럭산이였습니다. 중대의 임무는 밤 0 시까지 바로 그 기지를 날려보내고 《적》 지점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차후임무를 수행하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다박속 들성한 룡선에 엮드려 쌍안경으로 대상을 주의깊게 살피였습니다. 뽕뽕한 저 경사지를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또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없는 조건에서 위장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고? ...

론의가 분분하였습니다. 훈련이란것을 고려함없이 대상을 지나친 악조건에다 선정했다느니 습격당시 자칫하면 병사들이 허양 굴러떨어져 사고를 낼수 있겠다느니 그런가 하면 습격방도문제에선 저격으로 투광등을 까버리고 일시에 돌격하여 점령하는 무모한 제안이 나오기도 하고 현재 차지한 위치에서 《적》 대상물근방에 바줄을 늘이고 수류탄 묶음을 던져 기지를 까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대장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있던 중대장동문 나직하나 무게있는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휘관동무들, 우리는 훈련에 앞서 언제나 명심할 한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입니다.

실지 전투환경이라면 적들은 아마 이보다 더한 조건에서 진지를 굴설했을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상급참모부의 의도대로 대상물에 은밀히 접근하여 감쪽같이 해제껴야 합니다. 훈련인데 에누리 가 좀 있을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하는것은 결국 군인정신, 전투정신이 희박한 표현입니다. 어려울때일수록 병사들이 우리 지휘관들의 얼굴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명심합시다. 지휘관의 얼굴을 보고 병사들은 용감해질수도 있고 비겁해질수도 있는것입니다!》

중대장동무는 습격방안들을 연구해가지고 낮 12 시에 다시 모일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습관적으로 옷에 묻은 흙과 검 부래기를 터는데 중대장동무의 낮빛이 갑자기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외투에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흙알갱이와 잔돌부스럭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그의 눈에 한순간 불꽃같은것이 번뜩이였습니다.

급히 중대장감시소로 돌아온 그는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그우에 주먹만한 돌로부터 밤툼만한 돌맹이에 이르기까지 가득 퍼놓았습니다. 시간이 얼마간 지나자 중대장동문 수건을 들고 털었습니다. 하지만 뽕뽕 얼어붙은 돌맹이들은 좀체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그대로의 위장을...) 중대장동무는 흥분된 어조로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기발한, 오직 훈련을 실천의 원칙에서서 진행하려는 중대장동무만이 생각해낼수 있는 착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서운 육체적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이문이 열리더니 간병원이 내다보았다. 《접적이 끝났다.》

두사람은 얼른 치료실안으로 들어갔다.

주순민은 여전히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얼굴에 홍조가 약간 핀듯했으나 의식은 차리지 못하고있었다.

처녀는 점적바늘을 뽑고나서 맥박과 혈압을 다시금 재본 다음 감마론을 주사했다. 실무적인 모든 동작을 처녀는 정확하고 섬세하게 진행하였다.

희망이 보이는지 아니면 우성만의 이야기에서 그 어떤 감흥을 느꼈는지 차고 굳던 표정이 좀 풀린듯싶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더니 《좀 기다려야겠어요.》 하며 의사실로 나갔다.

(그러니 호전될 가망이 있다는건가?)

우성만의 가슴은 느닷없이 두근거렸다.

《계속하시죠?》

치료실에 귀를 강구고있는 성만을 보며 처녀가 말했다. 어찌보면 환자의 운명보다 현재까지 걸어진 그의 생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듯싶은 처녀였다.

우성만은 은근히 기본이 거슬렸으나 시작한 이야기를 그만둘수도 없고 더우기 의사에겐 환자가 상하게 된 경위가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도 있는지라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중대장동무를 비롯한 6명의 기습조가 조직되었습니다. 날이 어둡자 중대는 소대별로 은밀히 약진하여 《적》 고지의 아래기슭에 접근하여 전투전개를 끝냈습니다.

기습조는 2명씩 조를 나누어 고지의 정면과 양익측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흠뻑 적신 겨울모자와 솜의투탄등에 주먹만한 돌멩이들을 촘촘히 열구어 붙인 《돌멩이웃》으로 위장했었습니다.

어둠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중대장동무의 모습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앞서 기습조를 조직할 때 나는 내가 책임지고 나가겠다고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동무는 단호히 잘라버렸지요.

《안됩니다. 1 소대장동무 나 1 대리인으로써 중대를 지휘해야 합니다. 또 병사시절에 난 이곳에서 훈련한적이 여러번 있으므로 지형에 누구보다 밝습니다.》

살을 에이는듯한 북방의 차고 매운 바람이 뽕뽕 불어왔습니다. 산너머 어데선가 먼 기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소대장동무의 권고를 따르는수밖에 없군요. 내 이번 전투가 끝나면 영희동무에게 사죄편지를 쓸가하는데 어떻습니까?》

떠나기에 앞서 기습조책임문제때문에 어지간히 잡쳐버린 나의 기분을 능쳐주려고 싱긋 미소짓던 중대장동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과연 이 시각 처녀는 무엇을 하고있을까? 하루일의 피곤을 풀며 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명상적인 음악을 감상하고있는지 아니면 따스한 잠자리에 누워 소설책이나 보고있지 않는지. 가슴아픈 실련의 상처를 한점 온기도 없는 소가죽같이 찢찢한 언 《돌멩이웃》 속에 얼음처럼 안은채 이 엄동의 밤에 사랑하던 사람이 한치한치 《적》 진지를 향해 기어오르고있는것을 상상이나 할수 있을까? ...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습니다.

《적》들의 투광등은 고지의 경사면을 대낮처럼 비치었습니다. 탈외투를 입고도 추운듯 웅송그린 《적》 쌍보초들이 오락가락하며 고지아래를 살폈습니다.

나는 숨소리마저 죽이고 가장 위험한 고지의 정면으로 오르고있는 중대장과 은식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위장이 철저히여 꼭 돌무지같이 보이는 그들은 안타까울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고있었습니다. 돌멩이라도 굴러 소리가 나는 때엔 만사가 골장이니까요. 으스스 오한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럴진대 언웃을 입고 고지로 숨막히는 긴장감을 누르며 오르는 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뼈를 에이는 추위가 뜨거운 피를 점점 식히며 온몸을 그대로 땅에 얼켜 붙이는듯했습니다. 한치한치 힘겹게 언 버럭잡에 손가락을 박으며 오르던 중대장동무와 기습조원들이 더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획- 붙어닥치는 돌풍에 중대장동무가 그만 통나무처럼 사정없이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흘러드는 찜찜한 피냄새를 느끼고 서야 환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훈련인데 과연 꼭 저렇게 해야만 하는가, 좀더 험한 방법을 택할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전투마당에 서있다. 병사들은 바로 지휘관의 얼굴을 보고 이 전투에서 용감해질수도 있고 비겁해질수도 있는것이다. -하는 동요와 결단성의 량립될수 없는 두 감정이 마음속에서 골풀이질하며 싸웠습니다.

나는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눈에 초롱불을 켜대고 중대장동무와 기습조가 움직이는 《적》 고지를 지켜보고있었습니다. 사위엔 다치면 터질듯한 전투적긴장이 팽팽하게 서려올랐습니다.

장하다, 병사들! - 그들보다 내 마음속에 먼저 내리는 말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철갑속에 들어앉은것처럼 든든하고 혼혼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중대장동무쪽에서 우리쪽을 향해 빨간 전지불빛이 세번 깜빡거렸습니다. 무사히 《적》들의 턱밑에 이른것입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며 나직이 돌격준비구령을 내렸습니다.

우측 기습조에서 유인했는지 《적》 쌍보초가 그쪽으로 돌아서자 중대장동무는 번개같이 뛰어오르며 그들을 《처치》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탁! 투광등이 꺼져버렸습니다. 나는 중대돌격구령을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소리없는 환성을 지르며 고지를 향해 치달아올랐습니다. 갱도문이 열리고 《적》 전투기재들은 통쾌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드디어 밤의 산야를 흔들며 우렁찬 만세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푸른 공간을 썰며 중대장동무가 쓴 세발의 푸른 신호탄이 날아올랐습니다. 지휘부에 임무를 수행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잠시후 중대는 《ㄸ》 지점으로 행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오의 맨 앞장에서 걷는 중대장동무가 웬 일인지 자꾸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급히 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디 아릅니까?》

《아니요.》

중대장동무는 미소하며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렇게 《ㄸ》 지점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중대장동무는 대렬에서 물러서더니 나에게 대오를 인솔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속에서도 알릴 정도로 하얗게 질려있었습니다.

《안되겠습니다.》

내가 위생지도원을 찾으려고 돌아서는데 《가만.》 하며 중대장동무가 팔을 당기었습니다.

《소동을 피우지 마시오. 병사들이 봅니다.》

행군대오가 다 지나가자 그는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빨리...행군을 계속하십시오.》 하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급히 소리치자 위생지도원과 소대장들이 달려왔습니다. 전지를 켜 나는 중대장동무의 손에 쥐여져있는 빈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선 《전투》에서 심한 타박상을 입은 중대장동무였습니다. 고지에 오르는 순간 흔들거리던 커다란 바위돌이 굴면서 은식전사에게 덮쳐들었는데 바로 그찰나 전사를 구원하려고 한몸을 들이댔던 것입니다.

백번도 쓰러질수 있는 몸이었으나 그는 빈침으로 허벅다리를 찢러 가물거리는 의식과 싸우면서 행군대오를 이끌어왔습니다.

위생지도원은 초조한 기색으로 빨리 가까운 병원에 호송해야겠다고 했습니다. 2 소대장에게 《ㄸ》 지점으로 행군을 계속하라고 이른 나는 급히 병사용비옷으로 들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보이는 여기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선생, 과연 그렇게 의지가 굳센 사람도 쓰러질수 있는가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

우성만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처녀역시 까딱않고 책상우의 한점을 응시할뿐... 침묵이 흘렀다. 문득 침묵을 깨뜨리며 치료실문이 열리더니 간병원이 《애》 하고 찾았다. 환자가 의식을 차린것이다.

《중대장동무...》

우성만이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아, 소대장동무. 내가 어떻게 여길...그렇게 괴곤했는가.》

어쭙게 웃는 그의 입귀에서 뺨뺨이 반짝했다. 불빛이 시그러운듯 눈시울을 가늘게 떨며 방안을 둘러본 주순민은 다시 눈을 감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소대장동무, 빨리 갑시다.》

《아니 안됩니다. 중대장동무...》

《빨리 가야 합니다. 병사들이 지금 우리를... 나를 보고있습니다. 대오에 지휘관이 없으면...》

주순민은 눈을 뜨더니 안간힘을 쓰며 일어나 앉았다. 너의사가 입술을 깨물며 창문쪽으로 돌아섰다.

《고맙습니다. 의사선생 ...

소대장동무 빨리 갑시다. 그러지 않아도 너무 지체했습니다.》

그의 성미를 잘 알고있는 우성만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급히 밖에 있는 병사들을 찾았다. 병사들은 눈시울을 습쩍거리며 들것에 중대장을 눕히었다. 너의사와 간병원은 억이 막힌듯 강직된 사람처럼 서서 그저 보고만있었다.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사람일까 하는 의혹이 어려있었다.

병사들은 중대장을 조심히 들고 밖으로 나갔다.

《소대장동무! 》

갑자기 처녀가 다급한 목소리로 불렀다. 인사를 하고 나가던 우성만이 돌아섰다. 처녀의 커다란 눈과 입술이 바르르 떨고있었다. 처녀는 한걸음 다가서며 침착한 소리로 말했다.

《소대장동무. 제가 제가 그... 영희입니다.》

《예-에 ?! 》

우성만은 너무도 놀라 입을 딱 벌리며 굳어졌다.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는가? 그제야 처녀가 그토록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던 것이 이해되었다.

처녀의 몸이 갑자기 흐트러졌다.

《이모, 그이가 바로... 중대장동무예요.》

처녀는 간병원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끼을 터뜨렸다.

《원, 세상에...》 눈굽을 훔치던 간병원이 조카의 어깨를 쓸며 말했다.

《휴가를 받고 내가 보구싶어 저녁차에 왔다우. 밤근무를 같이 서면서 바로 저 사람 얘기를 하겠지.》

《이모, 난 어쩌면 좋아요. 네? 흑...》

《원. 애두 어찌긴? 이제라두 따라가야지. 저런 사람을 놔주고 누굴 쳐다보며 살겠냐. 정말 훌륭한 젊은이다.

미국놈들두 그래서 못덤벼들지…》

우성만은 눈을 슴뻑거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영희의 손을 으스스하게 잡았다가 놓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동녘이 푸름푸름 밝아왔다.

저기 산골길로 2 소대장이 달려오고있었다. 중대는 5시에 《ㄸ》지점에 도착하여 차후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던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2 소대장이었다. 중대장일행과 마주친 2 소대장은 대뜸 들것채를 잡고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중대장동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부대에 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이께선 우리 훈련을 첫 시작부터 지켜보고계셨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요 ! … 소대장동무, 나를 좀… 내려봐주시오.》

주순민의 눈귀에서 축축한것이 번쩍이었다. 우성만 역시 눈물이 그렁하여 도리질했다.

《안됩니다. 꽃방석인줄 알고 앉아있으시오.》

《아니, 저기 병사들이… 읍니다. 병사들이 나를 보고있습니다.》

우성만은 눈시울을 슴뻑거리며 조심스레 그를 내려놓았다. 주순민은 순식간에 확 달려든 병사들 속에 에워싸이고말았다.

해바라기꽃잎마냥 둥그렇게 원을 친 병사들속에서 주순민은 조용히 웃고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이런 중대장과 함께라면 불속에라도 뛰어들 용기가 어려있었다.

봄날의 꽃으로 피고있었네

문동식

봄날의 일요일

아름다운 유원지에 찾아온 어머니

해빛 내리는 폭신한 잔디위에

귀염둥이 아기를 눕히었네

머리위에 드리운 버드나무가지에선

고운청 뽑는 피쫄새의 노래소리

숲속에 고요히 흐르는 실바람은

감미로운 꽃향기 실어오네

봄빛으로 잔 융단위에 누운건가

엄마보고 방글방글 웃던 아기는

어느새 소곳이 단잠에 들고

어머니는 무르녹는 즐거움에 잠기네

아기의 꿈속에도 꽃배가 뜨라고

배그네는 웃음의 물결을 헤쳐가네

아기의 눈동자에 푸른 하늘 비끼라고

노래실고 비행선은 하늘을 날으네

보배둥이 더 높이 안아올리려

거리엔 화려한 새집들이 우줄우줄

아기를 불러주는 미래의 축복인듯

관성차는 은은한 경적소리 울리고…

엄마의 젖품이 아무리 정겨운들

봄날의 은혜에 어이 비길가

백년가도 못따르리

천년가도 못다갚으리

마음은 환희로 부풀어

아기를 굶어보며 웃던 어머니

정다운 손길로 잔디를 쓸어보며

꽃바다를 비껴담은 하늘을 바라보니

아, 가없는 하늘은 희망의 푸른 지붕

아득한 이 땅은 행복의 요람

크나큰 이 집에 넘치는 봄빛은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해빛

태양의 한품에 고스란히 안겨

유원지도 거리도 화창한 미래도

봄날의 꽃으로 피고있었네

아기도 어머니도 그 품에 안겨

세상만복을 누리고있었네

흐르는 세월속에...

리종성

4월의 봄명절을 눈앞에 둔 어느날이었다. 교외의 한 농촌에 취재차로 며칠간 나가있다가 시내로 돌아오던 나는 그새 눈에 띄게 달라진 거리의 모습에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내가 떠날 때만도 어디나 길가의 가로수로 심은 살구나무에 망울을 터칠듯싶은 통통한 봉오리들이 발갛게 물올라있었는데 일주일도 안된 사이에 연분홍빛꽃들을 활짝 피워놓았기때문이었다.

어딜 보나 꽃이었다. 배스를 타고가면서 보니 눈결에 띄여오는 장산에도 울긋불긋 봄단장을 했는데 길옆으로 내리드리운 개나리들은 노란 꽃잎을 방긋이 퍼드채 다소곳이 머리숙이고있었다.

종내 나는 개신문이 바라보이는 가루개언덕에 멈춰선 배스에서 내리고말았다. 차창가에 낮추 드리워 수집은듯 웃는 살구꽃의 유정한 향기를 맡으며 봄의 향취속에 잠겨보고싶었기때문이었다.

구름처럼 피어난 연분홍빛 살구꽃, 나무마다에서 풍겨오는 그윽한 향기, 마치 개신문을 가운데 놓고 끈게 뻗은 길 양옆에 두줄기의 하르르한 분홍빛 비단을 늘어놓은것 같이 눈부시게 안겨오는 길이었다.

나는 한참 걷다가는 서서 꿀벌들이 봉봉거리며 날아드는 나무우를 쳐다보고 또 걷다가는 걸음을 멈추곤했다. 나뿐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모두가 풍겨오는 꽃의 향기에 취한듯싶었다.

이때 길 한옆에 서있던 푸른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교통안전원처녀가 한걸음 나서더니 붉은 신호봉을 획 드는것이였다. 그 신호에 따라 달리던 승용차와 배스들이 조용히 멈춰서는데 가루개언덕을 넘어 까만 승용차들이 줄지어 달려왔다. 안전원처녀는 달려오는 승용차를 향해 손을 들어 정중히 거수경례를 드리였다. 그러는 그의 눈가에서는 맑은 이슬이 해빛에 반짝이였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 위대한 수령님이시구나! 생신날이 모레인데...)하는 생각이 번개치듯 떠오르며 눈곱이 찌릿이 젖어드는것이였다.

처녀는 경례를 올린 손을 오래오래 내릴줄 모른다. 세월을 거둬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차를 배려우고 맞는 처녀이니 년로하신 아버지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마음이 그의 눈가를 뜨겁게 한 모양이였다.

길가던 사람들도 승엄히 걸음을 멈추고 멀어져가는 승용차를 배려우고있었다.

《이제는 좀 쉬셔도 되시련만 또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누만.》

《글썸말이요. 자신보다 인민을 더 생각하시는 분이니... 참 전쟁시기 우리 대학을 찾으셨을 때도 탄생일을 앞둔 때였지.》

《그래 ...》

추억에 잠겨 내 뒤통에서 조용조용 속삭이는 너인들의 이야기는 나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려주었다. 뒤를 돌아보니 환갑이 지났을 녀인들이 차들이 사라진 모란봉너머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서있는것이였다.

그랬다. 1952년 전쟁이 한창 가렬하던 4월의 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피어난 싸움을 벌리던 대학생병사들을 학습전선으로 부르시고는 몸소 그들의 학습조건을 알아보시려 당시 종합대학이 자리잡고있던 백송리로 찾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백송리골안에 자리잡았던 학생들의 반토굴교사며 기숙사를 차레로 돌아보시면서 학습도 전투라고, 이제 미제를 쳐부시고 승리한 다음 우리 나라를 본래있게 빛내어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학생들이 탄생 40돐을 맞으시는 그이께 잠시 전쟁의 피로를 푸실겸 여기서 탄생일을 보내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고맙다고 고맙다고 거듭 사의를 표하시고는 또다시 전선으로 향하시였던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어찌 그날뿐이라. 탄생 65돐을 맞으시던 봄날에는 자신께서는 평양에서 연회에 참가하시여 술을 마시는것보다 로동자, 농민들 속에 있는것이 더 기쁘다고 하시며 지방 현지지도의 길에서 생신날을 맞으시지 않았던가.

어느해 여름 8월 15일에는 평양시 교외의 한 농장을 찾으시고 불별이 내려쬐이는 논두렁에 서시여 농사형편을 알아보시는 수령님의 모습앞에 눈물을 머금은 녀성관리위원장이 오늘은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기쁜날이어서 온 나라가 다 즐겁게 쉬는데 명절하루만이라도 휴식하셔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씀올렸을 때 그이께서는 그의 등에 가볍게 손을 얹으시며 나는 이렇게 협동농장의 포전길을 걷는것을 휴식으로 여기고있다고 숭고한 뜻이 담긴 말씀을 하시였다.

항일전의 피어난 나날 전우들이 잠시나마 쉬실것을 간청했을 때에는 이제 조국이 해방되면 마음놓고 폭 쉬시겠다 하시였고 해방된 조국에서는 조

국이 통일되면 그때가서 만시름을 놓으시고 쉬시겠다 하시며 휴식을 미루어오신 수령님이시였다.

정녕 우리 수령님의 한생에 어느 한시 어느 하루 자신을 위해 바치신 순간이 있었던가.

오히려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 조국의 번영에서 기쁨을 느끼시고 힘을 얻으시며 한평생을 보내오시지 않았던가.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첫머리에서 자신의 한생을 이렇게 총화하시였다.

《나는 나의 한생이 결코 남달리 특별한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한생이며 인민과 더불어 지나온 한생이었다고 자부하는것으로 만족할뿐이다.》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에게 주신 사랑으로 자신의 한생을 총화하시며 만족해하시는 수령님.

세력사에 이름난 수령도 령도자도 많았지만 이처럼 아무런 사심도 없이 한생을 인민을 위해 바쳤다고 자부한이 몇몇이나 되던가. 아니 동서고 금에 없을것이다.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을 사랑하시고 인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자신께서도 조밥을 달게 드시면서 혁명의 온갖 애로를 헤쳐가신분은 이 세상에 다시 없을것이다.

이런 분을 위대한 수령으로 모셔온 우리 인민이기에 그이를 따르는 마음 하늘땅이 변한대도 끄떡 없는것이고 충심으로 오로지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것이 아니라.

때문에 수령님께서 잠시라도 조국을 떠나시면 그 걸으시는 로정을 마음 앞서 달리며 날씨가 더울세라 흐릴세라 근심하고 어버이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이께서 돌아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건강하신 모습을 뵈우면 뜨거운 눈물속에 우러러 환호를 올리는 우리 인민이다. 그 마음들은 눈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가꾸며 그이께 기쁨을 드리려 애쓰고 세상에 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면서 충신의 대오로 자라는것이 아니라.

《자, 어서 가자구...》

두 너인이 생각에서 깨어난듯 걸음을 떼는 바람에 나도 그자리를 떴다.

내 머리우에서 꽃들은 여전히 산산한 봄바람에 향기 가득 풍기고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꽃을 즐기기에 너무도 승엄해졌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의 생신날을 앞두시고 만민이 드리는 축원의 인사도 받으시기전에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떠나가시는데 나는 출장을 나갔다가 명절을 즐기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봄꽃의 향취에 취해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없이 옥죄여들었던것이다.

흐르는 세월속에 이제는 우리모두가 식의주에 대한 아무런 걱정도 없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고있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아직도 못다주신 사랑이 있는듯 쉬임없이 인민을 위해 사랑의 길을 걸으시니 부디 만시름 놓으시고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여 주셨으면 ...

이것이 어버이수령님 따르는 길에 하늘에 닿는 인민의 마음이고 해가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현지도의 길을 떠나시는 수령님의 차를 바래우며 저 교통안전원처너만이 아닌 우리 인민모두가 후더운 눈물에 젖어 그이를 바래드리는것 아닌가.

나는 활짝 핀 길가의 나무들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아뢰고 또 아뢰었다.

부디 우리 수령님 돌아오실 때까지 꽃 한잎도 지지 말고 그대로 남아서 송이송이 향기그윽 풍겨 주려마. 오시는 그 길에 비단필을 늘이고픈 우리 마음 그대로 담아주려마. 부디...

인생과 세월

윤영락

마음속엔 동요시절 추억만 가득한데
어느덧 머리우엔 서리빛이 질었구나
허나 물결우의 쪽배처럼 세월에 실리어
황혼길을 걷지 않는 우리의 인생

그런말 말아라 우리 인생이
그 언제 세월에 얹혀서만 흘렀거나
포화속을 누비며 용접판을 펼치며
우리네 인생이 세월을 끌고왔다

머리우의 흰서리는 백병전의 총창빛
눈가의 잔주름은 대건설의 벽찬 자욱
투쟁과 위훈으로 세월을 평정하며
백년후의 앞날도 오늘에 당겨왔다

오, 한생을 혁명가로 펼치는 우리 삶을
흘러가는 나날속에 덧없이 내맡기랴
세월의 흐름우에 인생을 실지 말고
인생의 흐름우에 세월을 싣고가리

꽃에 대한 생각

신경애

보통 여느날과 다름없이 퇴근길에 오른 나는 발걸음도 가벼이 집으로 향했다.

규칙적으로 줄지어선 현대적인 고층살림집주변과 거리엔 온통 꽃천지였다. 그 꽃속에 묻혀 고운웃을 입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손목에 이끌리어 집으로 가고있었다. 행복한 저애들의 모습은 딸애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은혜도 지금쯤 집으로 돌아왔겠지. 무엇을 하고있을가.)

유치원에 갔다와서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온 식구들에게 각듯이 인사하고 방이 좁다하게 뛰어다니며 온갖 재롱을 다 피우다가는 엉뚱한 질문을 하여 웃음보를 터뜨리는 딸애의 모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집 가까이 이르니 은혜포래의 애들이 서로서로 손과 손을 잡고 꽃밭주변을 빙그르 돌고돌다 멈춰서 무슨 말인가 주고받다가 다시 원을 그으며 뛰놀고있었다.

애들이 뛰노는 오각별모양의 작은 꽃밭엔 진달래며 금전화, 만수국 등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여 있다. 4 월명절을 맞으며 사람들이 계절을 앞당겨 피워놓은것이다.

나는 은혜가 혹시 저애들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어린 눈길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알아맞춰보자요 알아맞춰보자요
이 세상에 고운 꽃 무슨 꽃일까

알고보니 아이들의 꽃놀이였다.

한애의 물음에 제가끔 꽃의 이름들을 불러댔다.

꽃밭을 가리키며 《진달래》하고 다급하게 소리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철쭉꽃, 백일홍, 다리아 등 갖가지 꽃들을 불러대는것이였다. 그러던중 《김정일화》하는 류달리 맑은 소리가 울리였다.

귀익은 목소리에 눈여겨보니 딸애가 뽀내듯 소리치고는 시뚱해있는것이였다.

나는 딸애의 그 뽀내는데도 귀여웠지만 그보다는 가장 소중한 꽃을 볼줄 아는 그 마음이 기특해서 한달음에 달려가 꼭 껴안아주고싶었다.

딸애의 그 부름에 노래로 화답하는듯 애들의 꽃놀이는 《김정일화》 노래로 번져갔다.

나는 아이들의 놀이에 방해가 될가봐 꽃밭가까이에 있는 의자에 가앉았다. 그리고는 한참이나 사랑스런 애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언제봐도 고와요 정말 고와요

김정일화 빨간꽃 정말 고와요

《언제봐도 고운 꽃》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노라니 저도 모르게 꽃에 대한 생각을 깊이하게 되었다.

꽃은 예로부터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일러왔고 사람들도 꽃을 사랑해왔다.

세계화초계에, 우리 주위엔 얼마나 많고많은 수천수백종의 꽃들이 있던가.

튤립, 장미, 국화, 모란, 란초, 울금향...

지금껏 원예학자를 비롯한 사람들은 꽃의 이름을 그 색깔과 모양, 향기와 피여있는 기일에 따라 그리고 지역과 풍습에 따라 명명하기도 했고 원예학자의 이름을 따서 붙이기도 했다.

또한 꽃의 이름을 인류사의 여러 시기를 꽃의 견지에서 보고 부르기도 하였다.

튤립시대, 장미시대, 수선화시대, 베고니아시대...

그러나 그 꽃이 시대와 더불어 인간의 운명과 더불어 빛난적 그 언제던가.

문득 나의 눈앞에는 텔레비존을 통해 본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 브라찌슬라바에서 진행된 제 12차 국제화초전시회가 느닷없이 방불히 떠올랐다.

세계화초생산국으로 알려진 화란, 벨지끄, 오지리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온 103개 화초생산회사와 단체 및 연구소가 참가한 국제화초전시회장에 출품된 아름답고 진귀한 820품종의 꽃들중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참가한 꽃도 있었다.

전시장꽃들을 무색케 하며 만민의 축복속에, 인류의 념원속에 특별상과 금메달을 받아안은 불멸의 꽃 김정일화!

정열에 타는듯한 붉은 색의 꽃잎을 펼치고 해님처럼 환하게 피어난 김정일화.

사람들은 꽃을 둘러싸고 군데군데 모여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특별상이 아니라 《왕상》을 새로 제정하여 수여해야겠다고, 김정일화가 세상에 태어난것은 세계화초계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붉게 타는 아침해처럼 피

여웃는 **김정일**화알을 떠나지 못하며 그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전문촬영가들은 이 꽃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자기의 필립을 아끼지 않았다,

하여 전시회가 열려 이렇게 매일 초만원을 이루어본 전례는 처음이었다고 전시관 책임일군은 말하지 않았던가.

이것을 어찌 눈에 띄게 독특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이어서만이라 볼수 있으랴.

보고보고 또 보아도 또다시 보고싶은 꽃이 **김정일**화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찾아온 이팔리아의 나이지숙한 한 원예학자는 우리 대표단성원들을 붙잡고 심장의 토로를 했다.

《나는 사색도 실천도 오로지 인민을 위해 하시는 특출하게 뛰어나신분이 바로 조선의 **김정일**각하시라하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또한 나는 조선인민들이 누구나 다 **김정일**각하가 누구이신가고 물으면 자기들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라고 긍지높이 말하고있으며 **김일성**각하를 모시듯 충심으로부터 그이를 모시고 받들어나간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당신들이 불멸의 꽃이라고 칭송하고있는 **김정일**화에 그 위인의 고결하신 품모가 매혹적으로 비껴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그의 심장의 웨침이라고만 볼수 있으랴.

김정일화! 이는 순수 자연의 혜택으로 피고지는 꽃이 아니다.

인민의 지도자, 인류의 지도자로서의 풍격을 완벽하게 겸비하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귀하신 존함과 더불어 색깔이 그토록 붉고 향기가 그윽해 더욱더 아름다와 만민의 사랑을 받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정열에 타는듯한 생기를 안고 탐스럽게 피어난 꽃송이에서 그이의 영상을 그려보며 싱싱한 심장형의 푸른 잎새와 억센 줄기를 보며 친근한 그이의 굳세인 의지와 담력을 안아보는것이 아니라.

아지마다 꽃잎마다 향기를 풍기는 꽃을 보며 로동계급들은 열정에 불타고 초소의 병사들은 충성을 맹세하며 미술가는 자기 화폭에 정중히 옮기고 수예가는 한뼘두뼘 정성담아 꽃수를 놓으며 창작가들은 시상을 무르익히고있다. 그리고 철모르는 저애들도 자기들의 소박한 꿈을 아름다운 선물에 담고온 목청으로 노래하는것이다.

만첩의 꽃잎마다 그이의 예지가 빛발치고 위인의 고결한 품모가 매혹적으로 비껴있는 **김정일**화!

꽃이 사람과 함께 있었어도 그 언제 오늘처럼 위인의 존함과 더불어 시대와 더불어 만민의 꽃으로 빛난적 있었던가.

일본의 원예학자 가모 모도데루는 위대한 분의 존함을 세계식물사에 남겨놓고 위대한 영상을 인류에게 안겨주려는 절절한 열망으로 한생을 바쳐 **김정일**화를 피워냈다.

1960 년대에 위도와 경도를 넘어 인도네시아에서 **김일성**화가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태어난데 이어 1980 년대에는 일본에서 주체의 향도성을 우러러 피어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

한세대, 한나라에 걸출한 두분의 존함을 모신 불멸의 꽃들이 태어난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긍지이며 기쁨이며 자랑이다.

이 무한대한의 행복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랴.

하여 우리 조국은 위인의 꽃들이 만발하는 대화원, 세계 인민들의 흠모의 마음들이 피워올리는 축원의 꽃 속에 더욱 아름답고 그윽한 향기 만리에 풍기리라.

《애들아, 우리 엄마가 왔어, 저기. 엄마-》

꽃놀이에 열중하던 딸애가 어느새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서는 나의 품에 담쪽 안겨들었다. 그제야 생각에서 깨어난 나는 나를 둘러싼 애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참, 너희들이 좋은 노래를 부르더구나.》

《엄만 무슨 꽃을 사랑하나요?》

나의 목을 그러안고 딸애가 물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마음이란다.》

애들은 내 입에서 꼭 그런 말이 나오리라 기대한듯이 《야-》하며 박수를 치었다. 그리고는 또다시 달려가 신바람이 나서 꽃놀이를 계속 하는것이였다.

애들의 노래소리가 쟁쟁히 울려퍼졌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노라니 온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김정일**화 노래소리가 누리에 메아리되어 울려오는것 같았다.

그렇다.

김정일화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부르는 노래는 대륙과 대양을 넘어 울려퍼지고 꽃의 이름은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향도성꽃으로 아로새겨질것이다.

나는 그 노래소리를 들으며 궁지에 넘쳐 집 충계를 올랐다.

경 레

조명기

표창휴가를 고스란히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류산 직장능력확장공사에 바친 최남호는 휴가마감날에 공장합숙에 들러 배낭을 찾아메고 역으로 나왔다.

부대로 돌아간다는것을 알면 공장간부들이 동석식사를 차린다, 합숙어머니들이 고향의 어머니대신 배낭에 색다른 음식을 넣어준다 하면서 자기를 난처하게 만들것 같아 다른날처럼 작업장에 나갔다가 휴식시간에 슬그머니 빠져나왔다.

남행차와 북행차가 어גיע 된 흥남역은 다른 때 없이 손님들이 많았다.

구름다리위에 올라선 남호는 봄비는 사람들속에서 옥숙을 찾기 시작하였다. 처녀라고 짐작되는 옷차림이 산뜻한 녀성들만 골라가며 눈이 아프도록 살펴보았으나 옥숙은 보이지 않았다.

(종내 대답을 안하더니 나오지 않았군.)

남호는 마음이 허전했다. 눈아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봄비였으나 남호는 마치 인적없는곳에 홀로 서있는것만 같았다. 그러자 느닷없이 휴가기일 중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고향에 다녀올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흥남에서 북행차를 타고 3 시간정도만 달리면 쌍암이라는 바다가마율이 있다. 바로 그곳이 남호의 고향마을이다. 그 멀지 않은곳에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자랑할수 있으리만큼 곱게 생긴 누이동생도 있다. 아마 이젠 제법 처녀꼴이 잡혔을것이다. 군복자락에 매달리며 쿵당쿵당 발을 구르는 누이동생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았다.

(중사 최남호! 전연초소를 지키던 병사답지 않게 무슨 그런 리기적인 생각을 하고있는가.)

남호는 스스로 화가 나서 자신을 질책하였다.

순간이나마 그런 생각을 한다는것은 자신의 병사다운 결심과 미거에 대한 모욕이었기때문이었다.

순간에 결심을 내리고 이 흥남역에 내리던 그때의 흥분이 되살아났다.

그날 렬차가 함흥역에 닿을 때까지도 남호는 자기가 고향이 지척인 중간역에서 휴가길을 멈추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지루하게 서있던 렬차가 함흥역을 떠나자 렬차 방송에서는 새시비년도비료생산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로동

계급의 투쟁소식이 울려나왔다. 전국이 비료생산을 도와나선 감동적인 이야기도 소개되었다. 방송원의 격조높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남호의 눈앞에는 중학교때 견학와본 비료공장의 전경과 비료생산자들의 투쟁모습이 어른거리기 시작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비료생산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이 계셨단말이지!)

이렇게 몇번이고 되뇌이던 남호는 렬차가 다음에 설 역이 흥남역이라는 소리가 들리오자 선반에서 배낭을 훌 잡아채가지고는 덤벼치며 렬차에서 뛰어내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든 말씀을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으로 받아안아야 할 병사의 자각이 쿵-하고 심장을 울렸던것이다. 남호는 곧바로 비료공장으로 달려갔다.

로동과에 들러 휴가명령서를 보인 남호는 류산 직장능력확장공사장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구내길에 나붙은 숙보들을 보고 그곳이 공장에서 힘을 넣는 일터라는것을 대뜸 알아차렸기때문이다.

그 공사장에서 제일먼저 낯을 익혔고 또 가장 친숙해진것이 바로 지금 역에 나오기를 바라는 차 옥숙이다.

로동지도원은 합숙에 자리도 잡고 피곤도 푼다 음 일을 하라고 권고하였으나 남호는 그 권고를 기어이 마다하고 그 길로 곧장 공사장을 찾아갔다.

비료공장구내가 온통 굵고 가는 관으로 뒤덮인 것처럼 류산직장확장공사장에도 제일먼저 눈에 띄이게 쌓여있는것이 각종 관들이었다.

남호는 흙무지위에 올라서서 끼여들 일판을 찻느라고 잠시 공사장을 둘러보았다.

바로 앞에서 건설자들이 직경이 한메터도 넘을 육중한 철관을 굴리고있었다. 모두가 목소리를 합쳐 《영차, 영차》 소리를 치며 기중기팔이 자라는곳까지 관을 옮겨가자 뒤미처 기중기가 가볍게 들어올려가지고 팔을 돌려 저쪽 한길에 넘게 파놓은 구덩이속에 조심히 내려놓았다. 모두가 달라붙어 관을 맞추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바로 이때 철관무지에서 맨 앞에 놓여있던 관이 마치 자기 차례가 된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한것처럼 육중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앞에 있던 판을 옮겨가는바람에 지지점이 약해 진데다가 대형화물차가 골재를 가득싣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땅을 흔들어놓는통에 경사면을 굴러내리기 시작했던것이다. 그 육중한것이 멈춰서지 않고 굴러가면 앞에 있는 깊은 기초구덩이에 떨어질수밖에 없었다.

남호는 그것이 합성타기초라는것은 알지 못했지만 판이 떨어지면 1 차공크리트치기를 하여 굳히고있는 기초에 균열이 가서 다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는것만은 순간에 알아차리었다.

어깨에 메고있는 배낭도 벗어놓지 못하고 남호는 나는듯이 판을 향해 달려갔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스무나문살가랑의 단발머리처녀가 남호보다 한발먼저 새처럼 날아들어 굴기 시작한 육중한 판 밑에 몸을 던졌다.

《여! 죽자구 그래!》

남호는 고향을 지르며 무작정 처녀의 어깨를 움켜잡아 핵 나꾸채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몸을 관앞에 대이었다.

굴기 시작하던 철판이 남호의 어깨를 내리누르며 멈춰섰다.

뒤메터 저쪽에 던져지듯 태를 치은 처녀는 콘크리트바닥처럼 다져진 굳은 땅위에 넘어지면서 심한 타격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무시당한 자존심때문인지 그자리에 퍼더버리고있은채 눈물이 가랑가랑 넘쳐나는 까만 눈으로 남호를 쏘아보았다.

파르르 떨리는 아래입술을 꼭 깨무는 처녀의 애된 얼굴에 뿔어넘치지는것은 원망이라기보다 가까스로 참는 울분이었다.

그것을 감촉하는 순간 남호의 머리에는 어깨를 압박하는 참기 어려운 아픔속에서도 내가 너무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스치었다.

그러나 숨이 짝 막힐수록 그대로 퍼더버리고있아 뻔히 쏘아만보는 처녀가 얄미워서 버럭 고향을 질렀다.

《뭘해! 돌... 돌을 가져와야지.》

그 소리에 처녀는 화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처녀가 골재무지에서 막돌을 안고왔을 때는 이미 건설자들이 달려온 뒤였다.

모두들 달라붙어 판을 뒤로 밀고 돌을 받쳐놓았으나 남호는 맥이 쪽 빠져서 모두숨을 길게 내뿜고야 겨우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팔을 저어보우. 그래 일없소?》

《다행이요. 군인동무가 아니었으면 큰일날뻔했소. 채 굳지 않은 기초에 이 육중한것이 떨어져내렸으면 어쩔뻔했소.》

모두가 남호를 적의 화구를 막은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남호는 쑥스러워 손을 내저으며 처녀를 돌아보았다.

《아닙니다. 진짜 영웅은 저 처녀입니다.》

그러자 고개를 숙이고 서있던 처녀는 황황히 달아나버리고말았다.

남호는 더 설명을 해야 누구도 끈이 들을것 같지 않아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수밖에 없었다.

쫓기듯 그곳을 떠난 남호는 건설장을 한바퀴 돌아보았다. 꼼꼼히 타산해보니 이미 벽체를 쌓고 미장을 시작한 3 층짜리 직장건물건설장이 자기한테 그중 적합한 일터였다. 다른 일에는 기능도 경험도 없지만 미장만은 남한테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때문이었다.

남호는 작업장구석에 배낭을 벗어놓고는 미장칼과 미장판을 청해들고 나섰다. 그러자 마치 기다리고있은듯이 조력공을 하겠다고 자청해나서는 처녀가 있었다. 그가 바로 판 밑에 몸을 들이대던 단발머리였다.

《휴가군인 중사 최남호요. 처녀동문 어느 직장에서 나왔소? ... 이름은 뭐구?...》

첫 휴식시간에 장갑을 타다가 내미는 옥숙에게 남호는 이렇게 통성을 청했다.

그러자 옥숙은 귀밑을 붉히며 어색한 웃음만 지어보이었다.

(자, 이런. 우리 금희만큼이나 수줍음을 타는 군.)

자세히 보니 생긴 모습도 금희와 비슷하였다.

자주 깜박이며 새물새물 웃는 눈과 아수할정도로 납작한 코는 신통히도 금희와 똑같이 생겼다.

한참 쳐다보아서야 처녀는 《차옥숙입니다.》하고 마지못해 대답하였다.

《직장은 비밀인 모양이지?》

이렇게 다시 옆구리치기를 했으나 옥숙은 끝내 직장직위는 대주지 않았다.

다른 처녀들에게 물어보았으나 그들도 공장에 새로 입직하여 아직 직장배치를 못받은것 같다고 자신없는 대답을 할뿐이었다.

며칠 함께 일하고나서 허물없는사이가 되었을 때 그게 사실인가고 물으니 옥숙은 마지못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남호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대답이 몇몇치 못하는데다가 얼굴에 난치한 빛이 어리는것으로 보아 직장을 숨기는것이 분명했기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성을 낼수도 없는 일이여서 남호는 기어코 알려고 하지 않았다. 구태여 알아서는 무엇하겠는가.

그렇지만 그동안 정이 들었기때문인지 떠날 때 고향의 누이동생대신 옥숙의 배웅이라도 받고싶은 생각이 불쑥 치밀었다. 그래서 오늘아침 작업장을 떠나기전에 그를 불러 조용히 만났다.

《옥숙이,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겠나?》

《부탁이요?》

옥숙은 눈을 깜박이며 뻔히 쳐다보았다.

《난 오늘 오후차로 부대로 떠나겠어. 이걸 절대 비밀이야. 옥숙이만 알고 슬그머니 역에 나와 바래 달라구. 그러면 고향에 갔던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부대로 돌아가 군사복무에 충실하겠어.》

옥숙은 대변에 난처한 기색을 지으며 땅만 내려다보았다.

딱해하는 옥숙을 보게 되자 남호는 그만 자신의 처사가 후회되었다.

자기가 언제 이렇게 리기적인 본위에 빠져 럽치 없는 요구까지 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화가 났다.

《됐소. 고향의 누이동생 생각이 나서 괜히 한번 해본 소리요.》

남호가 이렇게 부탁을 철회하자 옥숙은 더욱 딱해하였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였다.

그래도 행여나 하는 미련을 가지고 눈이 아프게 옥숙을 찾아본 자신이 멧적었다.

안내원들이 북행차와 남행차를 탈 손님들을 갈라세우기 시작하였다. 곧 열차가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남호는 허구픈 웃음을 짓고나서 서둘러 구름다리를 내려왔다.

바로 이때 새처럼 나는듯이 표찍는곳을 빠져나와 숨가쁘게 흠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단발머리를 들썩이며 뛰어오는 처녀의 턱밑에서 빨간령장이 해빛을 받아 불꽃처럼 타고있었다.

무심결에 그를 바라보던 남호는 그만 저도 모르게 《아니?!》하고 탄성을 질렀다.

배낭끈을 꼭 쥐고 숨가쁘게 뛰어오는 녀성군인이 바로 다름아닌 차옥숙이었던것이다.

《옥숙동무!》

남호는 무작정 소리쳐 불렀다.

옥숙이도 남호를 알아보고 마주 달려왔다.

《아이 남호동무!》

앞에 와서 마주선 옥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새물새물 웃고있었다.

남호는 땀이 송골송골 내뿜고 빨강게 달아오른 옥숙의 얼굴을 그저 멧하니 지켜보기만하였다. 어쩐지 그를 그저 놀랍고 기쁘게만 대할수가 없었던것이다,

입이 굳어진채 옥숙을 지켜보는 남호의 눈앞에는 까닭도 없이 왕청같이 리수복, 김광철, 한영철영웅들의 모습이 번개처럼 번뜩이었다.

아니 까닭없는것이 아니였다. 상사견장을 달고 앞에 마주서있는 차옥숙의 애된 얼굴이 영웅들의 모습을 불러주었던것이다. 이순간 영웅들의 모습은 남호에게 병사의 의무, 목숨바쳐 지키겠다고 군기앞에서 엄숙히 다짐한 조국앞에 지닌 그 의무를 어떻게 어떤 자세로 실행해왔는가를 묻고있었다. 참된 병사란 바로 삶의 순간순간은 물론 청춘과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조국에 바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이다. 그 각오를 순간도 잊고 살아온 남호가 아니였다. 그러나 그 각오의 실천과정에 자그마한 사심이나 티끌만한 부대조건이라도 있다면 그 어떤 영웅적위훈을 세운다 해도 그를 어찌 참된 병사라고 몇몇이 말할수 있겠는가.

하기에 병사라는 칭호 그자체가 그처럼 고귀하고 영예롭고 무거운것이 아닌가!

《상사동무!》

남호는 용기를 내어 옥숙을 불렀으나 뒤말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마주보기만 하였다.

어느새 북행차가 역구내에 들어와 천천히 멧어섰다.

뒤미처 남행차도 들이닥쳤다.

해야 할 말, 하고싶은 말이 가슴에 그득히 차올랐으나 출발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귀따갑게 울릴때까지 남호는 종내 입을 열지 못하였다.

남행차가 먼저 천천히 자옥을 떼었다.

남호는 끝내 아무말도 못한채 몸을 돌려 떠나는 열차의 승강대에 뛰어올랐다.

옥숙이도 달려가 북행차에 몸을 실었다.

《잘 가세요. 남호동무-》

옥숙이 손을 저으며 소리쳤다.

그러나 남호는 어쩐지 선뜻 마주 소리칠수가 없어 차렷자세를 취하며 승강대를 잡지 않은 오른손을 모자옆에 올려붙여 병사의 경례를 하였다.

그것은 결코 상급인 상사에게 하는 규정된 병사의 인사가 아니였다. 그 경례에는 자신에 대한 총화와 새로운 결의 그리고 옥숙에 대한 진정한 존경의 마음이 담겨있었다.

옥숙이도 높이 들어 흔들던 손을 우뚝 멈추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흘날리는 단발머리옆에 정중히 손을 올려 병사의 답례를 보내었다.

휴가를 뜻있게 보내고 부대로 돌아가는 상사 차옥숙과 중사 최남호를 태운 두 열차는 점점 멀어져 어느새 아득히 헤여졌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궤도를 따라 달리 고있었다.

금 강 산 외 2 편

김창근

등산복 차려입고 떠들며 떠났는데
절묘함이 더할수록 생각이 깊어지오
탐승길에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
작은 내 시첩에 적어놓자 하였는데
생각이 깊어지오
금강산에 오를수록-

걸음 못 옮기고 바라보는 삼선암
한모금씩 마셔보는 전설의 망장천
돌 하나도 물 하나도
정말이지 다 보화인데
원췌놈들이 여기에도 폭탄을 던졌구려
그 아픈자리 마음으로 쓸어보오

마음으로 쓸어보오

마음으로 쓸어보오
신비한 저 봉우리
옥같은 물 한줄기

오호, 그렇소 저기바루에
금강산을 넘보는 미체가 상기도 있소
으스스한 저 산권에 검은 총구 도사리고
우리의 탐승의 길
보고있소 듣고있소

아, 탐승의 길 탐승의 길
취해서는 아니오를 금강이여서
노래로만 아니오를 금강이여서
내 나라의 소중함이 사무쳐와서
불같은 맹세안고 나는 오르오

송 도 원

맑은 물, 하얀 모래, 따스한 햇빛
조국의 하늘은 그냥 푸르다
탐승의 길 내리는 벗들아
어서 옷을 벗자 혜엄을 치자

머리우엔 두어마리 날아에는 갈매기
바라보니 생각난다 스물몇해전
그날도 하늘가엔 갈매기가 날았지
푸른 숲속에선 야영기가 날렸지

배, 나포된 배, 미쳐난 놈들
앞바다에 검은 군함 밀려들건만
우리의 푸르른 하늘가에서
우리의 야영기를 내리우지 않았지

그땐 미처 몰랐구나

어이하여 이리도 물이 맑은지
겨웁도록 온몸에 햇빛이 따스하고
밭밀에서 모래가 이리도 하얀지

맑은 물, 하얀 모래, 따스한 햇빛
조국의 하늘은 그냥 푸르다
벗들아 어서 혜엄을 치자
조국의 바다를 어서 마음껏-

오늘도 미국놈들
검은 칼 버리며 헛꿈을 꾸어도
수령님과 우리 당의 담력이 있어
내 나라의 물은 흐려지지 않으리라

아 아- 내 나라의
맑은 물, 하얀 모래, 따스한 햇빛!

강원땅

즐거운 탐승의 길
웃으며 함께 가던 안내원처녀
걸음을 멈추고 말없이
바라보는곳이 어디냐
푸른 산발 저 너머...

못가는곳이란다

달리는 준마같이 푸른 산발은
하나로 굽이쳐 장엄하건만
아, 못가는곳이란다
저 산넘엔 남강원도...

오가던곳이란다
한물빛 출렁이는 도래곶이 돌아서

어아디야 달빛지고 고성에서 떠난 배
아득히 수평선에 아침해 솟아올 때
에헤야 닦내려라 속초의 정든 포구

오가던곳이란다 오가던곳이란다
여기 서서 바라보니
엎어질듯 달려오는 힘찬 산줄기

귀기울여 들으면
내 겨레의 부르는 소리 들리는듯

아, 남강원도가 웬말이나
강원도는 예로부터 하나뿐이다
분계선 저 너머가 내 조국이듯
푸른 산 저 너머도 한강토이다!

언제나 한모습으로

원현호

묻는다
내 량심에

맑은 날엔
보란듯이 팔을 걷고 앞에 서고
맑은 날엔
눈치보며 팔짱끼고 뒤에 선적 없는가

저곳에 가선
이렇게 말하고
이곳에 가선
저렇게 말한적 없는가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맑은 거울-
군중의 눈에
한 인간인 내
두모습으로 보인적은 없었던가

대답하노라
내 량심은

내 어찌

가슴속에 하나의 심장 품고
두가지 말을 하고
하나의 몸
두가지 걸음새를 보이라
그렇게 산다면
낱아키워준 어머니도
어릴적부터 귀에 익고 눈에 익은
나의 목소리, 나의 걸음새
알아보지 못할것이니

맹세컨대
내 언제나 한모습으로 살리
밝은 낮에도
어두운 밤에도
어머니가
천리밖에서도 내 목소리 가려듣고
먼곳에서도 내 걸음새 알아보듯이
행복한 날에도
준엄한 날에도
언제 어디서나
나를 품어키워준 우리 당이
나의 진모습 쉬이 찾아볼수 있게!